

선재 스님(선재사찰음식문화硏 원장)
제철 먹거리가 보약
생명 지키는 음식이 부처님
16 · 17면

현대불교

창간 20년
2014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58년 단기 4347년(음력 10월 6일) · 주간

제1020호 2014년 11월 27일 목요일

금주의 법구-〈대품반야경〉
사람은 깨끗하고 더러움에 차별을 둔다
사물의 본성은 깨끗함도 더러움도 없다
일체 편견이 떠나면 모든 것은 깨끗하다.

조계종, 선학원 주권 환수 '강수'

중앙종회, 특별법 결의… 대규모 추진위 구성 전망

조계종이 법인 등록을 놓고 갈등 중인 선학원의 정상화를 위해 종단적 역량을 모으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선학원과의 협의와 법적 대응을 함께 진행할 수 있어 조계종과 선학원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 들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성문)는 11월 18일 속개한 200회 정기회에서 '선학원 정상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 을 수정 가결했다.

이에 따라 조계종 총무원은 선학원의 탈종단 시도행위를 저지하고 운영 정상화를 위한 종단적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

법에서 밝힌 선학원 정상화 관련 사업으로는 △선학원과의 협의 진행 △각종 회의, 세미나, 공청회 등 개최 △자료 수집 및 자료집 편찬 △민 · 형사 등 법적 절차 추진 등을 추진한다.

추진위원회는 종정 스님을 증명으로 △고문에는 원로의장과 협의해 총무원장이 위촉한 원로급 스님 40명 △지도위원에는 총무원장이 위촉한 50인 이하의 중진 스님 △위원에는 총무원장이 위촉한 중앙종무기관장 3인, 중앙종회의원 12인, 교구본사 주지 11인, 선학원 관련 문도 30인을 포함한 70~100인 스님 등 총 150~200인으로 구성된다.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총무원장, 중앙종회의장의 협의를 거쳐 종정 스님과 원로의장 스님의 동의를 받은 스님으로 하며 상임위원장은 총무원 총무부장이, 상임위원은 추진위원장이 추천한 11~15명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별도로 없으며, 결원이 있을 경우 추진위원장의 추천으로 총무원장이 임명한다.

협의 · 민형사 절차 등 진행
"선학원 설립정신 회복 전력"
재가이사 수용 법인법 개정
대각회 특별교구로 지정돼

선학원, 20일 분원장회의서
'제2 정화운동' 결의 재확인

법 제정 취지에 대해 총무부장 정만 스님은 "선학원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 종단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등 파행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선학원 운영이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해결을 위한 종단적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려 한다"고 밝혔다.

등록 법인 전면적 끌어안기

이와 함께 조계종 중앙종회는 '법인 등록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과 대각회 특별교구 지정의 안을 17, 18일 잇달아 통과시켰다. 이는 등록 법인에 대한 종단의 '끌어안기' 정책의 의지를 그대로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법인관리법이 통과됨에 따라 사찰보유법인 이사 전부를 종단 승려로 규정했던 것이 2/3로 개정된다. 일부 사찰보유법인의 경우 법인 운영에 있어 재가 이사 참여를 열어두고 있어 등록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한 사찰보유법인 대표자는 종단 승려로 해야 함을 명시했으며, 선학원과 대각회는 이사 전부를 종단 승려로 규정했다. 선학원 이사의 1/4를 총무원장 추천을 통해 이뤄지게 한 부분은 종전과 같이 유지했다.

제재 사항이 명확하지 않았던 미등록 법인에 대해서는 명확한 권리 제한을 삽입했다. 또한 '총무부장은 이 법의 개정과 관련 사항에 대해 협의기구를 설치해 법인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는 업무관장 및 협의 조항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중앙종회는 법에 탄력적 준용을 위해 법인관리법에 대한 유예기간을 내년 2월 28일까지 명시하기도 했다.

선학원, 정화 결의로 '맞불'

반면, 선학원(이사장 법진)은 11월 20일 안국동 중앙선원 법당에서 전국 분원장 회의를 열고 법인관리법 등의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분원장 스님들은 지난 11월 3일 이사회에서 채택한 '제2 정화운동 선언문'을 전폭 지지한다고 결의했다.

분원장 스님들은 회의 직후 발표한 결의문에서 △이사회의 제2 정화운동 선언문 적극 찬동 △선학원 장악 음모를 막아내기 위한 '범행단'에 적극 참여 △새로운 시대 국민과 불자가 의지할 수 있는 선학원 건설 등을 주장했다.

이날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불교가 최대의 위기에 빠져있다"면서 "법인법은 선학원을 뺏기 위한 법"이라며 조계종을 지속적으로 비판했다.

이에 앞서 선학원 이사회는 11월 3일 "조계종을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정화운동을 다시 한 번 시작함을 엄숙히 선언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2 정화운동 선언문을 채택 · 발표한 바 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중앙종회 관련 기사 2면



한중일 불교인 '한반도기' 흔들며 한중일 3국 불교도들의 교류행사인 제17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가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한국에서 열린 가운데 300여 불교지도자들은 19일 임진각에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평화행진을 진행했다. 이들은 도라산전망대에서 세계평화기원법회를 열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사진은 민통선 통일대교 관문에서 한중일 3국 불교지도자들이 한반도기를 흔들고 있는 모습. 파주=노덕현 기자 〈관련기사 3면〉

"조계사 성역화, 국민 정신문화 산실 될 것"

조계종, 17일 총본산성역화불사 추진위 출범

한국 전통문화를 널리 알릴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사업' 을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가 출범했다.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자승)은 11월 17일 서울 조계사에서 '총본산 성역화 불사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봉행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원로의장 밀운 스님, 중앙종회의장 성문 스님, 전국 교구 본 · 말사 주지, 이기흥 중앙신도회장, 강창일 국회정각회장 등 사부대중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출범식에서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은 "조계종 총본사 성역화 대작불사는 불자는 물론 온 국민의 정신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는 불사"라며 "지혜와 자비의 법륜이 더 넓고 깊고 크게 구르는 토대가 될 이 불사에 수희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사업은 '견지동 역사문화관광자원조성사업'과 '10 · 27법난기념관 건립' 사업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총 35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동안이다. 견지동 45번지 일대 토지 면적 2만8577㎡ 규모에 10 · 27 역사교육관과 치유시설 등이 설립되고, 템플스테이체험관 등이 새로 들어서게 된다.



출범식에 앞서 총무원 1층에서 성역화사업추진위원회 현판식이 있었다.

성역화 불사추진위원회는 자승 스님을 위원장으로 전국 교구본사 주지를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지현 스님을 위원장으로 한 집행위원회가 실무를 맡을 예정이다.

자승 스님은 인사말에서 "조계사 일대를 시민과 함께하는 역사문화 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서원한다"며 "이번 불사는 후손이 디디고 설 공덕의 터를 넓히는 불은에 보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역화불사 총도감을 맡은 지현 스님은 "이번 불사는 10 · 27법난에 대한 불교계 명예회복과 이를 통한 국민인권 신장에 이바지하며, 국민 정신문화 창달의 큰 계기가 되는 사업"이라며 "2015년 예산 확정 후 토지매입 등 불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창일 국회 정각회장은 축사에서 "일각에서 제기된 불교 특혜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며 "성역화 사업은 10 · 27법난 특별법과 서울시 조례에 근거해 인사동 등과 연계한 전통문화 증진 공공사업으로 이를 흠집 내는 것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관련 칼럼 31면

동국대 제18대 총장 후보 5명 등록

총장추천위 11월 21일 후보 접수 마감

28일 후보자들 질의응답
12월 4일에는 소견 발표

동국대 18대 총장 후보로 김희옥 現총장을 비롯해 동국대 교수 보광 스님, 한진수, 조의연, 연기영 교수가 접수했다.

동국대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위원장 정안)는 11월 21일 총장 후보 공모 접수결과 5명이 접수했다고 밝혔다.

먼저 김희옥 現 총장은 정관계, 경제계 등의 폭넓은 인맥과 임기동안 학교발전을 이끈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동국대는 대학평가에서 역대 최고인 11위를 비롯해 발전기금 모금과 건학 108주년 기념관 불사 진행 등에서 순항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보광 스님도 유력한 총장 후보다. 조계종 종책모임 불교광장 회원이며 15대 중앙종회 의원인 보광 스님은 제17대 총장후보로도 나온 바 있으며 불교계를 비롯해 종단 안팎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인권위원회 위원장, 문화재위원회 위원 등 사회활동도 활발히 펼치고 있다.

한진수 경영학부 교수는 학교 경영일선에서 오랜동안 일해왔다. 2007년 경영부총장 당시 신정아 사건으로 진상조사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보광 스님


김희옥


연기영


조의연


한진수
〈출 · 재가 가나다순〉

조의연 영어영문학부 교수는 학교 내에서 경영관리실장 등을 맡았다. 조 교수는 이미 불교계 언론을 통해 한국학의 불교학과 한류의 기초가 되는 영화학 등 두 분야의 교육에 집중해 동국대의 국제화를 이룩하겠는 공약을 밝힌 바 있다.

연기영 법학과 교수는 국내 스포츠법 분야 전문가로 10여 년 동안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10여 차례 이상 대규모 국제학술대회를 주관하고, 아시아스포츠법학회 및 세계스포츠법학회에서도 중추적 역할을 해 오고 있다.

한편, 총추위는 11월 24일 정안 스님, 혜일 스님과 교수대표 황순일, 유흔우 교수 등으로 이뤄진 실무위에서 후보자 자격 검증을 마친데 이어 28일 2차 회의를 열고 후보자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또 12월 4일 오전 10시 3차 회의를 열고 총장 후보자 소견발표가 진행한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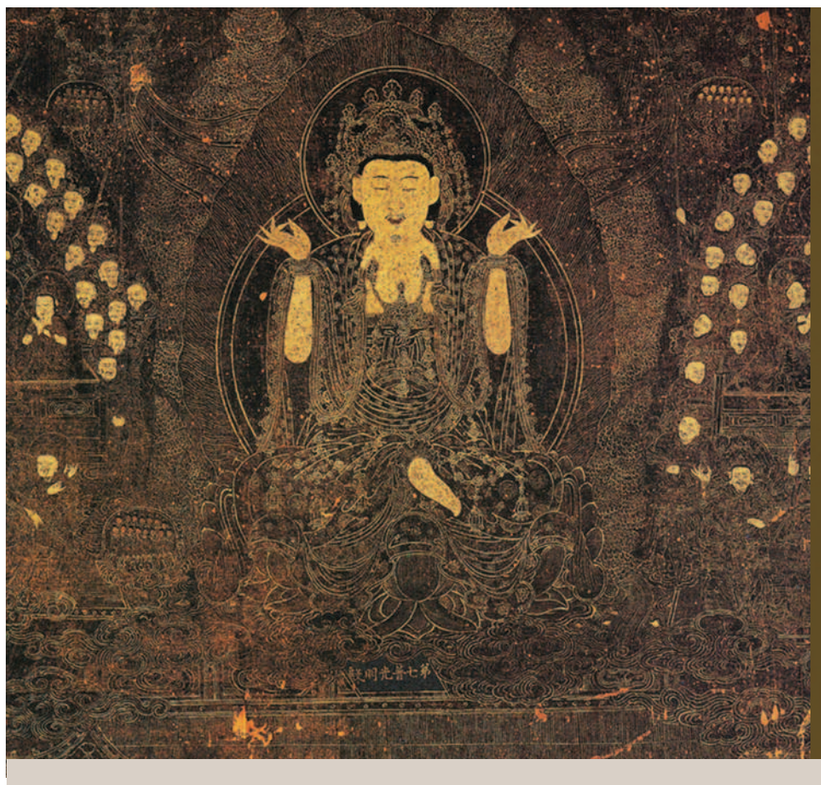
1020호 INDEX

시방세계 5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 '한국의 전통차' 토론회



함께가요 강의실 8
불광사 선덕 혜담 스님 '반야바라밀의 창조력'





통도사
화엄산림대법회

입재 2014.12.22 (월)
회향 2015.01.19 (월)
장소 통도사 설법전

진리에 대한 간절한 마음모아 禪, 敎, 律의 큰 스승들을 모시고 문수보살의 지혜와 보현보살의 실천 그리고 선재동자의 금강과 같은 구법의 마음을 배우고 이 공덕으로 일체 유정과 무정들이 정토에 왕생하기를 발원하는 화엄산림을 봉행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동참금 영가동참비 : 1위당 이만원 | 온산림 동참금 : 이십만원 | 반산림 동참금 : 십만원

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108 | 통도사 종무소 ☎ 055) 382-7182 통도사 화엄전 ☎ 055) 381-1288

선학원 '근대불교역사관' 첫삽 뜨다

20일 중앙선원서 기공식… 2015년 준공 예정

선학원 중앙선원이 '한국근대불교문화역사관'으로 변화한다.

선학원(이사장 법진)은 11월 20일 안국동 중앙선원 마당에서 '한국근대불교문화역사관' 기공식을 개최했다.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은 "지나온 100년의 역사를 이어서 새 100년을 준비하는 자리"라며 기공식에 의미를 부여하고 "역사관의 원만성취를 부처님 전에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세균(새정치민주연합) · 장윤석(새누리당 불자회장) · 김장실(새누리당) 의원들은 축사를 통해 선학원의 불사가 원만회향되도록 도울 것을 약속했다.

역사관은 814㎡ 면적에 전통한옥 양식의 지상 2층, 지하 4층, 연면적 1991㎡ 규모로 지어진다. 힐링센터, 전시관, 전통문화 체험관, 소통센터, 대강당이 들어선다. 사업비는 64억 원이며, 이 가운데 국비와 지방비 보조금은 35억 원, 선학원은 29억 원을 투입한다. '한국근대불교문화역사관'은 내년 12월 준공하고, 2016년 7월 개관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선학원은 11월 20일 중앙선원 마당에서 한국근대불교문화역사관 기공식을 개최했다.

"국경을 초월해 우리는 하나"

자승 스님, 16일 이주민 한마당 자비나눔 방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이주민들을 위한 축제에 참석해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들을 격려했다.

자승 스님은 11월 16일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가 주최하는 '제6회 이주민 어울림 한마당'에 참석했다. 경기도 오산시민회관에서 열린 어울림 마당에는 네팔, 스리랑카, 몽골,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등 아시아 국가 출신 이주민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국제화시대이자 다문화사회인 지금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여러분은 중요한 사회 구성원"이라며 "국경과 인종을 초월해 우정을 나누는 것은 뜻 깊은 일"이라고 밝혔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불교계 이주민 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해 마주협 상임대표 진오스님에게 자비나눔 기금을 전달했으며, 배구대회에 앞서 직접 시구해 눈길을 끌었다.

이후 자승 스님은 사단법인 나눔과 비움이 운영하고 있는 불교계 유일의 위탁형 다문화 대안학교인 오산 행복한학교를 찾아 학생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11월 16일 자비나눔 방문한 이주민 어울림 마당에서 주최 단체인 마주협에 격려금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제공= 조계종 홍보팀

내년 예산 480억원… 신도시 포교 등 역점

조계종 중앙종회 200회 정기회 이모저모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내년도 예산이 480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일반회계 240억 4천여 만원과 특별회계 239억 7천여 만원을 합친 것으로 올해와 대비해 총 7.4%로 증가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성문)은 11월 18일 속개한 200차 정기회에서 2015년 중앙종무기관 예산안을 논의 끝에 원안대로 통과했다.

내년도 예산 기조는 △총본산 성역화 △승려복지 △중앙교구 균형발전 등 34대 집행부 중점 전략과제에 집중 편성됐다. 대신 휴일수당 조정을 통한 인건비 축소, 일반사업비의 예산을 줄였다.

기관별 예산을 살펴보면 주로 일반 종무행정이 이뤄지는 총무원 총무부, 기획실, 문화부, 호법부, 포교원 등은 예산이 축소됐다. 하지만 종교용지 등의 특별회계 전출이 있는 재무부와 내년 세계평화기원법회를 진행하는 사회부는 예산이 각각 22%, 8%로 증액됐다.

중점과제에 대한 사업 집중을 위해 신도시 종교용지 확보로 5억 원, 승려복지에 2억 원, 총본산 성역화 사업에 2억 5천 800만원이 각각 특별회계로 전출된다. 또한 내년에 열리는 세계평화기원법회에 3억 원의 사업비가 배정됐다.

세입 부문에서는 교구본사주지회의에서 밝힌 대로 중앙분담금을 동결했다. 직할분담금도 동결됐지만 약사사와 선암사 직할 전환으로 소폭 상승했다. 법인분담금은 선학원이 1억 원으로 동결됐고, 법인등록을 한 대각회는 2000만 원이 감액됐다. 문화재관람료 분담금은 올해 대비 6% 증가한 51억 원으로 책정됐다.

하지만 중앙종회의원 장명 스님은 낮은 예산 집행률을 예로 들며 예산 편성이 방만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스님은 "2013년도 예산 집행률은 93%인데 올해 예산 집행률은 10월 말까지 73.41%"면서 "예산을 2013년도와 2014년도를 대비해서 짜야지 총액만 맞추서 편성하면 안된다. 그러다보니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부분이 나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낮은 예산 집행률" 문제 제기
승려복지 대상자 전체 종도 확대
중앙~사찰신도회 연계 법안 개정
원경 스님 등 대종사 전형 동의도
거친 언행 · 책임 방기는 개선돼야

이번 종회에는 현안 종법들이 잇달아 개정됐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11월 17일 200회 정기회에서 총무원이 제출한 '승려복지법' 전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에 따라 수행연금은 폐지되고 대신 현재 무소득 · 무소임의 65세 이상 승려에 지급되던 의료비 등을 '결계신고를 필한 구족계 수지자'로 지원을 확대했다. 단, 수혜 대상은 종단 등록 사찰에 거주하는 승려를 우선 대상으로 시행토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에서는 종단에 승려복지 업무를 총괄하는 '승려복지회'와 이를 실행하는 '승려복지실행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승려복지회는 기존의 조계종유지재단 산하에서 조계종 총무원 산하로 이관된다.

또 종단과 교구가 승려의 입원진료비, 장기요양급여비,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하되 지원범위와 방법, 절차는 종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원진료비와 장기요양급여비는 2015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는 2015년 4월 1일부터, 국민연금보험료는 2017년 1월 1일부터 지원된다.

조계종 중앙종회가 11월 18일 수정 가결한 '신도법 개정안'은 중앙 · 교구신도회 등 각종 신도조직의 구성, 회원 자격, 주요 임원의 임명절차 등을 명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는 중앙-교구-사찰로 이어지는 신도회의 대의 체계가 자리잡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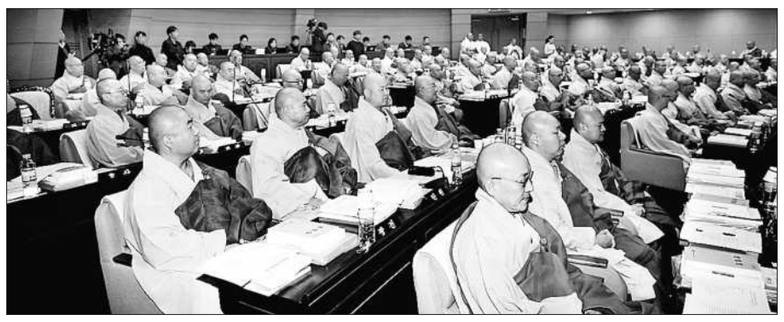
하지만, 논란이 됐던 종단 신도 조직 구성원의 자격 기준을 신도품계 품수자로 한정하는 조항은 의원들의 반대로 현행대로 존치키로 했다.

이에 대해 중앙종회의원 주경 스님은 "조계종 등록과 품수 신도가 30만 명이 안 되는 상황에서 사찰 신도회 구성을 품계 품수자로 한정지은 것은 현실을 모르는 것"이라며 "개정안은 먼 미래에 가능한 법안이다. 현실에 적용됐을 경우 일선 사찰의 어려움은 가중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조계종 중앙종회는 원로의원 원경 스님과 금정총림 범어사 방장 지유 스님,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지선 스님, 반야사 주지 종진 스님에 대한 대종사 특별전형 동의의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또한 중앙종회는 각종 인사안과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마무리 짓고 회기를 단축해 폐회했다. 200회 정기회는 16대 개원 중앙종회로 이목을 끌었지만 거친 언행과 책임 방기로 구태를 재연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실제 개원 종회 첫째 날부터 임시의장으로 선임된 영담 스님의 돌출 신상발언과 이를 저지하는 불교광장 측 종회의원 스님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막말을 이어가 파행으로 운영됐다. 또 종회에 부여된 감사권도 '종무행정감사 시행규칙'을 어겨가며 축소 집행해 물의를 빚었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 중앙종회 제200회 정기회 모습. 16대 개원 종회로 관심을 모은 만큼 여러 성과를 냈지만 의원들의 거친 언행과 책임 방기는 문제로 지적됐다. 사진= 박재완 기자

"승가 교육 불사 다시 시작합니다"

인터뷰- 조계종 교육원장 연임한 현응 스님

표준 · 단계별 교육 과정 정립
삼장원 등 수행기관 확대도
"미진한 부분은 더욱 보완"

조계종 중앙종회 200회 정기회의 성과 중 하나는 교육원장 현응 스님의 연임을 확정시킨 것이다. 현응 스님은 개원 첫 날인 11월 11일 교육원장으로 선출됐다. 이에 따라 현응 스님은 1995년 교육원 별원 이후 처음으로 재임하는 역사를 새로 썼다. 스님은 향후 5년 간 종단의 승가 교육 전반을 다시 이끌어가게 됐다.

이후 교육원장 현응 스님은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본인의 소감과 포부 등을 술회했다. 가장 먼저 현응 스님은 "교육원의 모토가 '자비를 구현하고 사회와 역사에 부응하는 승가교육'이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승가교육의 최종 목표"라면서 "승가 교육 불사는 이제 시작이다. 교육 불사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응 스님은 2009년 취임해 5년동안 교육원을 이끌면서 승가교육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왔다. 승가 교육을 행자부터 기본 · 전문 · 특수 · 연수 교육으로 단계별로 나눴고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에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도입했다. 교재는 한문세대가 줄어든 것을 반영해 한글화했다. 비구니 스님들을 대상으로 한 국제불교학교를 개원 · 정착했으며, 삼장원 · 염불원 등 수행기관 확대를 제도화했다. 연수교육도 큰 성과였다. 인문학, 예술 등 다양한 주제의 교육프로그램을 비롯해 해외 성지 순례 등도 도입했다. 사실상 승가교육의 전반을 바꿔놓은 것이다. 현응 스님을 두고 '일 중독자'는 수식이 붙은 것도 이 같이 다양한 성과를 내놓았기 때문이다.

이제 현응 스님은 교육불사의 '시즌 2'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복안은 잡히지 않았지만 미진한 부분은 보완해 교육 불사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이다.

현응 스님은 "지난 5년간의 사업이 모두 잘된 것은 아니다. 착오도 있었고 미진한 점도 없지 않지만, 종도들의 격려가 있어서 무리없이 추진될 수 있었다"면서 "자체평가를 통해 그간 교육개혁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내실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즌 2'든 '2기'든 3개월가량 안거 결재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승가교육 방향을 구상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승가교육의 기치에 대해 현응 스님은 "현대사회의 문제에 대해 불교적 해법을 내놓을 수 있는 스님을 양성하는 것이 교육의 최종적 목표"라면서 "2009년 임명 당시 초심을 되새기면서 소임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 교육원장에 재임한 현응 스님

"비구니 원로스님의 명의 도용과 명예 훼손까지…"

- 전국비구니회, 이제 참으로 바로 설 때 -

지난 10월 30일 비구니 원로위원 12분 스님들의 이름으로 "비구니 승가의 정법안장을 염려하며…"라는 심려의 글이 발표되었다.

이 내용의 귀결은 "현재 불거진 문제의 사안은 전국비구니회 운영위원회에서 해결한다."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임시총회를 통해 문제의 사안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대중적 명분을 저지하려는 운영위원장에게 일방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내용이어서, 과연 원로스님들의 판단이라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로 미심쩍은 부분이 없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알아보니 지금까지 확인된 결과 12분 중에 7분은 회장 명우스님의 전화를 받고 이름을 올리지 말라고 거절하셨다고 하였다. 원로 묘관스님께서는 "나는 거절한다고 했는데 이름을 올렸으니 내 이름으로 반박 성명서를 내어도 좋다."고 하셨다. 또 다른 원로스님들도 "내 이름 올리지 마세요." "나는 찬성 안 합니다." "나는 거절합니다." "나는 원로위원인 줄도 몰랐어요."라 하셨다고 하였다. 또는 "스님께서 지금 그런 일에 간여하시기 어렵다"고 시자가 전했다 하며, 어떤 시자는 다만 책에 이름을 올린다고 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하였다. 그리고 "운영위원장 계환스님을 사퇴시키는 조건으로 이름을 올려도 좋다." 라고 말했다는 경우도 있었다.

한 순간 우리의 심경을 착잡하게 했던 원로스님들의 심려의 글은 원로스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국비구니회장과 운영위원장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의혹을 금할 수 없다. 원로스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원로스님의 명예를 훼손시킨 것은 바로 전국비구니들의 명예까지 훼손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일로 이제 더 이상 명우스님과 계환스님은 전국비구니회장과 운영위원장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함을 한번 더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참 좋아요"

전 비구니회 회장이시고 현 운문사 회주이신 명성스님의 말씀이시다. 스님은 이 일에 대해 심히 염려하시면서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참 좋아요."라고 거듭 말씀하셨고, "우리 비구니회가 희망적이네요."라고 하셨다. 그리고 "비구니원로위원이라는 것이 없었는데 언제 만들어졌나요?" 라고 되물으셨으며, 다시 "원로스님들도 이 문제를 다 대화로 해결하기를 원합니다."라 하시며 말씀을 아끼셨다.

우리는 이제 1600여 년의 기나긴 역사 속에서 전통을 이어온 한국비구니 위상이 다시 한번 바로 서야함을 통감한다. 만약 끝내 비구니회장과 운영위원장이 공의를 외면하고,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임시총회를 그들만의 운영위원회로써 대체한 전국비구니회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전국비구니회가 바로 서고 새로이 거듭날 수 있도록 원로스님 그리고 6천여 비구니들의 뜻과 힘이 함께 모아지기를 기대해본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시아본사석가모니불

불기2558(2014)년 11월 20일

열린비구니모임(가칭) 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 : 혜운. 행법. 임대. 정현

세월호 희생 영가 위해 조계종, 팽목항서 수륙재

불교계가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9명의 실종자와 304명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기 위한 법석을 마련한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11월 29일 전남 진도 팽목항에서 '세월호 희생자 영가를 위한 수륙재'를 봉행한다. 이날 수륙재는 조계종긴급재난구호봉사단과 진도불교사암연합회, 백양사 · 화엄사 · 송광사 · 대흥사 · 금산사 · 선운사 등 조계종 호남 6개 교구본사의 공동주관으로 열린다.

이 자리는 4월16일 세월호 사건 발생 직후 지금까지 진도 팽목항에서 희생자 가족들을 지원해온 조계종긴급재난구호봉사단의 활동보고를 시작으로 추모법요식과 수륙재 봉행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어 김경윤 시인, 소리꾼 이병채, 박필수, 무용가 김태린 등의 추모공연과 희생 영가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304개의 풍등을 띄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종교문화재 예산 바람직한 기준은

종자연, 11월 29일 토론회

종교자유정책연구원(대표 박광서, 이하 종자연)이 종교문화재에 대한 정부 예산지원 논란을 종식시키고자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와 함께 앞서 종자연이 진행했던 관련 예산 지원기준과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도 발표된다.

11월 29일 오후 2시 만해NGO교육센터 2층에서 열리는 토론회에서는 황평우 문화재전문위원이 '정부의 종교문화재 예산지원의 타당성과 실태연구' 발제를 맡는다. 황 위원은 종자연과 함께 종교계를 비롯, 일반국민들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수용가능한 정부의 종교문화재 예산지원 기준과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토론에는 유광석(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연구원), 김진호(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연구실장), 박문수(한국가톨릭문화연구원 교수), 김영국(연경사회문화정책연구네트워크 상임연구위원), 이창익(한림대학교 생사학연구소 HK연구교수), 박광수(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소장), 안진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등이 패널로 참석한다.

종자연은 "종교문화재는 특정종교에 속한 종교적 시설물로 이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에 대한 실태와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韓中日 불교, DMZ서 한반도 평화 기원

〈비무장지대〉

17차 한중일불교교류대회 일환… 19일 철책선 평화행진

"전쟁은 훼불이며, 반불교적이고, 잔인한 폭력이라는 인식을 같이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세계평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선언합니다. 이곳 비무장 지대에 평화를 향한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 커다란 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한중일 불자들이 분단의 상징인 휴전선에서 평화를 위해 마음을 모았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는 11월 19일 파주 임진각에서 평화행진을 진행했다.

제17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 한국대회에 참석한 한중일 3국의 불교도 300여 명은 '평화로운 한반도, 조화로운 세계'의 대회 주제를 쓴 현수막을 뒤로 한반도 기를 흔들며 철책선을 따라 걸으며 남북 분단 극복 및 평화 정착을 기원했다. 임진각에서 통일대교까지 1km의 민간인 통제구역은 3국 불자들의 행진하는 동안 평화의 기운이 감돌았다.

종단협 회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중국불교협회 밍셩 스님, 일중한국제불교교류협의회 이사장 타케카쿠쵸 스님 등 대표 스님들은 행진에 앞서 마음을 모아 평화의 종을 타종하기도 했다.

행진에 이어 한중일 불자들은 개성공단이 내려 보이는 도라산 전망대로 자리를 옮겨 '한반도와 세계평화기원법회'를 봉행했다.

중국단장을 맡은 중국불교협회 부회장 밍셩 스님은 기원문을 통해 "사바세계는 전행이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빈발한 상황"이라며 "삼국 불제자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세계평화와 인민의 행복을 기원하며, 단결협력해 유대가 영원히 빛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일중한국제불교교류협의회 이사장 타케카쿠쵸 스님은 "제17차 한국대회를 맞아 삼국불교도는 함께 마음을 모아 진정한 평화의 실현을 발원한다"며 "세계평화, 중생안온, 환경보존 및 불법흥융을 지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제17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 한국대회에서 채택된 공동선언문이 발표됐다.



사진설명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11월 19일 파주 임진각에서 평화행진을 진행했다. 3국 스님들이 한반도기를 흔들며 임진각부터 통일대교까지 1km구간을 행진하고 있다.

임진각서 통일대교까지 걸어 행진 동안 평화의 기운 '물씬'
'세계평화기원법회' 함께 봉행
"전쟁, 反불교적" 공동선언도

종단협 회장 자승 스님을 필두로 한중일 대표단은 선언문 낭독을 통해 "이곳 비무장 지대에 평화를 향한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 커다란 전기를 만들고 있다"며 "바로 우리 앞에 보이는 개성공단은 서로 화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성공적 사업의 사례로 함께 하나, 둘 만들어 간다면, 마침내 이곳에도 평화가 정착되고 서로 자유롭게 왕래하는 통일의 그날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쟁은 훼불이며, 반불교적이고, 잔인한 폭력이라는 인식을 같이하며 △화합과 평화로운 세계 건설 △평화분야 협력사업 전개 △불국정토 위한 연대와 협력 강화에 뜻을 모은다"고 밝혔다.

도라산 전망대에서 스님들은 분단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남북화해협력에 힘을 모으겠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일한불교문화교류協 이사장 니시오카 료코 스님은 "일본과 한국은 함께할 운명으로 남한과 북한이 화합하는 것이 동북아 평화의 지름길"이라며 "천태종의 영평사 복원에 일본 천태종이 힘을 보탠 것과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장 일면 스님도 "한국의 불자들이 이땅에 진정한 평화를 위해 보다 마음을 모을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17차 한중일불교도대회는11월 18일 홍은동 힐튼호텔에서 단장회동과 환영만찬이 진행됐으며, 19일 평화행진과 평화기원법회에 앞서 호텔에서 학술강연회와 차기대회 일본 개최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됐다. 법회에 이어 대표단은 호텔로 자리를 옮겨 축하만찬을 가진 후 20일 폐회 후 개별 출국했다.

파주= 노덕현 기자



안양 한마음선원(주지 혜원)은 11월 16일 제26회 한마음선원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전국 각지에서 모인 5000여 명의 신도들이 부처님 뜻에 따라 바르게 살 것을 서원했다.

"부처님 법대로 살 것을 서원합니다"

한마음선원 5000여 신도 동시 수계법회 봉행

"오늘 오계를 받아 지닌 이 인연공덕으로 스승님의 법의 길을 따르며 저희 한사람 한사람 각자에게 적합하게 쥐어주신 관법수행의 방편으로 법의 수레고삐 꼭 잡고 흔들림없이 정진의 길 걸어가기를 다짐하오니…물러섬 없는 수행자로 나아가게 하여지이다!"

안양 한마음선원(주지 혜원)은 11월 16일 제26회 한마음선원 수계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국 각지에서 모인 5000여 명의 신도들이 부처님 뜻에 따라 바르게 살 것을 서원했다.

수계법회에는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아기부터 휠체어를 타고 가족들과 함께 온 노보살까지 다양한 신도들이 참석했다.

수계자들은 대행 스님의 생전 법문을 동영상으로 시청하며 내면의 자성을 밝힐 것을 다짐했다. 법문 시청 후, 수계자들은 삼보를 청하는 청송을 통해 불보살님들의 자비광명으로 수계를 증명할 것을 청하고 주지 혜원 스님을 계사로 모셨다.

혜원 스님이 오계를 설하자 신도들은 모두 함께 지계의 다짐을 하며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연비와 수계의식에 임했다.

수계를 받은 이정일 씨는 "부처님 제자로 살기 위해 수계에 동참하게 됐다. 오계와 함께 대행 스님이 강조하신 마음공부법을 실제 생활에서 잘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통일 이끄는 지도자 선출 중요해"

평화재단 창립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각계 전문가 토론회 진행
10주년기념 후원의 밤도

"통일을 위해 우리는 제도적 개선과 국민적 각성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가 통일을 원하고 통일이 우리에게 큰 이익을 가져온다면, 또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넘어 삶의 자존감을 가져온다면, 지도자를 뽑을 때 통일을 얼마나 중요시하는지를 잘 평가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평화재단 이사장 법륜 스님은 창립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이와 같이 말했다. 한반도 평화정책과 비전을 이끌어온 평화재단은 창립 10주년을 맞아 11월 18일 프레스센터 20층에서 '통일 패러다임'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주제 발표로는 △조민 박사(통일연구원 연구본부장)가 '한국 사회의 통일 준비'를 △윤여상 박사(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가 '북한의 통일 준비'를 △이근 교수(서울대 국제대학원)가 '한반도의 통일과 동아시아의 평화' 등을 각각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정낙근 선임연구위원(여의도연구원), 성경륭 교수(한림대 사회학과),



평화재단이사장 법륜 스님이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김영수 교수(서강대 정치외교학과), 이영훈 수석연구원(SK경영경제연구소), 조한범 선임연구위원(통일연구원), 이희옥 교수(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등이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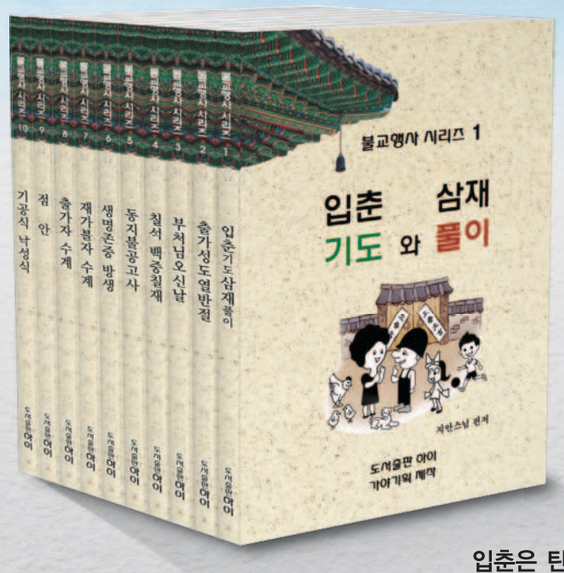
또한 저녁에는 세종문화회관 세종홀로 자리를 옮겨 창립 10주년을 기념하는 후원의 밤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내빈과 사회인사, 평화연구원, 평화재단 후원회 회원, 청년활동가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도법 스님(조계종 자성과 쇄신결사추진 본부장), 백도웅 한국종교인평화회의 고문, 최일도 목사(다일공동체 대표) 등 종교계 인사는 물론 새누리당 이재오 · 정병국 · 주호영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정세균 · 김한길 · 원혜영 · 문재인 · 안철수 의원 등이 참여해 성황을 이루었다.

정혜숙 기자

불교행사지침서

알기쉽고!
간편하고!
편리하게!

지안스님이 엮어가는
불교행사 정진기도
시리즈



1차 판매중



입춘, 출가성도열반전,부처님 오신날, 칠성불공,백중칠재, 동지불공 고사, 방생, 재가불자 수계, 출가자 수계, 점안, 가공식 낙성식 기도와 예식 행사,공양차림은 어떻게 지내고 지켜야 되는지 전10권으로 시원하게 알려준 지안 스님의 지침서

입춘은 탄생과 생명력을 상징, 불교신자는 부처님의 가름침에 따라 중생구제 기도로 절에가서 불공을 드린다.
입춘정의, 입춘기도준비, 기도순서, 기도진행, 삼보통청, 신중청,염송기도, 삼재풀이 민속식, 삼재풀이 기타식, 입춘추, 삼재부족등 수록

불교에서는 살생을 금하는것은 소극적인 선행이고 방생을 하는 것은 적극적인 선행이다.
준비,식순,진행,방생문,어류방생 기도문, 조류방생기도문, 방생기도 소원지, 방생사진, 방생 이야기, 방생 공덕, 용궁 치성 방생등 수록.

낮의 길이가 길어지는 시작을 태양의 부활로 여겼으며, 재액 초복을 위해 집안신에게 팥죽을 올리는 세시풍속의 의례적 고사로 불교신자들은 절에가서 불공을 드린다 .
동지 정의, 세시풍속, 불공 준비, 순서, 진행, 삼보통청, 신중권공, 신중불공, 신중염송, 영단 제례, 영가 시식, 동지 고사, 팥죽 예화등 수록.

도서출판 하이 공급원 가야기획 TEL: 02-379-2400. 031-948-0340 FAX: 031-948-3291

종정협의회 11대 회장 대응 스님, 3대 이사장 월인 스님 취임


대응 스님


월인 스님

(사)대한불교종정협의회는 11월 17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국태민안 경제발전기원 제11대 회장 석대응 대종사, 제3대 이사장 석월인 대종사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종정협의회 명예이사장 지산 스님, 세계불교연합법왕청 고문 해공 스님, 원로의원 정암 스님, 송산 스님, 법광 스님, 상임위원장 청봉 스님, 조계종 前총무원장 의현 스님을 비롯해 50여 종단 종정 및 총무원장 등 사부대중 1천 여 명이 참석했다.

법회에서는 청봉 스님의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신임 이사장과 회장에 대한 선임패와 종정협기와 직인이 전달됐다. 제3대 이사장에 취임한 월인 스님(승가종 종정)은 취임사를 통해 "불국토의 염원을 담아 해외 포교와 복지사업을 확대하고 호국불교로서의 역할을 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11대 회장 대응 스님(선불교조계종 종정)은 "호국불교의 역할을 다시금 생각하고 국태민안과 경제발전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노덕현 기자**

홍사성 주간 불교언론인상 본지 신중일 기자 최우수상

제 22회 불교언론문화상 시상식 12월 3일 역사문화기념관

본지 신중일 기자의 '만해 스님 열반 70주년-만해의 길을 가다'가 제22회 불교언론문화상 신문부문 최우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불교언론인상은 홍사성 불교평론 편집주간에게 돌아갔다.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자승)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보리가 주관하는 제22회 불교언론문화상 수상자와 수상작품이 발표됐다. 대상으로는 KBS부산, 부처님오신날기획 '항일결사, 선불교를 지켜라'가 선정됐으며 TV부문 최우수상에 BTN불교TV '붓다의 食思 2부작'이 우수상에는 아리랑국제방송의 '불복장, 불상에 역사를 담다'가 선정됐다. 대상으로 선정된 KBS부산의 '항일결사, 선불교를 지켜라'는 "불교계 항일 민족운동의 과정'을 자연스럽게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불교언론인상은 홍사성 불교평론 편집주간이, 특별상은 불교신문 신재호 기자의 '기획연재 성보 빛으로 전하다'와 아시아경제 기획취재팀의 위안부 보고서 55에게 각각 돌아갔다.


홍사성 주간


신중일 기자

특히, 홍사성 불교평론 편집주간은 "30여년간 불교계의 신문·방송·TV·잡지 그리고 저서를 통해 정법의 당간지주를 세우는데 전념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올해 불교언론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라디오부문 최우수상은 KBS 월드 부처님오신날 특집 '산사에서의 하루'가, 우수상으로는 BBS 불교방송 '룸비니동산이 각각 차지했다. 신문 부문 최우수상은 본지 신중일 기자의 '만해 스님 열반 70주년-만해의 길을 가다'가, 우수상에는 법보신문 권오영 기자의 '연중기획 조계종 개혁20주년 끝나지 않은 여정'에 각각 돌아갔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본지 신중일 기자의 '만해 스님 열반 70주년' 연재는 "한국 사회 전반에 인지도가 높은 만해 스님의 궤적을 추적한 수작으로 기사의 보편성과 대중성이 뛰어나며 사실성까지 가미된 우수한 연재물"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시상식은 12월 3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다. **정혜숙 기자**

일주문



동국대 108주년기념관 건립기금

청도 운문사 주지 일진 스님은 11월 17일 동국대에서 108주년기념관 건립기금으로 1억원을 전달했다.



2014 우수논문지원사업 선정

박영길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연구원은 11월 10일 2014년 우수논문지원사업 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주입식 아닌 질의응답식으로 수업 참여 유도"

서울승가대학 설립한 둔촌절 주지 범하 스님

출재가가 함께공부하는 사립 승가대학이 서울에 설립됐다. 서울 둔촌절(주지 범하 스님)은 11월 18일 서울 송파구 둔촌절에서 '서울승가대학 현판 제막식'을 봉행했다.

학장 범하 스님은 "재가자들이 참여하는데 승가대학이라 붙인 것은 우바이와 우바새가 포함된 4종 승가를 의미합니다. 요즘 승가교육 과정 개편이후 전통교학을 배격하는 모습이 두드러지는데, 한글 교육이 정착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문은 계속 중요합니다"라고 설립 취지를 밝혔다.

이어 커리큘럼에 대해 스님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약 5년간 티베트 드레풍 승가대학서 인명논리학을 전공했죠. 이 학문은 모든 현상의 원인을 밝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논법을 알아야 경전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범하 스님은 "제강의는 주입식이 아닌 철저한 질의응답 형식을 취할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수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죠"라고 굳은 의지를 피력했다. 서울승가대학은 교계 언론을 통해 학생을 모집한 뒤 내년 3월 9일경 개강한다. 한편 범하 스님은 직지사서 녹원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했다. 이후 송광사 승가대학 대교과를 졸업 했다. (02)414-1222 **김주일 기자**



부천 소사署 경승실, 17일 순직 경관 위령재



민생 치안을 위해 순직한 경찰관들을 위한 위령재가 마련됐다. 부천 소사경찰서 경승실(실장 성인)은 11월 17일 관내 법당에서 '제24회 전사순직 경찰관 위령재'를 봉행했다. 순국선열을 맞아 열린 이날 위령재는 소사경찰서 경승실장 성인 스님(부천 대덕사 회주)을 비롯해 김영일 소사경찰서장, 양승헌 소사경찰서 법우회장(경위) 등 사부대중 50여 명이 참석했다. **신성민 기자**

불기협 2014 불교기자상 선정

취재보도부문 본지 신중일·이나은 기자

한국불교기자협회(이하 불기협) 2014 불교기자상에 본지 신중일 이나은 기자가 취재보도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불기협은 11월 17일 '2014 불교기자상 심사와 장학생 선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불교기자상은 △대상(선원빈 기자상)에 법보신문사 권오영 기자의 '조계종 개혁 20주년 – 끝나지 않은 여정' △기획해설 부문에 불교신문 이준엽·홍다영 기자의 '영화 명량을 통해 본 임진왜란과 의승군' △취재보도 부문에 현대불교신문 신중일·이나은 기자의 '봉축특집-한국불교 포교합시다' △특별상에는 법보신문 김규보 기자의 '바람의 고원 티베트를 가다'가 각각 선정됐다.

한편, 불교기자상 시상식과 장학금 수여식은 12월 2일 오후 7시 서울 STX남산타워 만복림에서 열린다.

정혜숙 기자

"만해 사상 연구자 결집 계기로"

제2대 만해학회학회장 선출된 김광식 교수



만해 스님의 사상과 문학정신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만해학회의 2대 학회장으로 김광식 동국대 특임교수〈사진〉가 선출됐다.

11월 18일 서울 숭의여대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김광식 동국대 특임교수는 "만해사상을 연구하는 학자들을 대표하는 학회를 맡게돼 어깨가 무겁다"고 말했다.

김광식 교수는 그동안 만해 스님과 관련된 연구논문 24편을 펴낸 관련 전문가다. 김광식 교수는 학술지 〈만해학보〉을 재발간하며, 인제 백담사, 홍성군, 성북문화원 등과 MOU를 체결하는 등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김 교수는 "지금까지 문학정신에 연구가 집중돼 있다면 독립운동과 불교계 운동 등에 대한 연구가 이뤄지도록 나서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천태종 제4회 사진공모전 개막



천태종 제4회 사진공모전 전시회 개막식이 11월 20일 서울 인사동 라메르갤러리에서 열렸다. 개막식에는 천태종 총무원장 춘광 스님, 총무부장 월도 스님, 심사를 맡은 덕화 스님, 박봉수 한국불교사진협회장과 수상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개막식에서는 금상 수상자 김도운 씨, 은상 유승배·강한종 씨, 동상 김주현·문영숙·김수용 씨, 가작(5명)과 장려상(5명) 수상자들이 상장과 부상을 받았다. 사진전은 수상작과 입선작 등을 중심으로 24일까지 열린다. **김주일 기자**

군종교구 계룡대 호국사 교육관 낙성



군종교구(교구장 정우)는 11월 16일 계룡대 호국사 교육관인 '명진관'을 신축 낙성했다.

'명진관' 신축공사 금액은 군예산 14억원과 호국사 불사금 1억원 등 총 15억원이 소요됐으며 2층 234평에 어린이법당, 다목적실 및 군승법사실, 카페 등 현대적 포교시설이 들어서있다. 낙성법회는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의 법문과 국방시설본부 중청시설단 공군 김종범 대령의 경과보고, 테이프 절단 및 교육관 시설 안내 등으로 진행됐다. **노덕현 기자**

응공조계종 창종 3주년 기념법회



(사)대한불교 응공조계종(종정 법운)은 총본산 칠곡 동명사에서 11월 11일 창종3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행사에서는 200여 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사물놀이 상신이운, 오공양 작법, 육법공양 등이 이어졌다.

(사)대한불교 응공조계종은 원효 대사의 화쟁사상을 이어간다는 목표로 명진 법운 스님이 2011년 11월 11일 창종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장 선계문

대한불교원효종에서는 2014년 11월 25일 종정 추대식을 거행하지 않습니다.

전임 총무원장이신 향운스님께서 고산 큰스님을 종정으로 추대하겠다는 광고를 하였으나, 종정스님의 추대는 종정추대위원회의 추대에 의하여 행하는 것이며 본 종단의 종정스님은 설재 정광 큰스님이시므로 종정추대위원회의 추대가 없었던 고산 큰스님은 종정스님이 되실 수 없습니다.

향운스님께서 총무원장 선거에서의 낙선 후 지속적으로 종단의 업무를 방해하셨고, 심지어 본인이 현재까지도 총무원장이라고 불교신문에 광고하는가 하면 별도로 종회를 구성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종단에서는 종단의 질서와 종도 여러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향운스님께서 스스로 자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렸으나 총무원장직의 사칭이 날로 더하시고 이에 동조하는 종도들도 그 기세를 굽히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향운스님께 대하여 체탈도첩의 징계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향운스님께서는 체탈도첩의 징계를 받아 현재 종단의 승려가 아님에도 또다시 종정추대식을 하겠다며 광고를 하였습니다.

종도 여러분께서는 2014년 11월 25일 종정추대식은 향운스님의 해종행위 중의 하나임을 명심하시고 이에 현혹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향후 2014년 11월 25일 종정추대식에 참석하는 등 향운스님의 해종행위에 동조하시는 종도들에 대하여는 종단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체탈도첩의 징계를 할 것입니다.

2014년 11월 20일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장 우석 합장

대한불교원효종

종정 설재 정광

원로원장 **창해** 종회의장 **태일** 총무원장 **우석**

규정원장 **일륜** 총무부원장 **보원**

원로위원 **진덕. 수진. 수경. 각운. 성호. 혜담**

종회부의장 **자안. 보광**
종회의원 **법진. 무상. 자광. 능관. 법원. 명운. 현수. 지광. 상도**

선거관리위원장 **석불**
선거관리위원회 **춘명. 선운. 무공. 현수**

종학원장 **옥천** 법규위원장 **무상** 고시위원장 **자광**
포교원장 **선운** 재산심의위원장 **자언** 의전실장 **석해**

부산교구원장 **석불** 경북교구원장 **법진**
대구교구원장 **서응**
경남교구원장 **월함** 제주교구원장 **법원** 경기교구원장 **해인**
전남교구원장 **마명** 대전충남원장 **자성** 전북교구원장 **경오**
경북북구원장 **성죽** 강원교구원장 **성암** 울산교구원장 **지광**

총무부장 **해진** 사회부장 **능관** 재무부장 **천수**
교육부장 **유상** 문화부장 **대호** 복지부장 **원해**
포교부장 **성우** 규정국장 **남주** 사무국장 **수천**
조사국장 **최석주**

■ 총무원 : 경북 경주시 서라벌대로 322-10 (탑동 344-2)
전화 054)743-0700 / 팩스 054)741-9002



박동춘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은 현대 차가 형식에 치우쳐 수행정신을 잃고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가 진행되는 동안 박물관에서는 차 시음회가 열려 참석대중 뿐만아니라 시민들에게 전통차를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11월 15일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황해문명포럼 청년들은 차문화 대중화를 위한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의 스님 和而不同 정신을 茶에서 배우자"

〈화이부동 : 남과 잘 어울리나 자신의 중심을 잃지않음〉

동아시아차문화硏, '한국의 전통 차 확산' 토론회

"한국차 중흥을 위해서는 젊은 인재들이 필요합니다. 차인들이 초창기 일궈온 우리 차 문화를 젊은 세대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 박권흠 한국차인연합회 회장

"초의 스님이 억불숭유 시대에 차를 매개체로 유자들과 허심탄회하게 어울린 것은 차가 가진 문화적 기능때문입니다. 초의 스님의 화의부동 정신이 바로 차가 지닌 정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김종규 삼성출판박물관 관장

하얀 머리의 노신사에서부터, 전통한복을 입은 젊은 여성까지 11월 15일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로 가득했다. 이들 300여 명의 눈과 귀는 토론회장에 나선 젊은 청년들에게로 향해 있었다.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를 비롯한 한국 전통차 관계자들은 15일 한국의 차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차인들의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차인들은 "최근 한국 사회에 커피 열풍이 불면서 한국의 전통 차는 소외되고 있다"며 "1300 년 전 차 역사가 이어져 온 만큼 차를 즐겨 마시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행사는 한국차라고 하면 빠지지않는 대표단체들이 모두 참여했다. 사실 차인들이 갖고 있는 차인으로서의 자부심은 대단하다. 이런 까닭에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허심탄회하게 차문화 발전을 논의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토론회에는 한국차인연합회를 비롯해,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 명원문화재단, 반야로차도문화원, 오설록 등 관련단체를 비롯해 여연 스님, 도범 스님 등 불교계 인사들도 대거 참여했다.

젊은세대에 차 보급 관심 필요

이날 행사는 총 4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먼저 '1부 청년, 차를 묻다' 에서는 '차는 왜 마실까' 라는 주제로 젊은세대와의 토론이 진행됐다. 패널로는 민간동호회단체 황해문명포럼 김용재대표, 서울대 학생 명훤 씨, 이유진 세종문화회관 음향연출, 김희수 공군장교, 차동호까페 차낙골 김미영 대표 등이 나섰다. 토론회에서 이들은 회사 생활, 학업 등으로 바쁜 현대인들에게 차가 어떤 의미로 다가오며, 어떤 방향으로 개발해 나가야 하는지를 제시했다.

먼저 이들 중 일부는 사찰에서의 차를 마신 것이 차인이 된 계기라고 밝혔다. 명훤 씨는 먼저 "서울대 고시생활을 사찰에서 했는데 그때 스님들이 주신 차를 나와서도 즐겨마시게 됐다"고 소개했다. 이유진 씨도 "선암사에서 템플스테이를 하면서 차를 마시게 됐는데, 차를 마시면 오롯이 나를 바라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좋아 이후 자주 마시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인스턴트 커피에 대응해 현대인들이 보다 차에 가까워 질 수 있는 다양한 차가 개발됐으면 한다고 입장을 전달했다.

김희수 씨는 "회의를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차 한잔 하실래요' 인데, 보통 커피를 마신다"며 "블랜딩 차 등 현대인들이 차에 가까워질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미영 씨도 "일반인들도 차의 소중함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대중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권흠 한국차인연합회 회장은 "한국차 중흥을 위해서는 젊은 인재들이 필요하다. 차인연합회 탄생 초창기에 여러 젊은 사람들이 원력을 세운 것을 이어가자"고 말했다.

김종규 삼성출판박물관 관장은 "초의 스님이 억불숭유시대 펼친 화의부동의 정신이 바로 차의 정신"이라며 "차는 음료로서도 기능도 있지만 인성 교육의 일환으로도 중요한 역할이 있다. 다음 세대의 성찰 능력과 창의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기에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적극 장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문화 알리기는데 전통차 으뜸

2부 '원로, 차를 말하다' 행사에서는 한국차문화 운동을 주도한 원로들이 나서 초창기 과정을 술회했다. 원로로는 박동선 한국차인연합회이사장, 도범 스님(미국 보스톤 문수사), 정승연 다례원 원장이 나섰다. 특히 미국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친 실업가 박동선 회장은 한국전통문화를 알리는데 차문화가 으뜸이라고 강조했다.

박동선 회장은 "미국에서 정치계와 어울릴 당시, 차의 역할이 컸다. 한국전통문화를 알리는데 차가 크게 기여했다"며 "차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일이 훗날 한국의 정신적 단결을 이끄는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도범 스님은 "70년대 차문화 운동이 태동되기까지에는 한국전통 문화 육성에 관심을 가졌던 박정희 대통령, 명원 김미희 여사, 박동선 회장 등 수많은 이들의 기여가 있었다"며 "당시에는 마실차도 없고 차 그릇도 없었다. 한국전통다시를 재현하기 위해 골동품 가게마다 찾아다니기도 했으며, 해인사 사하촌에서 귀사발을 구해 차를 대접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미국 보스턴 문수사 주지 도범 스님

포럼 패널들
"사찰서 맛 본 차, 차세계로 이끌어"

박동선
"한국전통 알리는데 차만한 것 없어"



박동선 한국차인연합회 이사장

박동춘
"차 안의 수행정신, 성찰의미 살펴야"

우리 차문화 형식에 얽매여 정신 잃어가

이날 행사를 주관한 박동춘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은 '21세기 전통 차 진흥을 위한 대토론회' 에서 발표한 발제에서 박 소장은 "현대사회에서 뜨거운 온도에서 차를 달이는 전통이 약해지며 다구들도 급조되는 등 간편화되었다"며 박 소장은 "뜨겁게 마셨던 차의 온도가 낮아졌으며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수구(물 식힘 그릇)가 출현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소장은 "현대 차 문화 운동기에 형성된 다례는 차에 대한 절차와 교육의 폼이 필요했기에 형식을 우선시했다"며 "이로 인해 차의 원래 가치를 드러내지 못하는 문제를 낳았다. 차문화가 형식적으로 흘러가며 효능과 수행정신을 담은 모습이 퇴색됐다"고 말했다.

박 소장이 이어 차문화 활성화 방안으로 △국립 차문화 연구기관 설립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차학과 신설 △공공기관 주요음료로 차활용 의무화 △학교 급식 등에 차 활용 △다례 확대를 통한 시민의식 고취 △지리산과 보성지역 전통차문화특구 지정 등을 제시했다.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토론회장 한켠에서는 전통다기에 우려낸 다양한 차가 제공되기도 했다. 한국의 다인들이 모여 발전을 논의한 자리. 토론회는 한마디로 '차의 향기 속에 우리 문화 속에 흠뻑 빠져 지내는 아름다운 시간' 이었다.

노덕현 기자



저잣거리 수행전법도량 열린선원의 선원장 무상법현스님의
전법 수상록 「추워도 향기를 팔지 않는 매화처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속에서 3판 인쇄하였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디든 불러주시면
초청법회 및 싸인회를 통해 전법의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사찰과 단체(회사,기관,학교)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열린선원의 일정이 정해져 있어 가능한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 무상법현 일정 : 월요일 저녁, 수요일 저녁, 목요일 오후, 2.3.4주
일요일 오전, 음력 18일은 법회를 하고 있어 시간 제약이 있습니다.
(상기 외의 시간과 초하루, 보름, 관음재일에는 언제든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저잣거리 수행전법도량 열린선원 무상 법현 합장
주소 : 서울 은평구 연서로 17길 18-6 205호 / 연락처 02)386-4755
이메일 opentemple@hanmail.net / 스님 직통 010-5245-0370



축
3판발행

"전국 유명서점과
불교서점에 있습니다"

※ "추워도 향기를
팔지 않는 매화처럼"을
50권 이상 주문하실 분은
법현스님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신행 소식

“정신적 벽 깨뜨릴 때 본 모습 나와”

수불 스님, 프랑스 기메박물관서 간화선 지도



수불 스님은 10월 29~31일 프랑스 파리 국립 기메동양박물관에서 프랑스인을 대상으로 간화선을 지도했다.

동국대 국제선센터 선원장 수불 스님(범어사 주지)이 프랑스인을 대상으로 간화선 실참과 강연을 했다.

동국대 국제선센터에 따르면 수불 스님은 10월 29~31일 프랑스 파리 국립 기메동양박물관에서 프랑스인을 대상으로 간화선을 지도했으며, 11월 1일에는 파리 근교 길상사에서 특별초청법회를 가졌다.

이번 프랑스 간화선 실참과 강연은 기메동양박물관과 길상사 주지 혜원 스님의 초청으로 이루어졌으며, 국내에서 간화선 대중포교에 성과를 거두고 있는 수불 스님의 간화선 수행법을 프랑스에 전파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프랑스 기메동양박물관은 불상과 불교 유물을 소장하고 동양문화와 불교문화의 전시 · 교육을 담당하는 세계적인 박물관이다.

첫째 날, 수불 스님은 박물관 내 붓다관에서 간화선 수행법에 대해 설명하고 화두참구를 통한 깨달음으로 나가는 길을 제시했다. 또한 30여 참가자들은 죽비 소리에 맞춰 스님과 면벽참선을 했다. 이때 수불 스님은 ‘부모로부터 이 몸을 받기전의 모습이 무엇인가’, ‘석가, 미륵보살이 누구의 노예라고 하는데 누구의 노예인가’, ‘손가락을 튀겨 보세요, 무엇이 손가락을 튀기게 합니까?’ 라는 화두를 내리면서 “이런 말에 갑갑함이 형성된다면 이 막힌 마음을 정신적 벽으로 보고 답을 찾기 위해 공부하라. 이 정신적 벽을 깨뜨릴 때 본연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둘째 날에는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화선 강연이 진행됐다.

강연에는 간화선수행을 처음 접하는 프랑스인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고, 남방불교의 위빠사나, 호흡법 수행과 비교하며 한국불교의 수행법을 이해하는 자리로 구성됐다.

한편 수불 스님은 11월 1일 파리근교 길상사에서 열린 특별초청법회에서 현지 교민을 포함하여 100여 신도가 참석한 가운데 법문을 펼쳤다.

이나은 기자

7대종단과 함께한 생명살림 축제

불교상담개발원, 11월 17일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서 개최

불교, 천주교, 개신교 등 종교계가 한 자리에 모여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자리가 열렸다.

불교상담개발원(원장 도현)과 천주교, 개신교 등 7대 종단은 11월 17일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생명존중 자살예방을 위한 국민선언 선포식’을 열고 생명살림 축제 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장 주변에서는 자살예방 관련기관과 종교 단체들이 홍보 부스를 만들어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을 진행했다.

또한 전문상담지식을 갖춘 스님을 비롯한 종교인이 삶의 괴로움으로 좌절하는 이들을 치유하는 토크 콘서트도 열었다.



불교상담개발원(원장 도현)과 천주교, 개신교 등 7대 종단은 11월 17일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생명존중 자살예방을 위한 국민선언 선포식’을 열고 생명살림 축제 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나은 기자

100일 안거수행으로 ‘참 나’ 찾기를

전국 사찰 및 시민선방 재가자 동안거 결제

한겨울 동안 수행에 전념하는 동안거 기간이 돌아왔다. 올해 갑오년 동안거는 12월 6일(음력 10월 15일)부터 내년 3월 5일(음력 1월 15일)까지다.

스님들은 동안거 기간인 3개월 동안 외출을 금하고 한 곳에 모여 참선 정진을 한다. 이 기간에 도심사찰과 시민선원 등 수행단체에서도 재가자를 위한 동안거 정진을 실시하고 있다.

재가불자들은 3개월간 번뇌를 녹이고 참 ‘나’를 찾기 위해 용맹정진한다.

매년 1백여 재가불자들이 안거에 동참하는 **용화선원**(032-872-6061)은 재가자 안거의 효시라 불리는 곳이다. 12월 6일 11시 동안거 결제 및 화두 · 불명 · 십선계 수계법회를 여는 용화선원은 선원장 송담 스님의 법문을 들으며 수행의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마련한다.

부산 해운정사(051-746-2256)는 시민선원을 운영해 1972년부터 철마다 100여 명의 재가자가 안거를 지내고 있다. 100여 명이 정진할 수 있는 선방과 지대방 등이 잘 갖추어져 있어 안거 수행하기에 적합하다.

재가자와 스님을 같은 선원에서 정진시킨 향곡 스님의 가풍을 이어받아 전법제자이자 현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이 직접 선수행을 지도하고 있다.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043-423-7100)



한마음선원은 동안거 기간 오전 · 오후로 나누어 재가자 안거 수행을 진행한다.

용화선원 수계법회 · 결제 동시 열어

구인사 한달수도 12월 22일~1월 21일

성철 스님 백일법문 특별강좌도 열려

는 50여년간 지속적으로 해온 1개월 안거 원칙에 따라 12월 22일부터 2015년 1월 21일까지 ‘동안거 한달 수도’를 실시한다. 매년 평균 1500여명이 동참하는 안거 수도는 구인사를 비롯한 지역말사에서 안거가 진행되며, 어린이 청소년을 비롯한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3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동안거를 실시, 1500여명이 동참하는 결제에 들어간다. 안거를 마치면 이수증도 발급된다.

서울 조계사는 사찰에서 운영하는 **자율선원**(02-768-8525)에 80명의 방부를 들이고 매일 정진을 진행한다.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원하는 시간에 자율정진을 할 수 있으며 출석률이 높은 참가자에 한해 안거증을 발급한다. 또한 조계사는 해마다 동안거와 하안거 해제일, 정월 대보름 등을 전후해 신도들이 대거 참석하는 방생법회를 열어 나눔 정신과 수행을 통해 참다운 불자로 거듭나길 발원해왔다. 조계사는 이번 안거 기간 동안 ‘나눔과 수행의 동안거’를 주제로 보름, 초하루, 미타재일에 동안거 합동천도재를 지내며 2015년 3월 8일에는 대구 동화사에서 ‘나눔과 수행의 동안거’ 회향을 갖는다.

목동 국제선센터(02-2650-2200)는 12월 6일 동안거 입제식을 열고 90일 관음기도를 실시하며, 안양 한마음선원(031-470-3100)은 동안거 기간 동안 오전 · 오후로 나누어 정진에 들어간다. 입제식은 12월 5일 오후 7시 본원 5층 법당에서 열리며, 안거 수행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9시 30분~10시 50분), 오후(19시 30분~20시 50분)에 진행된다.

동국대 국제선센터는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 짧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수행정진에 들어간다. 2015년 1월 7~13일, 2월 7~13일 ‘간화선 집중수행’을 실시한다. 국제선센터 참가자들은 수불 스님의 화두 법문으로 입제를 시작해 6박 7일간 개별적으로 참선 정진에 들어가며, 수불 스님이 직접 화두점검을 하게 된다.

성철 스님의 백일법문을 듣는 강좌도 마련된다. 조계종 **백련불교문화재단**(이사장 원택)은 불교인재원(이사장 엄상호)과 공동으로 성철 스님의 〈백일법문〉 개정 증보판 간행기념으로 ‘백일법문’ 강좌를 개설한다.

이번 강좌(1661-1108)는 동안거를 맞는 12월 11일부터 2015년 3월까지 매주 목요일 10회에 걸쳐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문수실에서 ‘불교의 중도사상을 바로 알아 영원한 행복을!’ 주제로 열린다.

강좌의 증명 법사는 고우 스님과 원택 스님이며, 동국대 김성철 교수, 불광연구원 서재영 박사, 한국문화연수원 박희승 교수 등이 강사로 △불교의 본질 △중도사상 △근본불교사상 △천태종의 중도사상 등을 진행한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볼수도 들을 수도 없지만 마음으로 불법 느껴요”

봉은사, 시청각장애인과 금강경 봉헌 및 무차법회

“눈으로는 볼수 없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으로 접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부처님의 제자로서 차별과 편견이 없는 아름다운 정토세상을 이룰때까지 정진해 가겠습니다.”

장애를 넘어 부처님 앞에 온 대중이 하나로 되는 무차법회가 열렸다.

봉은사(주지 원학)는 11월 16일 법왕루에서 시작장애인 및 청각장애인 40명과 함께 금경경 봉독 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법회에 앞서 강태봉 시각장애인불자회장이 대표로 우리나라 최초 점자 금강경을 부처님 전에 봉헌했다. 점자 금강경은 11월 9일 광림사 연화원 해성 스님이 발간한 것으로 12월에는 점자 법화경도 발간 예정이다.

봉헌과 함께 광림사 연화원 해성 스님을 대표로 시청각 장애인들과 불자들은 함께 발원문을 낭독했다.

시각 · 청각장애인들은 “저희들은 금강반야바라밀경을 두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마음과 손끝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아울러 저희들의 손끝을 통해 온 세상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널리 퍼지도록 정진하겠다”고 발원했다.

이어 대중들은 집전스님의 목탁에 금강경 1독을 독송했다. 시각장애인들은 점자 금강경으로, 청각장애인들은 해성 스님의 수화로 독송에 동참했다.

봉은사 주지 원학 스님은 “그동안 불교계에서는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접하기 어려운 이들을 위한 보살핌이 부족했다”며 “모든 대중이 부처님 법을 접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장애인들의 요청에 따라 법당의 안내견 출입이 허락되기도 했다.



봉은사 일요법회에 참여한 시각장애인들이 이날 봉헌된 점자 금강경으로 일반불자들과 함께 독송하고 있다.

법당의 안내견 출입은 장애인들이 지속적으로 불교계에 요청해왔던 부분이다.

한편, 법사로는 동국대 명예교수 법산 스님이 나섰다.

금강경 3만독을 봉독한 법산 스님은 ‘금강경 독송의 의미’란 주제로 한 법문에서 “금강경의 근본 가르침은 욕심을 버리고 자신을 돌아보고, 또 주변을 돌아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 大出力 믹싱앰프

오래된 앰프를 『大出力 믹싱 앰프, 스피커』로 교체하시면 구형 앰프는 30만원 보상!!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고급 앰프케이스 무료 보시 합니다.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사회자용 마이크 스탠드 1대
· CD기기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법당전용 스피커



250W
350W
450W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가격 : 215,000원
285,000원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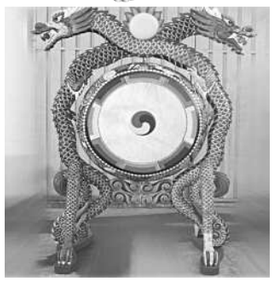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0-5264-3906 www.yjkukak.com

“재단에 대한 소속감 · 자부심 높여주죠”

조계종사회복지재단, 11월 6일 복지종사자 연수

지난 11월 6일 조계종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보경)은 산하 복지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명상과 휴(休)’ 라는 주제로 연수를 진행했다. 과도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에 직원들 평균 근무기간이 4년6개월에 불과하다는 사회복지사. 참가자 1백여명이 1박2일 동안 한국문화연수원에서 걷기 명상과 좌선체험을 하며 소진 예방에 나섰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의 정기 연수 프로그램은 1년에 4차례 정도 이뤄진다. 시설장, 실무책임자, 신입 등 대상별 연수가 끝나면 마지막으로 전체 시설 종사자들을 위한 교육이 한 차례 더 준비돼 있다. 프로그램은 매년 탄력적으로 운영되지만 강점을 두는 것은 불교자비사상에 입각한 불교사회복지인으로서의 마인드 제고와 재단교육이다. 이날 이뤄진 교육에서도 상임 이사 보경 스님은 불교사회복지현장전문가로서의 자세를 강조하며 사회복지가들이 지녀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 불교교리에 비춰 강의했다. 연수외 실무에 필요한 강의는 따로 보수 교육을 통해 진행한다.

이날 연수에 처음 참가한 임종필 센터장은(용인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 라온) “불교와 법인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다”며 “사회복지 시설은 대부분 위탁시설로 타 복지재단 소속이 될 수도 있고 복지사 역시 이직이 많은 직업이지만 교육을 받은 후 재단에 대한 소속감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임 센터장은 “지난 10월 사회복지사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던 혜민 스님의 마음치유 특강 역시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의 특성을 잘 살린 강의였다”며 “종종 이루어지는 이런 교육을 통해 재단 일원이라는 것에 긍지를 느낀다”고 답했다.

타 재단 경우 교육기간 6개월

산하 시설 직원연수가 불교 사회복지인으로서 정체성과 소명의식 확립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교육이 일회성에 그친다는 데 있다. 개신교의 한 복지재단 경우를 살펴보면 A재단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직원을 대상으로 재단 미션과 비전, 서비스, 실무교육 등을 최소 6개월에 걸쳐 진행한다. 중간마다 필기시험 혹

1년에 4회 산하시설 직원 연수
개신교재단, 최소 6개월 교육
“명상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 필요”

은 실기형태로 테스트를 진행하며 교육 효과를 극대화시킨다. 이 재단의 경우 산하시설이 11개 기관으로, 180여개에 달하는 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 비하면 거의 20분의 1수준이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체계적 교육이 용이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 A 복지재단 관계자는 “신입직원의 경우 배워야 할 부분이 많다”며 “직무, 예절, 서비스 교육은 한 번에 이뤄지기 힘들다. 재단의 가치에 걸맞는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장기적으로 교육을 탄탄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측도 이런 점을 인지하고 내년부터는 신입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시설 모체가 되는 재단에 대해 아직 상당수의 새내기 직원들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판단하기 때문이다. 1박2일로 진행하는 연수 일정을 2박3일로 늘리고 불교 기반 프로그램도 더 보강할 생각이다.


지난 11월 6일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산하 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수에서 참가자들이 명상체험을 하고 있다.

올해 신입 연수를 수료한 서울 종로구건강가정지원센터의 최솔(25)씨는 “108배와 발우공양 체험을 통해 불교에 대한 감수성을 높일 수 있었다”고 답했다. 재단 산하 타 기관 직원들과 교류 폭을 넓힌 것도 최 씨가 꼽은 장점 중의 하나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서찬수 팀장은 “사회복지계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다양한데 반해 실무자 사이의 업무 공유 기회는 적다”며 “연수를 통해 복지담당자간 네트워크 형성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복지사 소진예방 나설 계획

이번 연수에서 참가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명상도 복지사들의 정서적 소진 대비를 위해 개별 프로그램으로 독립시켜 진행해볼 계획이다.

‘복지사들의 복지는 누가 책임지냐’ 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사회복지사들이 격무에 시달려온 것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회복지사에 대한 이렇다할 가이드나 보호체계, 스트레스 관리법이 작동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한 복지사는 동료나 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신적 부담을 덜어내고는 하지만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렵다며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소진예방법에 대한 갈증을 나타냈다.

서 팀장은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복지사들의 마음 관리를 위해 도입한 명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참가자가 많았다”며 “내년에는 재단교육과는 별개로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해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위드아시아, 도담 어린이집 개원

서울시 위탁받아 향후 5년간 운영… 영유아 총 77명 이용중

위드아시아(이사장 지원)는 11월 14일 서울 금천구 독산로에 위치한 구립 ‘도담어린이집’ 의 개원식을 개최했다. 도담어린이집은 위드아시아가 서울 금천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향후 5년간 운영하게 된다.

도담어린이집은 1월부터 7월간 6개월간의 공사를 통해 지난 9월 1일 개원했으며 현재 영아 22명, 유아 55명 등 총 77명이 이용하고 있다.

개원식에는 위드아시아 상임이사 혜진 스님을 비롯해 차성수 금천구 구청장, 정병재 구의회 의장, 어린이집 관계자, 입소 어린이 학부모 등 많은 내외빈들이 참석해 어린이집 개원을 축하했다.

차성수 금천구청장은 인사말에서 “도담어린이집의 ‘도담’ 의 뜻처럼 어린이들이 야무지고 탐스럽게 자랄 수 있도록 위드아시아가 힘써 달라”고 했다.

위드아시아 이사장 지원 스님은 “위드아시아에서는 현재 캄보디아를 비롯한 해외에서 어린이 공부방 사업을 펼치는 등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교육 사업은 백년을 바라보는 참되고 보람 있는 일이다. 도담어린이집 아이들이 앞으로 맑고 지혜롭게 자랄 수 있도록 법인이 어린이집 교사들과 함께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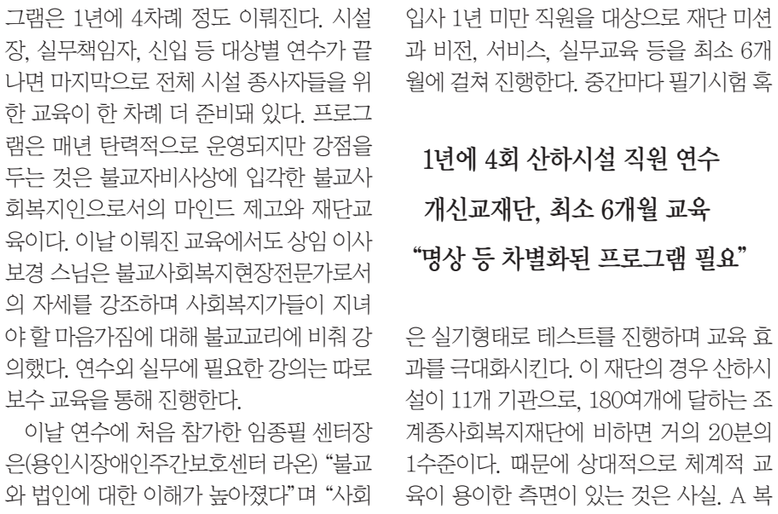
위드아시아는 아시아 지역 빈곤 · 소외계층과 국내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국제개발협력단체다. 지난 12여 년 동안 북한 어린이들을 돕는 인도적인 지원 사업을 전개해왔으며, 국제개발협력 사업으로 인도,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등에 학교 및 공부방 건립과 화장실, 우물설치, 지붕 개보수, 기초의약품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국내에서는 원폭2세 환우 쉼터인 합천평화의 집과 연계해 원폭피해자 및 2세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전개해오고 있으며 부산 용호종합사회복지관과 서울 도담어린이집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 있다.

배현진 기자



위드아시아가 운영하게 될 도담어린이집이 11월 14일 개원식을 가졌다.



반짝반짝 광나게~ 11월 13일 서울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관장 김승자)에 구두닦이 봉사대가 등장했다. 한국기능미화자원봉사회 은평지회가 ‘사랑의 구두닦이’ 활동을 진행한 것. 2010년부터 꼬박꼬박 복지관을 찾았으니 햇수로 벌써 5년째다.

이날 22명의 봉사단원들은 복지관 방문 어르신 2백명의 구두를 닦아드리며 담소를 나눴다. 가끔 보는 사이지만 이제 서로 안부도 챙길 수 있을 만큼 낯도 익었다. 복지관 관계자는 “햇수를 거듭할수록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구두닦이 봉사단원 분들이 오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분도 많다”고 전했다. 봉사대 역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어르신들께서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면 힘든줄도 모르겠다. 마냥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배현진 기자

다문화정착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신사복지관, 학원비 지원 등 프로그램 다양

신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지완)에서는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을 받아 다문화정착지원사업 은평MCM(Multi-culture Movement)참여자를 모집한다.

은평MCM은 다문화 이주여성들의 숨겨진 재능과 강점을 발굴하고 지역사회에서 선주민과 동반자적 네트워크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여러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재능강화 교육은 월 20만원 이내로 학원비를 지원, 결혼이주여성이 능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주여성 14명을 우선 모집하고 있다.

이어 재능 나눔 친목도모 모임에서는 댄스, 종이접기, 동화책 연구, 레크리에이션, 검정고시 반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주민 참여자 및 자원봉사자를 함께 모집한다.


신사복지관에서 열리는 다문화 토요카페에서는 결혼이주여성들이 다과를 만들어 팔기도 한다.

이외에도 은평MCM은 다문화 토요카페와 소셜마켓, 워크샵 등을 운영하며 다문화 가정들의 원활한 정착을 도울 예정이다.

배현진 기자

사랑손맛 나눔손맛 듬뿍 버무려

본동복지관, 11월 14일 틈새계층 지원 김장담그기

본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종성)은 11월 14일 마을에 나눔을 더하는 두레모둠사업 일환으로 김장담그기를 실시했다.

복지관 옥상농원에서 진행된 ‘사랑손맛 나눔손맛 알타리김장 담그기’ 에는 두레모둠사업 참가자인 나눔실천가 10명이 참가한 가운데 그동안 복지관 옥상텃밭에서 직접 재배한 알타리무를 이용해 김장김치 담그기를 진행했다.

이날 만들어진 김장김치는 나눔실천가가 직접 마을지역 내 돌봄이웃 10가정에 전달했다.

참가자 한명은 “김장김치를 받은 지역주민이 매우 고마워해서 마음이 뿌듯했다”며 “나눔 행사가 자주 열렸으면 한다. 그때마다 참석하겠다”고 말했다.

복지관측은 “이날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에 어려운 이웃에 대한 따뜻한 나눔문화를 확산할 수 있었다”며 “나눔실천가와 이웃간 소통 기회 마련 역시 의미있었다”고 밝혔다.


본동복지관 나눔활동가들이 직접 재배한 무로 김장김치를 담그고 있다.

나눔실천가는 동작구 내 틈새계층(차상위 · 저소득)을 발굴하여 이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현물지원 및 재능기부, 일상생활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배현진 기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8기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 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4년 12월 22일 까지
◆ 개강일시 : 2014년 12월 22(월요일) 개강. 매주 (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명리학 과정 (임성도 교수)

① 명리학 : 초급, 중급, 고급 (각과정 3개월) 2시 반 ~ 4시
② 성명학 : 초급, 상급(각 3개월) 1시 ~ 2시 반
▶ 개강일시 : 2014년 12월 中 (매주 목) ◀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깨달음 우주에너지에서 답을 찾다

우주에너지를 통해서 무의식의 업장을 빠르게 소멸하고, 정화 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깨달음은 무의식의 정화로부터 시작 됩니다. 모든 무의식의 관념과 에고의 잘못된 노력은 체내에 탁기로 쌓이게 되어 인생 전반의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된 고통과 질병과 관계의 불운을 낳게 됩니다.

모든 무의식은 알아차려 인정 해주고 달래주면 본성으로 회귀하는 것이 섭리인데 억압하고 놓아주지 않아 잘못된 처리 방식으로 인해 계속해서 상처를 받고 쌓이게 되어 내 삶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 하게 됩니다.

이렇게 똑같이 반복돼 자신의 인생에 장애를 주는 것을 불가에서는 업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무의식을 인정해주고 놓아주고 바라봐주고 달래주는 것이, 체내에 탁한 기운들을 정화해주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고 업장을 소멸하는 방법인데 잘못된 방식의 수행 풍습으로 인해 3년 정도면 마칠 수 있는 수행을 몇 십년의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여정의 길을 바로 알고 모든 이를 바른 수행으로 이끌어 주기 위한 것이 삶의 목적이 돼어야 하는 것인데 깨닫기 위해 수 십년의 삶을 허비하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우주에너지를 백회와 송과체로 받아들이게 하여 7개의 차크라를 깨워 오장육부의 경락을 뚫어 마음의 눈 영안이 떠지고 진정한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도록 도와 드립니다.

가슴의 변화를 통해 용기를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원인은 고통체 (과거의 경험정보로 쌓아놓은 업식, 관념, 에고, 카르마) 무의식적인 몸을 지배하는 자동화 물질화된 부정적인 생각, 감정, 의지가 자신을 재생산하는 과정이 카르마 에고, 업식, 질병, 불행의 원인 현재의 인생 입니다. 물질화된 업식을 정화하는 방법과 수행으로는 토납법 - 몸에 근육과 근조직 신경계와 세포속에 무의식으로 자리잡은 물질화된 부정적인 정보을 몸 밖으로 토해내는 과정

몸에 난 구멍으로 탁한 기운들이 (가래, 기침, 눈물, 콧물, 진물, 방귀, 가스, 담음 등으로) 빠져 나오게 된다. 그러면서 몸이 변하고 마음의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환골탈태가 일어나면서 영혼이 깨어나게 됩니다. 가슴의 변화 믿음의 변화 용기의 수행 마음의 중심이 잡힌다 - 깨달음과 인체의 생명 전기장이 바뀐다. 기도수행, 몸 수행, 생각, 감정, 의지의 부정성의 청산 방법

인간의 모든 답은 가슴에 있다, 가슴을 열어 업장소멸은 물론 난치병의 자연치유 인생의 장애와 관계의 개선 인생의 의미와 깨달음까지 체험하는 새로운 수행방법

1 깨달음을 찾는 모든 분, 스님과 불자분들
2 업장소멸과, 카르마 현재의 고통스러운 삶을 벗어나고 싶은 분
3 삶과 죽음을 이해하고 싶은 분
4 집안의 우환과 가정문제로 고통 받는 분
5 자신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분
6 하는 일마다 늘 장애를 받는 분
7 빙의나 우울증, 조울증, 다양한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는 분
8 난치병, 원인을 알 수 없는 신병, 영적인 고통속에서 해매이는 분, 신병, 무속병
9 기도나, 수행을 해도 인생의 고통이 안풀리는 분
10 인간관계에 늘 고통스러운 분, 부모, 자식, 남편, 사업관계 다양한 분야

■ 상담시간 : 월 ~ 금요일 오전 9시 ~ 저녁 6시 까지
■ 상담비용 : 5만원
■ 수행은 상담 후 자신의 근기에 맞게 기운조절
■ 기업체, 산사, 신도회, 신행회 출장강의
■ 강의주제 : 가슴에서 답을 찾다.
■ 유튜브 동영상 강의 – 자각선원
■ 카페 : http://cafe.naver.com/dllbdllb 네이버 자각선원

자각선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원봉로 93 5층 ☎ 043)296-5258 자각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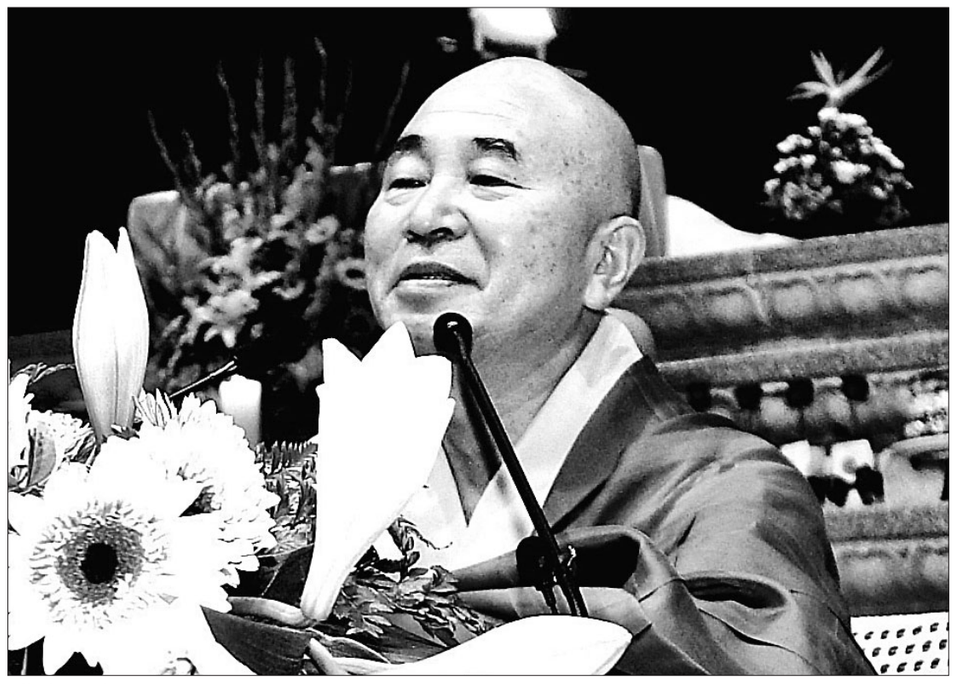
“마하반야바라밀 염송으로 내 운명 주인 되자”

불광사 일요법회

혜담 스님(불광사 선덕)

불광사 선덕 혜담 스님은 우리들의 운명을 내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려면, ‘내 생명은 본래 영원 청정하고 원만구족하다’ 는 것을 아는 운명의 원형을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이 말하는 원형의 형성이란 말(言語)의 중요성을 아는데 있다. 즉 말이 생각을 움직이고 생각은 바로 마음에 깊은 영향을 주고 깊은 마음의 움직임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것이다. 스님은 특히 ‘마하반야바라밀’ 염송의 위력을 강조하며 있는 그대로의 나는 완벽하며, 지금 내가 있는 곳이 그대로 반야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11월 16일 불광사 일요법회에서 혜담 스님이 법문한 내용이다.

정리=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혜담 스님은 … 울산에서 태어난 스님은 고등학교 때 불교학생회에 가입하면서 불교에 입문했다. 1969년 광덕스님을 은사로 범어사에서 출가했다. 동국대 승가학과 1기생으로 입학했다. 지리산 칠불암 해인사 퇴설당 등에서 수행정진하다 군승 10기로 임관했다. 경북 포항의 해병대 1사단에서 군법사로 활동했다. 1986년에는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 나서 반야심경을 연구했다. 1992년 〈대품마하반야바라밀다경〉을 번역해 출간했다. 이후 반야사상을 바탕으로 신행활동을 하는 〈반야불교 신행론〉〈신(新) 반야심경 강의〉〈방거사 어록 강설〉 등을 저술했다. 1994년 개혁 종단에서 해종특위 위원을 지냈으며 호법부장도 역임했다. 현재 조계종 재심호계위원, 각화사 주지, 불광사 선덕(先德)을 맡고 있다.

운명을 이끄는 말의 중요성

우리가 생각을 일으켜 움직이는 가운데 우리 운명의 원형이 형성된다 했습니다. 이 운명의 원형이라는 것은 주물을 부어서 틀을 만드는 개념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쇳덩이를 바로 갖다가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니라, 틀을 만들고 그 속에 쇳물을 부으면 금속제품이 만들어집니다. 이 원형의 틀을 잘 만들어야 모든 제품들이 잘 만들어 지듯, 우리들의 운명을 내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또 항상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그 원형을 잘 만들어야 합니다.

내 생명은 본래 영원 청정하고 원만구족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내 생명의 원형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좋고 훌륭하고 선한 것들로 내 원형을 만들어야 합니다.

마하반야바라밀이 일체 모든 것을 원만히 아는 일체의 마음을 내면적으로 일으킵니다. 외면적으로는 마하반야바라밀이라는 말 자체가 위력을 발휘해서 우리들의 운명을 끌고 나갑니다. 그래서 말이란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은 창조력이 있기 때문에 살면서 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염송하는 마하반야바라밀이라는 말이 생각을 움직이고, 생각은 바로 마음에 깊은 영향을 주고, 깊은 마음의 움직임은 바로 우리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이것은 반야바라밀이라는 말이 지니는 신비한 힘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반야경에서는 반야바라밀이라는 말의 위력을 두 가지 방향에서 설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내면에 작용해 모든 것을 전부 아는 지혜[一切智] 등의 이익을 주는 것이고, 둘째는 외측에 작용해 위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대품반야경〉 권지품 제34에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교시가(제석천)야, 자네는 반드시 반야바라밀을 받아 지니고 독송하며, 남을 위하여 설하고 바르게 사유해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아수라가 욕심을 내어서 삼십삼천과 싸우고자 하면 교시가야, 자네는 이때 반드시 반야바라밀을 송념(誦念)해야 하고, 그러면 모든 아수라의 나쁜 마음이 바로 소멸되고 다시는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교시가야, 만약 모든 천자나 천녀(天女)에게 다섯 가지 죽음의 모양[五死相]이 나타날 때는 반드시 나쁜 곳에 떨어지게 된다. 그때 자네는 반드시 그들 앞에서 반야바라밀을 송독(誦讀)해야 하니, 이 모든 천자나 천녀가 반야바라밀을 들은 공덕에 의해서 다시 제자리에 태어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반야바라밀을 들음에 큰 이익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교시가야, 어떤 선남자 · 선여인이나 혹은 모든 천자나 천녀가 이 반야바라밀경을 들은 것만으로도, 이 공덕에 의해서 언젠가는 반드시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얻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부처님은 도리천을 해치려 하는 아수라의 무리가 왔을 때 그들 앞에서 마하반야바라밀을 염송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쁜 마음이 사라지고 다시는 생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비단 아수라에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억한 심정을 갖고 내게 트집을 잡거나 골탕을 먹이는 그런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하반야바라밀을 염송함으로써 분노와 증오의 마음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하반야바라밀이 모든 분쟁을 없애고 악한 이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없애게 하는 힘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가르쳐지지 않죠. 불교에서는 이를 우이독경(牛耳讀經)이라고 합니다.

뉴스를 봐도 세상 사람들이 참 말을 듣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치인들, 권력 · 재력을 가진 이들은 국민의 말을 듣질 않습니다. 우이독경이죠.

어떤 비구니 스님이 소나 말을 볼때마다 ‘보리심을 발해라’ 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발보리심’ 이라는 말 자체가 이근(耳根)에 남는다는 겁니다.

어느 조사 스님께서 견성 후 전생을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 스님은 무슨 인연으로 견성을 했는지 몇 겁생을 돌이켜 봤습니다. 알고 보니 부처님이 설법을 하던 당시 그 현장 옆에 있던 배추밭에 붙어있던 배추벌레였다는 것입니다. 배추벌레로 있으면서 부처님 법문을 들은 것이고, 그것이 이근에 그쳐 생을 거듭해 견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연화색 비구니’ 라고 경전에 나오는 비구니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여성으로 표현되는 비구니 스님이 있습니다. 그 스님은 만나는 사람마다 출가하라는 말을 했습니다.

제자가 어느 날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왜 연화식 비구니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모두 출가하라고 합니까?”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전생에 기생으로 있던 연화식 비구니는 어느 날 한 스님이 화장실에 가기 위해 벗어놓은 가사를 걸치고 술에 취한 채 춤을 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과보로 지옥에 태어난 연화식은 지옥고를 다 마친 뒤 가사를 걸친 인연으로 출가를 하게 됐고, 아라한이 됐습니다. 연화식은 ‘가사를 걸치고 출가를 했다는 말만으로도 내가 아라한이 되고 견성이 되는 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출가하라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귀 뿌리(이근)에 출가 · 견성이라는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그러한 공덕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 “마하반야바라밀 염송은 번뇌 망상을 없애는 것이 아닌 내 생명은 영원 청정하고 있는 그대로 완벽하며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그대로 반야임을 깨닫는 것”

아수라가 도리천에 침입했을 때 일단 그 앞에서 마하반야바라밀을 염송하라고 한 것도 이 같은 이야기와 상통하는 것입니다.

마하반야바라밀 염송의 위력

두 번째가 역시 권지품 말씀인데, 제석천왕은 천상에 사는 이들에게 죽음의 상이 나타나면 그 앞에서 마하반야바라밀을 염송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다시 죽어서 그 자리에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천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섯 가지의 큰 공덕상이 있습니다. 첫째는 몸에서 광명이 나오고, 머리에 화관의 꽃이 시들지 않고, 몸에서 땀이나 냄새가 나지 않고, 항상 편안하고 기쁘고 몸이 맑고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천상에서 태어나도 죽습니다. 극락세계에 가야 죽지 않는 삶을 삽니다. 불교에서는 천상에 태어나는 것을 즐겨 하지 않습니다. 왕생극락해서 생사를 벗어나는 삶을 살기를 바라죠.

수명이 길다고 하지만 언젠가는 죽습니다. 교리 상으로는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안죽는다고 하지만 태어나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죽는 것이 있습니다.

천상세계에 태어난 사람이 죽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제일 먼저 꽃이 시듭니다. 그리고 몸에서는 땀과 냄새가 나서 파리가 앉게 됩니다. 그리고 옷에 때가 묻습니다.

천상사람들의 생활자체가 즐겁고 기쁘다고 했는데, 그 마음이 없어지면 사는 것이 별로 즐겁지 않게 되고, 기쁘지 않으면 ‘죽을 때가 다 돼 가는구나’ 하고 안다고 합니다. 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즐겁지 않다는 것에 대해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기뻐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즐겁기 위해서 태어났죠. 즐겁고 행복한 것은 의무이지 권리가 아닙니다. 천상 사람들은 항상 행복합니다. 그러나 죽음의 상이 나타나면 죽어야 하죠. 그때 부처님께서는 천상의 사람들에게 “너의 백성 가운데 죽음의 상이 나타나면 그 앞에서 마하반야바라밀을 염송해라. 그러면 그 힘으로 사람이 죽어서 바로 그 자리에 태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천상세계에 태어난다는 말은 화(化)해서 태어나는 겁니다. 다른 물건에 기생하지 않고 스스로 업력에 의하여 갑자기 변화로 태어나는 것이 화생(化生)입니다.

즉 바로 막 죽을 때 마하반야바라밀을 염송하면 바로 화생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반야바라밀이 지니고 있는 위력입니다.

석제환인이 부처님께 사루어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반야바라밀은 크게 밝은 주문[大明呪]이고, 위없이 밝은 주문[無上明呪]이며, 비교할 수 없이 밝은 주문[無等等明呪]입니다. 왜냐하면 세존이시여, 이 반야바라밀은 능히 일체의 좋지 않는 법[不善法]을 없애고, 능히 일체의 훌륭한 법[善法]을 더하기 때문입니다.”

경에서는 반야바라밀의 송념에 의해서 상대방의 악심(惡心)이 소멸되고 다시는 생기지 않으며, 반야바라밀의 송독에 의해서 상대방이 선처(善處)에 태어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반야바라밀을 들음에 큰 이익이 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선남자 · 선여인 혹은 모든 천자나 천녀가 이 반야바라밀경을 들은 것만으로도, 이 공덕에 의해서 언젠가는 반드시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얻게 된다고 설하고 있습니다. 왜 반야바라밀이라는 말에 이러한 신비한 힘이 있는 것일까요. 경에서는 그 이유를 반야바라밀이 주문이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그럼 무엇이 명주(明呪)일까요.

〈대지도론〉권58에는 “보살이 삼매자재를 획득해서 이 자재에 의해 중생의 재환을 없애는 주문에 가피를 입히면, 그러한 주문이 신령스러운 영험, 최고여서 허무하지 않는 영험을 나타내어 모든 재난을 없앤다. 이것이 보살의 주문이다”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번뇌는 본래 없는 것

우리가 보통 수행을 한다고 하면 번뇌를 없애기 위해 한다고 합니다. 참선이든 기도든 어떤 수행을 하면서 온갖 잡념과 번뇌망상들을 없애야겠다는 생각으로 합니다.

하지만 마하반야바라밀 수행은 그게 아닙니다. 번뇌망상을 없애겠다는 차원이 아니라 내 본래의 생명이 마하반야바라밀 생명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번뇌가 본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내 생명은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심에서 생겨났습니다. 내 생명은 영원하고 청정하고 원만구족 한 것이라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49재를 지낼 때 사바세계에서 깨달음의 세계인 피안(彼岸)의 극락정토로 중생들을 건네주는 반야용선(般若龍船)을 만들어 태워 보냈습니다.

사바세계에서 저 언덕을 갈 때 반야용선을 탄다는 의미를 많이 씁니다. 극락세계를 간다고 할 때도, 이 표현을 씁니다. 하지만 반야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반야에서는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저 언덕입니다. 극락세계라는 거죠. 반야바라밀이라는 말 자체를 두 가지로 해석하면 큰 지혜의 완성이고, 큰 지혜로 저 언덕으로 건너간 상태입니다. 저 언덕으로 건너가기 위해 반야바라밀을 염송하는 것이 아니라 반야바라밀이 바로 건너간 상태라는 겁니다.

그 건너간 상태를 내가 염송함으로써 그 자리를 확인하는 것이죠. ‘아 내 생명이 한량없는 공덕생명이구나, 나는 완벽한, 아무런 하자가 없는 그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내 원형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영 혼 의 세 계 (빙 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 광 수 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문화재 환수, 정부차원 법 제도화 필요"

부석사불상봉안위, 11월 19일 국회서 정책토론회 개최

2013년 2월 법원의 부석사 불상 일본반환 금지 가처분 조치 이후 그 기간이 1년 여 남은 가운데 문화재 환수 전문가들이 모여 환수방안을 논의해 눈길을 끈다.

11월 19일 서산부석사금동관세음보살좌상제자리봉안위원회(위원장 주경)가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약탈문화재 환수와 부석사금동관세음보살좌상 환수 가능한가' 정책토론회에서는 다양한 문화재 환수 방안이 대두됐다.

강력한 법제도, 위원회 구성 등 필요

박정현 前 충남도 부지사는 먼저 문화재 환수의 국제활동을 예로 들며 부석사 불상을 비롯한 국내 문화재 환수활동의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했다.

박 전 부지사는 "우리와 같이 문화재 수탈이 많은 중국의 경우 정부에서 '중국문물정보자문센터'를 설치해 조사에 집중하는 한편, '중국해외문물환수전용기금'을 설립해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며 "2014년 문화재반환국제전문가회의를 개최함과 동시에 약탈당한 문화재를 적극 찾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고 소개했다.

박 전 부지사는 이어 이집트와 그리스의 경우를 들며 국내에서의 밀반출을 막는 강력한 법제도도 신설돼야 함을 주장했다. 박 전 부지사가 근거로 든 사례에 따르면 터키의 경우는 1906년 국가유물의 해외반출을 금지하는 '유물관리법'을 제정하기 전에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의 소장을 불법으로 판단하고 환수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집트와 그리스의 경우에도 밀반출 처벌을 강화하는 법개정을 진행했다.

박 전 부지사는 이어 불법반출 문화재 환수, 특히 백제권 역사문화유산을 되찾기 위한 충남도 내의 위원회 구성을 제시했다.

중국 · 이집트 · 그리스 사례 공개
일본 학계 주장 반박 근거 제시
소유권 주체 부석사로 확정 촉구
주경 스님 "서명운동 할 터"

부석사 불상, 일본 왜구 약탈 확실해

이에 앞서 김경임 중원대 석좌교수는 "현재 일본 측이 주장하는 조선 초 숭유억불에 의해 유출된 가능성, 교역에 의한 취득 가능성 등은 근거 없는 소리"라며 "1375부터 6년간 4차례 이상 서산지역에 침략한 왜구에 의해 약탈당해 왜구의 수장인 고노가 세운 관음사로 옮겨져 1951년 관음사 주지 안도 료순에 의해 부석사 불상임이 밝혀지고 그 후 1973년 문화재로 지정됐다. 왜구의 침략과 관음사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정현 부지사


김경임 교수


진성영 박사

김문길 한일문화연구소장도 "대마도에는 그 어느 곳보다 한반도에서 건너간 문화재가 많다"며 "이 중 상당수는 화상(火傷)을 입은 것으로 주로 왜구에 의한 '일방적 청구'로 이는 약탈로 보는 것이 일본 역사학자들의 입장이라는 것이 사료(史料)에서도 드러나고 있다"며 일본 학자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반환 청구 주체 등 세심한 법률 검토

진성영 법학박사는 '약탈 문화재 반환청구에 관한 법적 논의'를 주제발표를 통해 단순히 '약탈문화재 반환'이 아니라 왜구 약탈과 절도범의 범죄 사이에서 반환청구 주체는 누구이며 그 시효는 언제까지 인가 등에 대한 세심한 논의가 전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박사는 "문화재 반환에 관한 국제법에서는 일관되게 원소유국을 제외한 그 어떤 누구도 적법하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서산 부석사 주지 주경 스님은 "현재 일본 관음사와 대화를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며 "시민서명과 법률 자문을 거쳐 보관 장소 변경 신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산부석사금동관세음보살좌상제자리봉안위원회 측은 결의문을 통해 "정부의 조사위 활동은 한일협정 50주년을 맞아 불상을 일본에 반환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게 한다"며 "국제적 규범과 원칙에 따라 본래 자리인 부석사에 봉안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대구 파계사 원통전' 보물 지정 예고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대구 파계사 원통전(大邱 把溪寺 圓通殿)'을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오른쪽 사진〉

파계사는 창건에 관한 기록이 확실치 않으나, 신라 애장왕 5년(804) 심지 왕사(心地 王師)가 창건했다고 전해진다. 파계사는 팔공산 자락에 원통전과 진동루가 남북축을 이루면서 좌우에 건물이 위치한 전형적인 산지 가람 배치를 이루고 있다. 아울러 '대구 파계사 원통전'은 근래 발견된 원통전 상량문 묵서(墨書)에 의해 1606년에 중창(重創)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원통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다포식 맞배지붕 건물로, 정면과 측면의 주간(柱間, 기둥과 기둥 사이의 공간)은 모두 정칸(正間, 정면의 가운데 넓은 칸)을 퇴칸(退間, 평면상 건물 중심부를 둘러싼 둘레 부분)보다 크게 잡아 중앙부의 위계성을 보여주고 있다.

기단은 앞이 낮고 뒤가 높은 지형에 따라, 정면에는 높은 가구식 기단을 쌓고, 좌 · 우측면과 배면은 외벌대로 구성했다. 가구식 기단과 'ㄱ' 자형 귀틀석의 모습과 기법은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과 유사한 것으로, 건물의 창건 당시인 신라 시기까지 올려 볼 수 있는 고식으로 보인다.

불단은 상, 중, 하로 구분되며, 그 위에는 보탁(寶鐸)을 설치하였는데 조각 수법이 화려하면서도 세련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불상이 모셔진 수미단에는 수미산을 상징하는 각종 문양이 뚫새김(투각)되어 있는데, 이들 중 봉황과 학은 국가의 안녕과 왕손들의 장수를 기원하기 위하여 새긴 것이다. 이와 건칠관음보살좌상(보물 제992호)의 내부 복장에서 발견된 발원문, 영조 대왕 도포 등은 파계사가 왕실의 원당임을 알게 한다.

파계사 원통전은 고식의 기단을 비롯한 17~18세기의 건물에서 나타나는 다포식 맞배지붕 건물의 전형적인 특징을 비교적 잘 간직하고 있어 가치가 높다.

노덕현 기자

울진 불영사 '역사와 문화' 학술대회

천축산 불영사의 역사와 문화를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렸다. 울진 불영사(주지 일운)는 11월 8일 1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울진엑스포공원 회의실에서 '울진 천축산 불영사의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진행했다.

개회식 및 각 분야별 주제발표가 1부와 2부로 나누어져 진행된 이날 학술대회에서 주지 일운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불영사의 역사적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고 문화적 역량을 상고해 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동국대 고고미술사학과의 여서 스님은 불영사의 역사와 성보에 대해 고찰했다. 오세덕 동국대 경주박물관 학예사가 불영사의 건축을 주제로 창건기에서 현재까지 사역의 변화를 발표했다. 또한 정명희 국립광주박물관 학예사는 "우학문화재단 소장 감로도가 불영사에서 제작됐다"는 사실을 처음 소개했다.

송은석 동국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는 "극락전 삼세불이 조선후기 활약한 조각승 상륜의 작품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최응천 동국대 미술사학과 교수는 1670년 제작된 불연이 현존하는 불연 중 가장 완벽한 형태로 남아 있는 귀중한 작례로 보물급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노덕현 기자

"사천왕사, 신라 성전사원의 핵심사찰"

윤선태 교수, 한국고대학회 추계학술대회서

윤선태 동국대 교수는 11월 15일 한국고대학회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한 추계학술대회에서 "사천왕사를 비롯한 경주의 사방에 의도적으로 배치된 성전사원들은 왕경과 지방을 연결하는 접점으로 지방인이 왕경을 들어오는 입구, 즉 신라 국토 전체를 압축적으로 상징하는 곳이었다"며 "성전사원에 기초한 신라의 독자적인 국가의례는 신라를 천하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에 따르면 신문왕 때 세워진 사찰들은 밀교요소를 반영해 국가차원에서 조직화돼 건립됐다.

윤 교수는 "특히 사천왕사를 중심으로 세워진 제2기 성전사원체계는 오방신과 사천왕으로 수호되는 신라 불국토 상징을 더욱 시각적으로 부각시켰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양정석 수원대 교수는 이런 부분이 일본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양 교수는 "사천왕사지에는 일반적인 가람배치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유구가 발견되는데 이는 금당의 좌우로 조형된 방형 건축물로 탑의 기단석"이라며 "이러한 쌍탑 가람 배치구조는 일본 본약사사를 비롯해 일본사찰에서도 드러난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이는 신라인들이 추구한 불국토 등 중심사상이 일본에도 전해졌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주경미 부산대 외래교수는 신라 사리장엄구에 삼국유민들의 화쟁의 모습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주 교수에 따르면 2000년 발굴된 감은사지 동탑 사리장엄구를 비롯해 중대 신라사리장엄구에는 정교한 청동주조기법이 사용되는데 이는 7세기 미륵사지 사리장엄구에 활용된 방법이다.

주 교수는 "사리장엄구들은 신라가 동시대 백제문화와 당나라문화, 신불교사상 등을 받아들이며 변화를 추구한 점을 나타낸다. 사리장엄구를 삼국의 유민들이 조화로운 화쟁의 과정을 보여주는 문화 축적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남북 분단, 동아시아 화합의 화엄학적 접근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11월 29일 추계학술대회

화엄사상의 입장에서 남북통일과 동북아 평화에 대한 사상적 근거를 찾는 자리가 마련된다.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공동회장 이진오 · 조수동)는 11월 29일 오전 10시 양산 통도사에서 '화엄 사상과 통합의 시대'를 주제로 2014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통도사와 공동주최하는 학술대회에서는 율사 혜남 스님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한 · 중 · 일 화엄학자들이 나서 현대의 화엄사상 적용에 대해 논한다. 통도사는 신라시대부터 화엄경을 설한 법회인 화엄산림의 전통이 내려오는 곳으로 근현대 들어 1971년 극락암 경봉 스님의 야단법석을 시작으로 43년째 화엄산림법회를 진행하고 있다. 화엄산림법회는 연인원 20만명 이상이 동참하는 한국 최대 대중법회로도 유명하다.

혜남 스님은 기조발제에서 자장 율사가 통도사를 창건한 이후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 온 화엄법회의 역사와 통도사 화엄사상의 배경을 소개한다.

대회에서는 △위도유(魏道儒) 박사(중국사회과학원)의 '화엄학의 태평성대적 기상' △고영섭 동국대 교수의 '분단 시대의 극복을 위한 화엄학적 조망' △이시이 코세이 日고마자와대 교수의 '인간중심주의 근거로서 화엄경' △이찬훈 인제대 교수의 '세계화와 화엄사상' △신규탁 연세대 교수의 '다양한 철학사상을 배경으로 한 중국의 화엄교학 정립'이 발표된다.

논평자로는 각각 김진무 박사, 윤종갑 동아대 교수, 이태승 위덕대 교수, 김영필 대구교대 교수와 임상희 동국대 교수가 나서며 하며 발표 후 종합 토론이 진행된다.

이진오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학회장은 "21세기는 고도로 발달된 과학기술과 산업화로 어느때보다 물질적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지만 인간성 상실과 소외현상, 민족 · 세대간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살림과 화합의 상징인 화엄학을 통해 통합의 사상적 기반을 제공해 불교학과, 한국, 그리고 인류의 미래를 밝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한국명상심리학회 제15차 정기학술대회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회장 인경, 이하 상담학회)는 '호흡 명상의 이론과 실제'를 주제로 제15차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술대회는 11월 30일 오후 2시 성북구 삼선동에 위치한 명상상담평생교육원 교육장에서 명상의 기초이자 핵심인 '호흡'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 논문이 발표될 예정이다.

학술대회에서는 인경 스님이 '호흡 명상의 심리치료적 함의'를, 정준영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교수가 '호흡명상의 실천방법에 대한 재고'를, 이영순 부천 마인드힐링 명상센터장이 '호흡명상에 기초한 명상상담사례연구' 등을 주제로 발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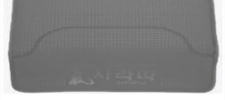
한편 인경 스님이 이끄는 명상상담연구원은 지난 8월 '명상상담평생교육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성북구 삼선동으로 이전했다. 명상상담평생교육원은 "내년부터 초기불교, 유식학, 상담학 심리학 등 명상심리상담과 연관된 강의를 온 · 오프라인으로 개설해 교육할 예정"이라며 "상담 · 심리치료사를 양성할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02)2236-5306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수행도우미
미국 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쏙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병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때 꼭 필요해요


자나깨나
중단전 챠크라 열리고
목, 뒷골, 어깨 확 풀림
스트레스 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氣감 체험


氣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호락호락 팬티
배, 엉덩이, 골반, 허리
차가움 냉병 즉시 해소
노폐물, 독소 배출 왕~


보디스킨
발목,장단지,허벅지,엉덩이,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세계최고! 다보명차, 슈퍼유산균 효소, 호두기름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 힐링치유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前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범패를 활용한 소리명상 힐링 치유는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영산재 보존도량 봉원사 경내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00~9:00
■ 수강대상 : (1)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을 통한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모든 분
(2)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영산재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 (소장 : 처명)

추위를 녹이는 따뜻한 자비행 잇달아

호남지역 불교계, 만발공양 · 김장 나눔 등 진행

추운 겨울을 맞아 독거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자비나눔 실천이 호남지역에서 진행됐다.

광주 대해노인복지센터(센터장 무진, 법림사 주지)는 11월 15일 광주남초등학교 강당에서 지역 관내 소태동, 학동, 학운동, 남구 방림동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들을 초청해 '자비나눔 만발공양'을 진행했다. 올해 6회째 실시하는 이번 행사는 지역 어르신 5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1부 마가 스님과 함께하는 자비명상, 2부 짜장밥과 다과 공양 등이 진행됐다.

이어진 3부 공연에서는 지역서 활동하는 불자봉사단이 참여해 흥겨운 가락과 춤사위, 노래를 선사해 참석한 어르신들에게 흥겨운 시간을 제공했다.

행사를 주최한 무진 스님은 "해마다 지역 어른들에게 공경의 의미를 담아 공양을 대접하고 있다"며 "많은 자원봉사자와 이웃들이 마련한 따뜻한 마음의 선물을 갖고 올 겨울에도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마가 스님, 금강 스님이 참여해 달라이라마 초청을 위한 서명운동과 홍보활동도 진행했다.

이와 함께 광주의 대표적 불교단체인 자비신행회(이사장 이화영)도 11월 19일 한화금융네트워크와 공동으로 김장 담그기 행사를 벌였다. 이날 행사는 한화금융네트

대해노인센터, 6회 만발공양
자비신행회, 김장 120상자 전달

워크의 1000만원 지원금으로 80여 자원봉사자가 참여해 절인배추 20kg 120상자 분을 양념에 버무려 김치담그기를 진행했다.

이날 담근 김치 400박스는 11월 20일 동구청, 조선대노인복지센터, 광주여성의전화, 대광여성청소년의집에 전달됐다.

김상옥 이사는 인사말에서 "엄선된 재료에 따뜻한 정까지 담아 전달되는 김치가 추운 겨울을 나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필요한 생활 양식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광주 대해노인복지센터는 11월 15일 광주남초등학교 강당에서 독거어르신들을 초청해 '자비나눔 만발공양'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전북지역에서는 4대 종단과 함께하는 김장나눔행사가 김제시 자원봉사센터서 열렸다. 김제지역의 불교,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자원봉사자들은 11월 20일 자원봉사센터 광장서 '4대종단과 함께하는 김장나눔사업'을 펼쳤다.

이날 김장나눔행사에는 금산사 대형스님, 천주교 주자옥 사목회장, 최재식 목사, 소종현 교무 등 김제지역 4대종교 관계자들과 자원봉사자 100여 명이 동참했다.

4대종단 자원봉사자들은 2천여 포기 김장김치를 지역내 독거노인과 장애인, 무료급식소 등 400여곳에 전달했다.

김제시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는 "많은 양은 아니지만 각 종단의 따뜻한 마음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해져 포근한 겨울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조동제 전북지사장

부안 개암사, 관음전 후불탱화 점안법회

부안 개암사(주지 재안)는 11월 16일 응진전 석가모니불과 관음전 후불탱화 점안법회를 봉행했다.〈오른쪽 사진〉

선운사 불학승가대학원장 재안 스님을 증명법사로 전통의례에 따라 점안의식과 축원, 육법공양 순으로 열린 이날 법회는 선운사 학인스님들과 불자 2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됐다.

재연 스님은 축사를 통해 "법회에 동참한 불자들은 부처님 모습뿐만 아니라 가르침과 뜻도 마음에 담아가기 바란다"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신 것처럼 부처님처럼 살아가는 불자가 되자"고 당부했다.

재안 스님은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불사가 원만하게 회향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 며 불사에 동참한 많은 불자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어 스님은 "예전에 매우 번창했던 개암사의 위상을 되살리고 불자들의 수행 정진을 위해 신심나는 도량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점안법회를 봉행한 개암사 응진전은 조선숙종 3년(1667년) 조성된 16나한이 봉안되어 있으며 2000년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179호로 지정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김영택 화백전… 무각사 갤러리서

11월 25일부터 12월 말까지 펜화작품 선보여

무각사 로터스 갤러리가 펜화작가로 알려진 김영택 화백 초청 전시회를 개최한다.

11월 25일부터 12월말까 광주 상무지구 무각사에 위치한 로터스 갤러리는 '펜화에 담은 송광사' 라는 주제로 송광사의 여러 전각과 아름다운 모습을 담은 30여 점을 전시한다.

김영택 화백은 세계적인 펜화의 대가로 이번 전시회는 수십만 번의 펜 선으로 이루어 낸 송광사 법당들의 아름다운 모습은 가히 선(線)으로 표현한 선(禪)의 세계를 펼쳐보인다.

아울러 국내외 여러 사찰과 사원 모습을 담은 작품도 함께 전시된다.

김영택 화백은 전시회에 앞서 작가노트를 통해 "세계적으로 쇠퇴한 펜화의 장르를 되살리는 역할을 하고 싶다. 아직 미흡한 상태지만 '김영택 류' 라는 이름에 걸맞는 작품들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김 화백은 홍익대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전 심사위원, 세종대 겸임교수로 재임했다. 2002~8년 중앙일보 '김영택의 펜화기행', 2004~5년 주간조선 '김영택의 펜화로 본 한국', 2009~12년 중앙일보 '김영택의 펜화로 본 세계건축문화재' 를 연재했다.


김영택 作, 송광사 청량각

현재 국가브랜드위원회에서 선정된 한국의 대표작가로 인천공항 입국장에 그의 작품이 6점 상설 전시되고 있으며, 현 한국 펜화가협회 초대회장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녹야선원 개원법회… 지역민 포교에 앞장


녹야선원 주지 아도 스님이 깨달음의 상징인 죽비를 봉헌하고 있다.

광주 녹야선원(주지 아도)은 11월 15일 광산구 월계동에 개원법회를 갖고 새로운 포교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법회에는 연광스님(광주불교연합회 회장), 보응스님(세심정사 주지), 혜공스님(성거사 주지)을 비롯해 300여명의 신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아미타여래 점안식이 봉행됐다.

아도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전할 수 있는 좋은 도량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개원한 녹야선원은 전체 150평 규모에 법당과 다실, 공양실이 들어서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전주 금선암 '붓다로 살자' 실천도량 선포



도법 스님은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이 직접 쓴 '붓다로 살자' 휘호를 신도회에 전달했다.

열린 생활불교를 실천하는 전주 금선암(주지 덕산, 자성과 쇄신 총괄부장)이 '붓다로 살자' 실천도량을 선포했다.

금선암은 11월 15일 극락보전에서 조계종 결사추진본부장 도법스님 초청법회를 봉행하고 '붓다로 살자' 실천도량 선언 법회를 봉행했다. 도법 스님은 법문을 통해 "금선암 사부대중이 붓다로 살기위해 일으킨 마음을 꾸준히 실천하고 확대해 나가달라"고 당부했다.

덕산 스님은 "15년전 미륵향도를 발족하며 제정한 실천강령을 기본으로 구체적인 실천강령을 제정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빛고을나눔나무 2015 불교단체 지원사업 진행

광주지역 불교공동모금회인 빛고을나눔나무(이사장 연광)가 2015년도 불교단체 공모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공모사업은 광주지역을 대상으로 전체 금액 5000만원을 마련하고, 상반기 봉축행사 공모와 고유목적사업 공모 2가지로 구분해 진행한다.

공모사업 지원신청 자격은 광주지역의 불교신행단체로 불교NGO 및 사회단체, 직능단체(직업별 모임), 학생단체, 사찰 등에서 지원가능하다.

봉축행사 공모는 2015년도 상반기에 열리는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지원하고, 고유목적사업 공모는 각 단체별 목적사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제출하면 된다.

문영배 기획팀장은 "이번 공모의 기본은 광주지역 불교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으로 각 단체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봉축행사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모다"라고 밝혔다.

사업 신청은 12월 말까지 소정 양식을 통해 신청 가능하고 1차 서류심사와 2차 설명회 및 1월 중 심사를 거쳐 개별 통보된다.

빛고을 나눔나무는 광주지역 불교활성화를 위해 지난 11월 3일 창립된 불교단체를 지원하는 단체이다. 정기적 공모사업 외에 불교계 공동모금사업과 지원사업 등을 진행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화순 쌍봉사 '농 · 특산물 직거래 장터' 인기

화순 쌍봉사(주지 시공)가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 돕기에 나섰다. 쌍봉사는 11월 14일, 16일, 18일 등 3일간 경내에서 청정골 이양 '자연속 愛' 농 · 특산물 직거래장터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윤달 성지 순례에 나선 불자들에게 지역 농 · 특산물을 홍보 · 판매하기 위해 마련됐다.

판매 품목은 블루베리, 대추토마토, 간장, 된장, 청국장, 녹차, 도라지, 서리태 등 14종으로 생산농가 6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양면사무소 직원들이 근무조를 편성, 바쁜 농가를 대신해 판매를 실시했다.

부산 영도구에서 방문한 한 불자는 "생산지에서 신선하고 질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장터가 있어 좋았다"며 "앞으로도 택배 등을 통해 구매하겠다"고 말했다. 안병택 이양면장은 "앞으로도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주는 다양한 직거래 장터를 운영해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CD

위없는 법열(法悅)
환희심 가득 찬 향기로운 연꽃으로 거듭 피어나길
맑은 향 사르오며 두 손 모읍니다.

詩人 김하리 합장

현불샵 리뉴얼 기념 할인 행사
가격 ~~10만원~~ ⇨ 9만원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 CD

CD01-제1. 서품(39:25)
CD02-제2. 방편품(46:51)
CD03-제3. 비유품(54:48)
CD04-제4. 신해품(30:24)
제5. 약초유품(16:08)
제6. 수기품(17:13)
CD05-제7. 화성유품(51:41)
제8. 오색제자수기품(21:11)
CD06-제9. 수학무학인기품(11:22)
제10. 법사품(18:39)
제11. 견보탑품(22:19)
제12. 제바달다품(15:54)
CD07-제13. 권지품(10:07)
제14. 안락행품(27:27)
제15. 종지용출품(21:13)
CD08-제16. 여래수량품(21:15)
제17. 분별공덕품(23:31)
제18. 수희공덕품(13:23)
CD09-제19. 법사공덕품(24:17)
제20. 상불경보살품(13:15)
제21. 여래신력품(08:59)
제22. 촉루품(04:36)
제23. 약왕보살본사품(23:10)
CD10-제24. 묘음보살품(16:12)
제25. 관세음보살보문품(19:26)
제26. 다라니품(10:07)
제27. 묘장엄왕본사품(14:46)
제28. 보현보살권발품(14:07)

구입문의
02)2004-8216
현대불교 현불샵

지역 청소년 꿈 지키며 문화복지 선도

창립 16주년 맞은 한가람청소년문화재단

창원지역 청소년 육성사업의 선구자 한가람청소년문화재단(이사장 원정)의 설립 16주년 기념식이 11월 20일 창원 성주사에서 열렸다.

한가람청소년문화재단은 청소년 포교의 황무지와 같았던 경남에 16년 전 처음으로 지역사회 청소년들을 위해 설립된 곳. 창원 성주사 주지였던 원정 스님의 청소년 포교 발원으로 시작해 현재 봉림평생교육센터, 진해 청소년수련원, 마야청소년쉼터 등 청소년 기관 9개를 위탁 운영하는 등 지역 내 청소년 복지전문기관으로서 탄탄한 입지를 굳혔다.

특히 방과 후 아카데미 해뜨는 교실과 봉림청소년문화의집은 각각 여성가족부로부터 운영 평가 최우수 ·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장관상을 받기도 했을 정도로 운영능력을 증명해내고 있다. 2012년부터는 창원시니어클럽과 창원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면서 노인복지 활동까지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재단이사장 원정 스님은 기념식에서 "한가람청소년문화재단은 청소년들의 꿈을 찾아주고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 설립됐지만 지금은 어린이, 청소년, 노인에 이르기까지 함께 소통하며 공존하는 곳으로 거듭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가람청소년문화재단이 지역사회에서 펼쳐온 행보는 열정적일 정도다.

재단은 창원시와 연계해 지역민들을 위한 복지 사업을 펼칠 뿐 아니라 봉축일 맞이 반야심경 청소년 어울림 한마당, 어린이 보리수 캠프, 성주사 보리수 학교 등을 선보이며 포교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청소년들의 봉사모임을 조직, 마을 벽화그리기 등 지역 나눔 실천을 독려하면서 공동체 의식 함양을 키우는데도 앞장선다.

지난해부터는 창원 지역 청소년들의 문화공간인 진해청소년전당을 위탁받아 운영하며 청소년 사업 인프라를 확고히 다져나가고 있다.


한가람청소년문화재단의 16주년 기념식이 11월 20일 창원 성주사에서 열렸다.

경남 최초 청소년 문화 재단
9개 복지 기관 위탁 운영도
시니어 지원 활동도 적극 나서

이처럼 한가람문화재단은 청소년 육성사업에 일찍부터 뛰어들어 창원지역내에서 활발한 사업을 벌이며 청소년 문화복지의 선도 역할을 담당해 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활동 덕분에 자칫 수도권에 비해 뒤처질 수 있는 지방 청소년 문화 교육 프로그램 질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 청소년들이 신체단련, 자기개발, 봉사활동 등을 통해 자신의 성장을 이뤄내고 더불어 지역사회까지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프로그램을 선도적으로 도입한 것이 그 예다.

정철영 창원시 복지문화여성국장 역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청소년 단체를 이끌어주신데 대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더 큰 인재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재단발전을 기원했다.

이날 열린 기념식에서는 재단 산하 우수기관 및 우수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상식도 개최됐다. 한가람 우수 기관상은 밀양시 청소년 수련관이, 한가람 우수 직원상은 방과후 아카데미 '해뜨는 교실'의 전양미 선생님과 창원노인 일자리창출지원센터 김영묵 과장에게 수여됐다. 이어 한가람 청소년상은 반림중 3학년인 이은총 학생, 한가람 시니어상은 창원시니어클럽 김진수 어르신이 받았다.

하성미 기자

故황수영 박사 공덕 추모비 제막

11월 5일 경주 문무왕릉 이견대 부근서 봉행


故 황수영 박사 추모비 제막식이 경주시 감포읍 문무왕릉 근처에서 열렸다.

故황수영(1918~2011) 박사의 공덕 추모비 제막식이 11월 15 경북 경주시 감포읍 대본리, 경주 문무대왕릉이 내다보이는 언덕 위에서 열렸다. 추모비는 황수영 박사의 스승인 우현(又玄) 고유섭 추모비 바로 옆에 자리 잡았으며, 내년 3월에는 진홍섭의 추모비도 세울 계획이다.

이날 제막식에는 불국사 회주 성타 스님, 불국사 주지 종상 스님, 나선화 문화재청장, 최양식 경주시장, 윤장섭 성보문화재단 이사장, 김동현 前 국립문화재연구소장, 이호관 前 국립전주박물관장, 박상국 한국문화유산연구원장 등 문화재계 인사 120여명이 모였다. 오니시 슈야(大西修也) 일본 규슈대 명예교수 등 일본 제자들도 참석했다.

추모비는 황수영 박사의 제자인 정영호 한국 교원대 명예교수와 그 후학들이 추모비건립위원회 공동위원장 불국사 회주 성타 스님과 불국사 주지 종상 스님, 장수 죽림정사 회주 도문 스님, 한국문화사사학회, 동국대 등과 함께 뜻을 모아 건립했다.

나선화 문화재청장은 "추모비가 문무대왕 수중릉을 바라보는 곳에 세워진 일이 뜻 깊다"고 말했다.

추모비 제작 공동대표인 정영호 교수는 "초우 황수영 박사의 유적 사랑과 애정은 후학들의 모범이 되었다"며 비문을 읽어내려갔다.

불국사 전 주지 성타 스님은 축사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고고학 발전에 크게 기여하신 분이 황수영 박사다. 추모비 제막은 문화와 유적을 사랑한 분을 기리는 교육현장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말했다.

황수영 박사(1918~2011)는 개성에서 태어나 일본 도쿄(東京)대 경제학부를 졸업했다. 개성 박물관장으로 일하며 故 진홍섭 박사, 故 최순우 전 국립박물관장과 함께 한국 미술사학계의 초석을 놓은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평가된다.

또한 동국대 교수 및 동국대 총장을 지내며 많은 제자를 길러냈고 불교미술의 탑 · 불상 · 공예 등 광범위한 연구를 펼쳤다.

하성미 기자

"차 명상 통해 환경적응력 높여"

(사)한국 차 명상협회 제5회 학술세미나 개최

한국차명상협회(이사장 원허)는 11월 17일 통도사 설법전에서 '차 명상의 현대적 활용과 실제'라는 제목으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사부대중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차명상협회 이사장 원허 스님, 경성대 김경일 교수, 초의차명상 원장 지장 스님, 뫔행복차담명상원장 선업 스님 등이 참여했다.

원허 스님은 '행다선(行茶禪)에 대한 첨언'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손님과 주인이 있는 행다법에서 역할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두 주체는 상호 작용을 한다. 그러므로 이 둘은 거울과 같이 서로를 비추는 무분별한 두 주체라는 것을 바르게 알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허 스님은 무분별의 마음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알아차림, 행다 과정을 무상함으로 관찰하기' '손님과 관계성 사유를 통해 분별망상을 일으키지 않는 자세' 등을 강조했다.

이어 '불교상담의 기초'에 대해 발표한 김경일 교수는 "심리적 문제의 발생 원인을 불교적으로 고찰했을 때 유아(有我)론적 인식에서 집착과 자기애가 출발한다"며 "불교의 무아(無我)이론은 욕망과 고통을 사라지게 하는 근본적인 치료방법"이라 주장했다.

'자각을 통한 변화의 원리'란 제목으로 발표한 지장 스님은 긍정의 힘과 그 자각 방법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지장 스님은 "긍정적으로 자신을 자각하며 이미지화하고 구체적 실천 내용을 상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선업 스님은 '차담명상 치유의 실제'에 대해 설명하며 "차담명상의 목적은 인간의 신체 · 정서적 힘을 본인의 목적 · 소망과 조화시켜 환경에 적응시키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하성미 기자

문경 백봉사 9층석탑 및 사천왕 점안식

(사)한국불교조계종 총본산 총무원(총무원장 대봉) 문경 백봉사와 (사)한국불교조계종협의회가 공동주최하는 '백봉사 경내 9층석탑 및 사천왕 점안법회와 나라안정 평화기원 대법회'가 열렸다. 11월 15일 열린 이 법회에는 한국불교조계종협의회 소속 종단의 종정 및 총무원장과 한국불교조계종 각 사찰 주지, 지역기관, 단체장 및 사부대중 300여명이 동참해 봉행했다.


문경 백봉사 9층석탑 점안식

백봉사 창건주 대봉 스님은 "무명을 제거하여 지혜의 등불을 밝혀가자"고 법문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부산 대불청 '구법 순례의 길' 회향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회장 박경수, 이하 부산대불청)는 '선우들과 함께하는 53사찰 청년 구법순례'를 11월 15일 범어사 설법전에서 회향했다. 부산대불청은 2012년 9월15일 범어사를 시작으로 부산에 있는 총 53개의 사찰을 순례하며 2년 3개월 간 매달 1, 3주 토요일에 법회를 열어왔다.

회향법회에는 법회, 참선 및 범어사 홍선 스님의 법문이 이어졌으며 부산 대불청 회원 50여명이 모인 가운데 마무리됐다.

박경수 회장은 "처음과 달리 여법한 모습으로 성장한 청년들을 보게 된다"며 "앞으로도 더 자주 모여 공부하고 정진하자"고 소회를 밝혔다.

하성미 기자

통도사 국제 템플스테이관 상량식

2015년 12월 공사 마무리

양산 통도사(주지 원산)가 11월 19일 국제 템플스테이관 상량식을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통도사 방장 원명 지종 스님과 주지 원산 도명 스님, 총무국장 동진 스님 및 금부종합건설 황인관 사장, 한신 황민하 사장 등 사부대중 50여명이 참석, 원만한 불사 건립을 발원했다.

올해 5월 착공한 국제 템플스테이관은 사업면적 842.60㎡에 건축면적 650.72㎡으로 재가선원 2층으로 이루어진 건물 1채와 기계실 1채, 요사채 3동이 들어서게 된다. 내년 12월 중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그동안 통도사 템플스테이관은 설법전 아래 지하에 위치해 있었다. 템플스테이 참여인원에 비해 협소한 공간 탓에 체험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어려웠고 숙소 역시 부족했다. 통도사는 사찰을 찾는 외국인이 늘고 있다는 점을 고려, 이들을 위한 국제 포교 활동 및 불교 문화재 · 전통 홍보를 목적으로 템플스테이 불사를 결정하게 됐다.

향후 템플스테이관은 양산시 지역민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통도사는 이를 위해 양산시 유관기관과 연계해 프로그램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승려노후복지를 위한 시탑전(侍塔殿) 역시 불사중이다. 시탑전은 노스님들의 주석처로 현재 가동과 나동, 두동을 나뉘어 건설 중이며 스님들의 수행과 거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됐다.


통도사 템플스테이관 상량식 장면

영축전통문화관 보광선원을 짓기 위한 토목 공사도 진행 중이다. 선방 1채, 요사채 3동, 다락실, 세면실 등 총 9채의 대규모 공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사는 이뿐만이 아니다. 통도사는 지난 7월 요양병원 기공식을 진행한 바 있다. 법당, 진료실, 재활 · 물리치료실, 중환자실을 비롯해 200개의 병상을 갖출 예정이다. 모든 중창 불사는 201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성미 기자

부산 생명나눔 환우 돕기 콘서트 개최

(사)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원범)은 12월 3일 오후 2시 '제9회 100원 희망 불씨 콘서트'를 부산 동구청 1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대상은 환우와 가족, 부산 시민, 자원봉사 관련 유관 단체 및 기업 봉사 단체이며 참가비는 무료다.

'2014 생명나눔의 날'을 기념하며 개최하는 '100원 희망불씨 콘서트'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환우들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들과 일반 참가자에게 '100원 희망저금통'을 배포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시작한 행사다.

행사 1부 '간절한 기도'에서는 환우들의 사연 소개와 장기기증자들의 뜻을 기리는 시간이, 2부 '희망의 노래' 콘서트에서는 바이올린 연주가 유진박의 힐링 콘서트 및 BTN 남성중창단의 공연이 마련된다. (051)853-0429

하성미 기자

세계불교 종단 연합회(WBOA)
Association of wold Buddistion

세계불교 종단 연합회는 원효 성사의 통불교 사상을 중심으로 불교국가간 미래 사회의 불교 정립을 위한 새로운 방향 설정과 불교 교리를 통한 인류 구원의 새 장을 열어가는 국제불교 신행 단체입니다.
인류 공영의 자비와 평등을 실천하고 글로벌 시대의 수평화된 정보화 사회의 새로운 불교 마당으로 삶의 도덕적 가치를 재 창조해가는 국제 모임입니다.
WBOA에 여러 고승 대덕의 많은 성원과 참여을 바랍니다.

모십니다
불교문화창달과 한국불교의 세계화에 앞장서 제방에서 수도에 정진하시는 고승 대덕들께
제 4회 WBOA 송년법회에 자리를 마련 하였습니다.
(※ 국내에 수학중인 외국 승려는 자리관계로 사전 연락 바랍니다)
◆ 일시 : 2014년 12월 12일(금) 오전 11시
◆ 장소 : 대전 중구 선화동 230-6 대림관광 호텔2층 한식부
042) 2211-6969 / 042) 256-1567

WBOA 총 재 영공 도성
WBOA 총회장 홍산 현블

since1973

2015년 동진 불교달력 특별가격

한국제지(주) 아트지 · 스노우지로 제작 !! 좋은 종이 가장 싼 제조원가 가격으로!!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철마삼동로54 (송정리 364-2)
TEL.(051)515-8888 인터넷전화. 070-7425-0518 FAX.(051)508-0101 H.P 011-554-2988
◆농협 : 0515-8888-09 ◆국민은행 : 9011-554-2988 [예금주 : 강태규]



12절 /6절

• 12절(벽걸이형 小)달력

삼천부 이상 @ 800 원
이천부 이상 @ 900 원
• 200부이상 @1,000원
• 규격 : 25.8㎝ × 26.5㎝

• 6절(벽걸이형 大)달력

삼천부 이상 @ 1000 원
이천부 이상 @ 1100 원
• 200부이상 @1,200원
• 규격 : 30.5㎝ ×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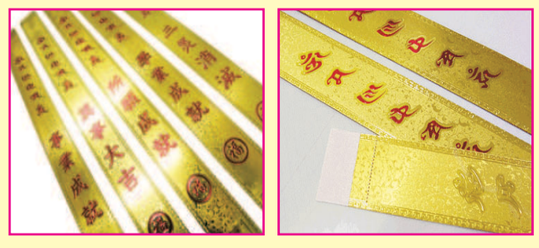


금띠지 등표

• 정 가 1,000원
• 200매 이상 @700원
• 규격 : 3.5㎝ × 70㎝

만사대길 · 소원성취 · 학업성취
사업성취 · 삼재소멸 中 택 1

상단 뒷편에 양면테잎으로 되어 있어 원하는 곳 어디든 쉽게 부착가능하며 하단부분은 생, 이름을 적을 수 있습니다.



• 수첩달력 200부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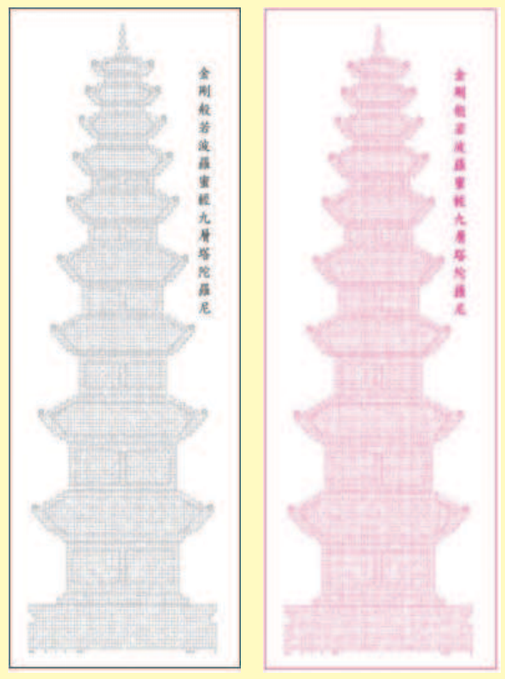
• 100부 @800원 • 매수:18장 @ 650 원
• 규격 : 9.5㎝ × 13.4㎝

• 미니달력 200부 이상

• 100부 @600원 • 매수:16장 @ 450 원
• 규격 : 8.9㎝ × 9.5㎝

금강경탑다라니 사경지(대형)

할인가 4,000원(50장이상) 정가 5,000원
• 68cm × 195cm (먹색, 적색)
• 전통재래한지



찬덕연등의 노하우를 보유한 연등시공 전문회사 BORYEON 보련기획

자동 연등 승강 장치



인 등 시 공



만 월 등

사찰명 인쇄 주문 접수 받습니다.



공 단 등

황 금 등



연 꽃 등



정품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1년 하루 6시간 전기요금 : 98원/1kwh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2015년 달력



접수 받습니다

· 규격 : 15호 국6절 13매 (305×308㎜)
29호 12절 13매 (257×263㎜)

보련기획 H·P 010-9446-1862 전화 031)526-2201 / 031)526-220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189번길 27

마하연 투어

마하연투어 강력 추천상품



★ 불탑의 나라 – 미얀마 ★

▶ 만달레이 / 바간 / 헤호 / 양곤 12/16일 출발 179만원
특급호텔 사용 – 모든경비 포함

▶ 만달레이 / 바간/양곤 5일 99만원
▶ 만달레이 / 양곤 5일 89만원



– 국적기 직항 KOREAN AIR ASIANA AIRLINES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6일 요금문의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 짜익티오 7일 요금문의



–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인도

▶ 인도 & 네팔 8대성지 11일 요금문의
▶ 인도 & 네팔 7대성지 11일 요금문의
뉴델리 – 바라나시 – 사르나트 – 보드가야 – 나란다 – 라즈기르 –
바이샬리 – 쿠쉬나가르 – 룸비니 – 스라바스티 – 럭나우 – 상카시아 – 아그라



– 세계문화유산 스리랑카

▶ 전통불교 완전일주 8일 요금문의
갈레 – 누와라엘리아 – 담블라 – 벤토타 – 시기리야 –
아누라다푸라 – 캔디 – 콜롬보 – 뉴델리 – 폴론나루와

– 꽃보다 청춘~ 라오스

▶ 비엔티엔 / 방비엔 / 루앙프라방 5일 요금문의

미얀마 위빠사나 수행 – 상담문의(수속대행)

중국 4대불산

▶ 구화산&보타산 (지장도량&관음도량) 6일 요금문의
▶ 보현도량 (아미산) 5일 요금문의
▶ 문수도량 6일 요금문의
▶ 대만 정통순례 5일 요금문의

태국 방콕 / 파타야 5일 요금문의
캄보디아 / 씨엠립 5일 요금문의
라오스 성지순례 5일 요금문의
북유럽(노르웨이–덴마크–핀란드–스웨덴) 9일 요금문의
동유럽 3개국 9일 요금문의
서유럽 4개국 8일 요금문의
미서부 7일 요금문의
하와이 5일 요금문의

www.mahayeon.com
(주)마하연 투어 ☎ 02)365-7747
대덕 큰스님, 불자님들의 인연 소중이 생각하겠습니다. 대표 : 혜거 두손모음

마하연투어 공통사항
① 모든경비 포함 ② 모든 상품 품격 진행
③ 타여행사 비교 필수 ④ 2억원 여행자 보험 가입

다라니 봉안… 9만9천 보배탑 조성 공덕

탑의 진화

㉓ 일본의 불탑(3)

지난 호에는 일본의 보협인탑, 오륜탑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번 호에는 상륜당(相輪幢)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6) 상륜당(相輪幢)

'상륜당' 이란 불탑의 상륜부만을 따로 독립시켜 그 안에 법신사리로 경전 등을 봉안한 것으로 '상륜탑' 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불탑은 다른 나라에서는 그 예를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일본 특유의 불탑형식이다.

이처럼 독특한 형식의 불탑이 조성된 도상적 근거는〈무구정광대다리니경〉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부처님의 유골인 사리를 봉안하는 방법에는 인도와 동남아시아, 중국은 물론 모든 나라마다 원칙이 있다. 이 원칙에는 진신사리 뿐만 아니라 법신사리를 봉안 할 경우에도 적용되었다. 법신사리에는 다양한 경전이 신앙의 대상으로 승격되어 탑 안에 봉안되었다. 그 중에 상륜당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전은〈무구정광대다리니경〉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불국사 석가탑 등에서 이 경이 발견되어 세간의 주목을 끌고 있다.

〈무구정광대다리니경〉은 서역(西域) 도화라국(覩貨羅國)의 미타산(彌陀山)에 의하여 704년에 번역된 경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처님 재세시에 '겁비라전다(劫比羅戰茶)' 라고 하는 한 바라문(婆羅門)이 살고 있었다. 그는 불법을 믿지 않고 외도를 신봉하는 자였다. 어느 날 외도의 지도자가 '겁비라전다' 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7일 후에 죽게 됩니다." 라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에 실의에 빠지게 되었다.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부처님을 찾아와 살려달라고 애원을 한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당신은 반드시 7일 후에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라고 말하고 그에게 '윤회' 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그러나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비라전다' 는 어떠한 일이던 시키는 데로 다 하겠으니, 오래도록 더 살게 해달라고 부처님께 울부짖으며 간절히 애원을 하였다. 이에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가비라성(迦毘羅城)' 의 삼거리에 과거불의 사리(舍利)가 있는 오래된 불탑을 수리하고 탑 위에는 상륜당을 만들고, 그 속에 다라니를 써서 봉안한 후에 지극정성을 다하여 성대한 공양을 베풀며, 불법에 의지하여 다라니를 일곱 번 외우라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하면 수명이 늘어나 오래도록 장수할 수 있으며, 또한 사후에는 극락세계에 왕생하여 영원히 복락을 누릴 것이라고 설 하신다. 더불어 오래된 탑을 수리하거나 진흙으로 작은 탑을 만들고 다라니를 써서 탑 안에 봉안하면, 만병이 치료되고, 누구나 장수 할 수 있으며, 나아가 삼악도의 업보까지도 면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

이에 '제개장보살(除蓋障菩薩)' 이 다라니법의 내용에 대하여 부처님께 질문 드리자 부처님께서는 6종류의 다라니 즉, 근본다라니(根本陀羅尼), 상륜당다라니(相輪幢陀羅尼), 수조불탑다라니(修造佛塔陀羅尼), 자심인다라니(自心印陀羅尼), 공덕취다라니(功德聚陀羅尼) 및 육바라밀다라니(六波羅蜜陀羅尼)에 대하여 자세히 설하시게 된다.

그 중에 '상륜당다라니법' 에 대한 자세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주문을 외우고 이 다라니를 99번 써서 상륜당속에 비밀스럽게 넣어 두어야한다. 그렇게 하면 9만 9천 개의 상륜당을 세우는 공덕이 되고 9만 9천의 불사리를 모시는 것이 되며, 9만 9천의 불탑을 조성하는 것이 된다고 하시며, 만일 진흙으로 작은 탑을 만들고 그 안에 이 다라니를 봉안하면 이것이 9만 9천의 '보배탑' 을 만드는 것과 같다고 설명한다. (〈대정신수대장경〉 19권 717쪽 참조)

이처럼〈무구정광대다리니경〉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극복' 하게 함은 물론, 중생들의 병과 재앙을 없애주어 수명을 장수하게 하고, 악업을 소멸시켜 주며, 모든 소원을 성취시켜 주면서, 죽어서는 극락왕생을 보장하여 주는 대단한 영험이 있는 현세이익적인 경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때문에 중국과 우리나라에 이어 일본에서도 이러한 6종의 다라니를 인쇄하거나 직접 필사하여 탑 안에 봉안하게 되는 것이며, 특히 일본에서는 탑의 상륜부만을 별도로 조성하여 그 안에 '상륜당다라니' 를 봉안하는 '상륜당' 신앙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현존하는 상륜당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최징(最澄)이 연력사(延曆寺)〈사진1〉에 조성한 것이다. 신라인의 후손으로 알려진 최징은 시호가 전교대사(傳敎大師)로 13세 나이에 출가하여 중국 당(唐)나라에 유학을 갔다가(804) 귀국하여, 일본에 처음으로 천태종의 가르침을 전한 인물이다.

일본 천태종의 총본산인 연력사에 세워진 상륜당은 4개의 지주와 중심기둥을 세워 불상의 대좌형식으로 상륜을 받치고 있으며, 각종 악기로 음악을 연주하는 주악상〈사진2〉등을 조각하고, 청화, 구륜, 화륜, 보주가 연결되어 있다. 820년에 최징이 처음 조성 한 후 헤이안 시대인 1179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수리되어 왔다. 현재의 상륜당은 메이지 시대인 1895년에 청동으로 조성되었으며, 총 높이는 10.7m이다.

자성현 서련사(茨城縣 西蓮寺)의 상륜당〈사진3〉은 기단(基壇)´ 당신(幢身)´ 두부(頭部)의 세 부분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총 높이는 9m이다. 상륜당의 몸체 부분인 '당신' 은 10개의 원통을 연결한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재료는 내부는 목재이나 동판으로 겉 표면을 둘러싸고 있다.

서련사의 상륜당은 연력사의 상륜당과 윤왕사의 상륜당과 함께 일본 3대 상륜당으로 꼽히지만 구조형식이 특이한 특징이 있다. 그것은 연력사와 윤왕사 등 다른 상륜당은 대부분이 4개의 지지대를 갖고 있는 반면에 서련사의 상륜당은 별도의 지지대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탑의 상부에 해당하는 두부(頭部)의 구조〈사진4〉가 독창성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 그것은 큰 원형 안에 작고 얇은 원반이 3개를 1세트로 4곳에 모두 12개의 원형이 걸려 있는 것이다. 이것은 12지에 해당하는 중생 일체의 염원을 담은 것으로 추정 할 수 있다. 또한 위에서부터 3번째 원통에 해당되는 탑신에는 다음과 같은 명문이 새겨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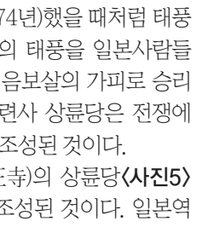
爲弘安之役勝紀念弘安十年中興慶辦建立, 慶長九年舜海代修繕天保十二丑年八月旭諄代, 再建新庄直計殿塔心木寄進

이 명문의 내용은, '홍안(弘安) 역(役)의 전승을 기념하여 홍안10년(1287년)에 서련사를 중흥한 경판(慶辦)이 건립하였다. 경장(慶長) 9년(1604년)과 천보(天保)12년(1841년)에 재건되었다.' 는 내용인데, 여기에서 '홍안 역' 의 전승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탑을 조성하였다는 사실이 주목을 끈다. '홍안의 역' 이란 1281년에 있었던 몽고군과 일본의 2차 전쟁을 말한다. 원나라 군사는 일본 규수지역을 15만여 명의 대군과 4,400척의 함대를 동원하여 두 번째 일본정벌에 나섰지만 1차로 침공(1274년)했을 때처럼 태풍이 불어 실패로 끝난다. 이때의 태풍을 일본사람들은 '신풍' 이라고 부르며, 관세음보살의 가피로 승리했다고 믿고 있다. 이처럼 서련사 상륜당은 전쟁에서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하여 조성된 것이다.

자성현 윤왕사(茨城縣 輪王寺)의 상륜당〈사진5〉은 높이가 13m로 1643년에 조성된 것이다. 일본역사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 가 죽고 난 후에 '에도막부' 가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에 의하여 설립 되는데 그의 손자인 '도쿠가와 이에미쓰' (德川家光:1623-1651)는 3대 쇼쿤이 된다. 그는 원래 비구니 스님이었던 '오만노가타' 를 환속시켜 후실로 삼고 총애하며, 불교를 배울 정도로 불교와의 인연이 깊었다. 그가 더 이상의 전쟁을 억제하고 천하태평을 기원하기 위하여 당시 승정 이었던 '천해' 스님에게 의뢰하여 상륜당을 조성하고 그 안에 1,000부의 경전을 봉안하였다.

일본에서는 사찰뿐만 아니라 신사에도 상륜당을 조성한 경우도 있다. 현재 후쿠오카 현에 있으며, 고대 축전국(筑前國)의 정청(政廳)이었던 다자이후(大帝府) 상륜당〈사진6〉이 대표적인 예이다. 특히 이 신사는 한민족 도래인의 후예로 알려진 '학문의 신' 인 '스가와라노 미치자네' 를 주신으로 하고 있다.

일본의 불탑은 지금까지 살펴 본 형식 외에도 오륜평탑파(五輪平塔婆), 각탑파(角塔婆), 판탑파(板塔婆), 불감탑파(佛龕塔婆), 보병탑(寶甁塔), 무봉탑(無縫塔), 보주탑(寶珠塔) 등 약 30여종에 달한다. 다음 호부터는 우리나라의 불탑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글 · 우인보
〈불교문화예술학 박사〉

〈사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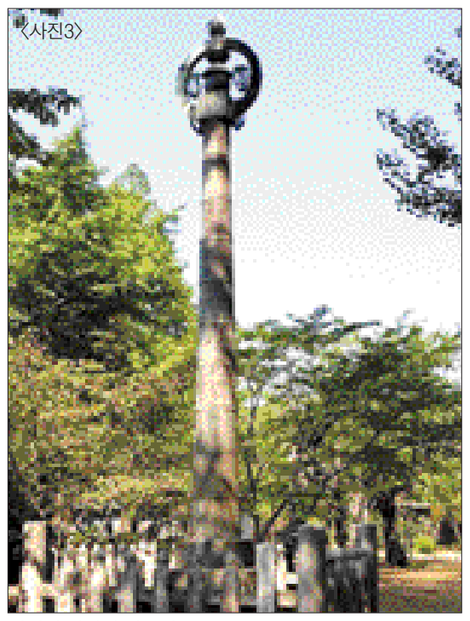
현존 最古인 연력사 상륜당

〈사진2〉



연력사 상륜당에 새겨진 주악상

〈사진3〉



자성현 서련사 상륜당

〈사진4〉



독특한 형태의 서련사 상륜당 두부

〈사진5〉



자성현 윤왕사 상륜당

〈사진6〉



사찰이 아닌 신사에 조성한 다자이후 상륜당

'상륜당' … 불탑의 상륜부만 분리해
법신사리, 경전 등 봉안한 형식
다른 나라에 거의 없는 일본만의 양식
도상적 근거 〈무구정광다리니경〉에
생명 7일 남은 바라문 부처님께 발원
"상륜당 조성하고 다라니 7번 외워라"

현존 最古 상륜당 형식은 연력사탑
서련사 상륜당은 전승 기념용
일본의 불탑 그 밖에도 30여 종 더 있어



화엄의 꽃 절집 천정
〈19〉 고흥 금탑사 극락전

용, 쌍어, 불보살, 범자의 '華藏世界'

〈화장세계〉



천정 빗반자에 장엄된 수중세계. 연꽃, 물고기, 거북 등 조형 소재들을 쌍을 갖춰 좌우대칭의 구도로 조형하였다. 방아 찧는 토끼문양이 시선을 끈다.



불보살 및 신성한 법계에 대한 강력한 옹호와 결계의 의지를 신중작법의 형식으로 드러냈다. 벽체 곳곳 용과 범자의 상징체계로 구현했다.

불보살 법계와 결계, 심미적 천정

용의 몸통에 숱한 빗방울 빗점

고구려 안악3호분 주두양식과 흡사

물과 생명은 순환, 반복으로 일맥상통

커다란 용의 꼬리 자체가 살미

우주로 향한 꿈을 꾸는 고흥반도에 두 개의 명산명찰이 인문의 고전으로 빛난다. 한 곳은 팔영산 능가사이고, 또 다른 한 곳은 천등산 금탑사이다. 고흥에 빛나는 현대의 금자탑이 나로우주센터라며, 고흥의 고전의 빛은 금탑사 극락전이다. 둘 다 하늘로 가는 꿈을 꾸지만, 하나는 우주선이라는 과학기술을 빌리고, 다른 하나는 '자등명 법등명(自燈明 法燈明) '으로 자신의 마음에서 찾는다. 금탑사 극락전은 옛사람들이 정화된 마음으로 우주법계를 장엄한 불교의 우주선, 피안으로 가는 깨달음의 배, 반야용선(般若龍船)이다.

금탑사 극락전 내부는 온통 벽사와 길상, 상서, 문자기호 상징, 불보살의 세계로 충만하다. 어느 사찰의 내부장엄보다도 불가사의하고 심오하며 아름답기 그지없다. 내부장엄에서 이례적이며 독창적인 요소들로 주목을 끈다. 법당 내부로 들어서는 순간 시선을 낚아채는 것은 어칸의 양쪽 주심기둥과 네 모서리 기둥에 장엄한 독특한 내부 살미장치다. 내부살미 그 자체가 용의 큰 꼬리다. 대흥사 천불전이나 불회사 대웅전, 통도사 용화전 등에서 자주 나타나는 주심기둥의 살미양식이지만, 고흥사의 경우는 규모면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형이면서 율동적이어서 파격에 가깝다. S자로 솟구치는 꼬리의 형상이 내출목의 층급을 따라 꿈틀거리며 오르는 넝쿨과 어울려 강한 생명력을 살려낸다.

특히 네 모서리 귀공포의 내부살미는 지극히 역동적이며 힘이 넘친다. S자로 몸통을 크게 비튼 뒤 꼬리부분은 직선으로 거침없이 힘차게 뻗쳤다. 우주선이 발사된 뒤 추진력을 가속하는 불꽃의 형국이다. 용의 몸통에는 비늘의 형상을 입히거나, 혹은 검은 먹선을 넣고, 숱한 빗방울 같은 흰 색 빗점들을 가득 입혀서 신성한 기운을 부여하고 있다. 마치 용의 본질이 만유의 생명력인 물의 특성임을 조형으로 입증하고 있는 듯 하다.

바다 '海' 자와 용으로 결계의지

용의 꼬리는 크고 힘차며, 여섯 곳에서나 나타날 정도로 장엄의 의지가 보다 분명하다. 그것은 신성한 도량과 법계에 대한 강력한 옹호와 결계(結界)의 의지로 보인다. 무엇보다 화재에 대한 경각심과 결계의지는 강력하다. 바다 '海' 와 물 '水' 자를 벽체 여러 곳에 집합적으로 써넣은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바다 '海' 자를 통한 부적 같은 주술적 결계양식은 순천 선암사 대웅전에서도 나타난다. 1700년도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하는 사찰주변 비자림의 조성도 그같은 화재에 대응한 방화림의 숲과도 무관치 않을 것이다.

용의 형상을 통한 법계의 신성에 대한 옹호와 결계의 의지는 내부공간 건축장치 곳곳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기둥 위의 주두(柱頭)에서도 확고하다. 주두의 문양은 일반적인 겹녹화가 아닌, 극히 이례적인 용의 정면얼굴이다. 통상적으로 불단의 기단부에서 표현하는 양식을 주두에 과감히 올려놓았다. 고구려벽화고분 안악3호분 널방입구 기둥의 주두양식과 흡사해서 주목된다. 부안 개암사 대웅전의 연잎문양 주두와 함께 파격적이어서 눈길을 끈다. 더욱이 용의 정면얼굴은 주두 뿐만이 아니라 내4출목 벽체 3단 장여에도 층층이 베풀어서 법계의 신성 수호의지를 결연히 드러냈다. 형형색색 용들의 저마다 눈빛은 살아있으며, 입은 꽉 다물어 결연하다. 법주사 팔상전, 개암사 대웅전 등의 처마 아래에서, 혹은 강화 전등사, 순천 동화사 등의 불단에서 용의 정면얼굴 조형이 조직적으로 간혹 나타나지만, 금탑사 같이 내부공포 장여벽면에 용의 정면얼굴이 집단적인 정형으로 표현한 회화양식은 유례를 찾기 힘들다. 용 얼굴의 회화적 표현도 능수능란하게 묘사해서 탁월하다. 가히 각양각색 용들의 사단이라 하여도 지나침이 없다.

첨자, 살미, 장여 곳곳에 범자

불보살 진리법계의 보장과 결계적 신중작법 양식은 범자종자를 통해 보다 심오함의 깊이를 더하고 있다. 조형회화적 결계작법이 용이라면, 문자기호적 결계작법은 범자에 내재된 신성한 상징을 빌렸다. 먼저 범자의 구획영역의 다양함은 놀라움으로 다가온다. 천정의 연화문에는 물론이고 내부첨자 면과 첨자의 마구리, 내출목 위 상벽, 살미부재 단면 등에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특히 내부첨자 마구리의 범자표현은 극히 이례적이라 시선을 끈다. 범자의 내용은 그 전모를 파악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진언의 만트라 임에는 분명해보이고, 그 중 몇 몇 해독되는 내용은 '옴 마니 빠드메 훔' 으로 적은 육자진언과 '나모佛法' 의 삼보귀의, '옴아훔' 등이다. 육자진언은 귀공포의 부재 끝에 낱낱의 해체를 통해 집합형식으로 읽게 표현하기도 하고, 세로 체본을 써서 가로로 눕혀 두기도 해서 독특하다. '옴아훔' 의 범자종자는 밀교에서 아주 중요한 기호상징체계인데, 모든 진언의 기본음임과 동시에 부처님의 身(몸), 口(말), 意(뜻) 삼업의 선근으로 행하신 공덕의 총체로서 각각 부처님의 법신, 보신, 화신을 상징하는 심오한 종자불(種子佛)이다.

그런데 주목을 끄는 것은 향우측 귀공포와 상벽에서 한자를 통해 '나무 비로자나불' 과 '화장세계(華藏世界)' 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 다른 상벽에서는 통도사 영산전 천정에서처럼 '묘법연화경' 의 경전세계임을 드러내고 있다. 즉 극락전 내부세계는 무량수의 불보살께서 상주하시는 법계이고, 청정과 광명이 충만한 연화장세계이며, 진리법의 세계인고로 '나모불법' , 부처님과 법에 귀의함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사찰천정은 단순히 아름답기만한 심미적 표현공간인 것은 아니다. 삼천대천세계에 충만한 부처님의 거시세계를 조형언어로 구현한 세계이며, 연기법의 화엄세계를 상징적 조형을 통해 관상학적인 방편으로 드러내고 있는 심오한 세계인 것이다.



천정 중앙부분 문양장엄



아미타 삼존불과 후불탱

빗반자에 물고기, 거북, 게 수중생물

천정은 빗반자와 우물천정이 결합된 양식이다. 빗반자에는 물고기, 거북, 게 등 수중생물들이 공생하는 물의 세계다. 대흥사 천불전, 나주 불회사 등 서남해안지역의 사찰에서 종종 나타나는 조형 모티브다. 화재에 대한 결계적 의미도 포함된 다중적이며, 다의적인 장엄이다. 조형의 오브제들은 대체로 쌍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연꽃도, 물고기도, 거북도 쌍으로 배치한 좌우대칭의 구도다. 일종의 일란성 쌍둥이들의 집합성이다. 닮음의 반복을 통해 거시와 확장, 순환, 무한의 속성들을 드러낸다. 그것은 순환하며 상즉입하는 대생명력의 상징적 표현이다. 물과 생명력은 순환과 반복을 내재된 자기운동성으로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하다. 물은 자비의 감로수이므로 곧 관음보살의 대자대비다. 물의 상징 내면에는 자비를 갖춘 중의적 구조가 통일되어 있다. 뾰족한 연꽃 봉오리는 생명력을 담지한 붉은 기운으로 뻗치고 있어, 정언명령 같은 불멸의 수태고지를 강하게 시사한다. 미켈란첼로의 〈아담의 창조〉에서 아담에게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해 가이없이 뻗치는 하느님의 손길을 연상하게 된다.

토끼가 방아 찧는 동화적 장면

수중세계의 극적인 장면은 아무래도 연잎과 연꽃줄기의 우아한 곡선으로 마련된 공간에서 난데없는 토끼 한 쌍이 출현해서 방아를 찧고 있는 장면이 될 듯 하다. 구애받지 않는 파격적인 발상이 다분히 전래동화적이고, 천진난만해서 미소가 절로 흐른다. 토끼가 방아 찧는 장면은 미황사 부도밭 조형에도 나타나고, 선암사 원통전 창호 궁창에서도 보이지만, 이렇게 사찰천정의 수중세계에서는 유일한 사례일 것이다. 양변의 경계가 없는 창의적 발상이 썩 유쾌할 따름이다. 방아 찧는 토끼벽화는 모티브를 찾아 민족회화의 맥을 거슬러 오르면 1500여년전 고구려고분벽화에 닿을 것인데, 덕화리 1호분과 2호분, 개마총 등에서 만날 수 있다. 사실 금탑사 극락전 곳곳에 고구려 고분벽화적 요소가 발견되고 있어 대단히 놀랍다. 후불벽 뒷벽 주심기둥과 순각판 문양 등에서 진파리 1호분, 강서대묘 벽화문양, 그리고 안악2호분 넝쿨문양과 오버랩 되어서 감탄이 멈추지 않는다.

천정의 중앙부분은 전형적인 우물천정이지만, 그 크기가 큼직큼직해서 시원하고, 우물반자 내부의 원형 소란반자 틀이 천은사와 미황사, 내소사 형태와 마찬가지로 우아한 아름다움을 갖추었다. 천도가지를 입에 문 선학(仙鶴)과 범자가 새겨진 8엽연화문, 붉은 끈으로 묶은 모란 꽃다지, 구름을 열치며 나래를 펼친 봉황, 씨방이 드러나도록 활짝 핀 하늘꽃 등 5가지 문양을 따스한 채도의 남도 토양색으로 구현했다. 결국 금탑사 극락전은 불보살 법계와 그 수호의지를 담은 신중작법의 결계, 그리고 심미적 아름다움을 두루 갖추고 있는 것이다. 남해안 토양의 붉은 황톳빛의 주술적 색감에서 생기와 신성이 고요히 흐른다. 문양은 보다 세련되고, 우아하며 보다 깊은 정신적인 암시를 남기고 있다. 우리는 사찰장엄의 조형예술 아래서 진리법의 세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예술가의 내면과 숨결을 읽는데 진지함을 갖추어야 한다. 보이는 것을 세심히 관찰하면 보이지 않는 경계 너머의 것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떡갈나무 숲의 전체도 도토리 하나에 깃들어 있듯이, 천정장엄의 문양 하나, 기호 하나에도 불보살과 진리법의 경전이 가득 담지되어 있는 까닭이다.



노재학 불교미술사진작가

국제 선 불교 조계종

중생구제 인간방생 활동으로 부처님 세상을 이루고자 하는 존경받는 자랑스런 종단!
12 인연의 소중함속에 화합과 단결과 품앗이로 서로 돕는 종단!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종단!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자랑할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부처님 불제자로서 부끄럽지 않기를 서원하며 수행 정진하는 먹물 옷에 취하지 않은 스님다운 스님, 머리로 살지 않고 가슴으로 살아가는 살아있는 부처님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그들이 진정한 불교 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고자 하는 뜻을 함께 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룰 사찰 및 암자, 포교당 스님(원장)들의 종단 가입을 받습니다. 마음과 몸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한 인간방생을 실천하는 사찰과 스님들의 가입으로 알차고 자랑스런 부처님을 감동 시키는 종단의 주인공이 되어 보십시오. 무엇을 주저하십니까? 사찰과 암자, 포교당 주지스님과 원장이라면 누구나 종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미얀마 대통령으로부터 승려 최상 최고의 품수를 받은 대승정 목탁스님.
AGGA MAHA, SADDHAMMA JOTIKAD HAJA 작위

아까(AGGA)라는 뜻은 맨위, 첫 번째, 최고의 뜻을 가진 승려로서는 더 이상 누릴 수없는 최고의 품수라는 뜻.
마하(MAHA)는 큰, 크다의 뜻이고 사다함마 다(하)자(Saddhamma Jotikadhaia)는 봉사및 인간방생에 많은일을 하신 성스런 승려로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베푼 의로운 사람이란 뜻으로 표현한다.

종 정 목탁혜은 부 종 정 불원혜정 원로원장 보각 기획원장 법성
총무원장서리 지암 부 원 장 고산
포교원장 현담 교육원장 청운 호법원장 진성 감찰원장 송몽 종회의장 도암 원로의장 심오 비구니회장 대연
종단부장 : 현관, 법산, 자명, 휴암, 종암, 금산, 여송, 진일, 개오, 도광, 월산, 원광, 송운

우리 종단만이 입을 수 있는 승복 및 수자보, 장삼, 가사까지 갖추어진 종단입니다.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03호 종교법인 국제선불교 조계종
대표전화 02)733-5665. 팩스 733-5671. H·P : 011-229-6061



백봉 김기추 거사의
미발표 법문록

성품이 법이면 마음은 부처

마음씨 타령 ④

여러분들, 낙동강도 보고 한강도 보고 천리강산의 물을 보겠지만 이 물이란 건 끊임이 없어. 언제라도 그대로 흘러가. 인위적으로 강을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릴 수도 있겠죠. 그건 유위법이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 해놔도 물 흐르는 것은 매 한가지야. 이래 돌려놔도 결국 물은 흘러. 저리 돌려 놔도 결국 물은 흘러. 한결같아.

그러니 결국 마조대사도 역시 급하다 이 생각 다시 물을 줄 알았겠죠. 또 그 자리에서 알았으면 아 그렇구나 한결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마음자리가 바로 열반이로구나 바로 이렇게 아는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 번 물을 줄도 알았겠지요. 만약 묻지 않았더라면 나갈 거여. 절하고 갔을 거여. 가면서 물을 봐라.

그 말 한 마디 했을 줄도 모를 거여. 별 문제겠지만. 그러하니 열반자리가 무엇이냐면 열반자리가 역시 이것이거든요. 나는 이걸 쇠꽃이다. 이래 노래해 놨는데 역시 열반자리가 이 자리 떠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자리가 급한 것이거든요. 급해서 한결같이 마음을 가져. 쇠꽃과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마음 심자와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물을 봐라.

물이란 건 인위적으로 이렇게 틀어놓고 저렇게 틀어놓고 했더라도 한결 같아. 변한 것이 없어. 이 자리. 이건 불변심을 말해. 이건 악한 것도 아니고 착한 것도 아닌 이 자리, 이 자리를 뜻하는 것이거든. 내가 생각하기는. 그러하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열반이라고도 하고 열반묘심이라고도 하는데 묘한 마음이라고도 하는데 그 자리가 바로 성품자리 아닌가 말이지. 그 자리가 바로 마음씨 자리거든요. 그런데 우린 그런 말 많이 들었어. 그리고 대중을 깨우치는데 무엇인가 색다른 말 한 마디 해야 탁 들어갈 것이거든요. 그러하기 때문에 노래 부른 것이 쇠꽃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참말로 어찌 이 마음자리를 쇠꽃에 비유하겠어요? 그러나 무엇인가 무슨 말이라도 빌려다가 한마디 턱 하게 대중에게 들려주어야 하겠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필요한 것이거든.

그러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성품이 법이라면 마음은 부처란 것은 틀림없고, 이전 어른들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부처님도 그래 말씀 했고 우리가 생각한 것도 그래. 절대로 머리털만큼도 이전 어른들의 말씀과 내 그것이 틀리지 않다는 걸 내 단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전제로 해서 쇠꽃이다 이래 합니다. 그러니까 꽃이란 거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쇠꽃이라 변치 않는 것이라. 그러하기 때문에 지화자 좋을씨고 쇠꽃이랄까. 좋아. 참 지화자자 좋을씨고 쇠꽃이랄까. 이 노래를 만드는데, 서울대학원생인데 대전에 있을 때 구경을 나갔는데 노래를 해. 그런데 그 노래에 관심이 가. 아하, 노래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의 마음씨, 우리의 마음씨 어떤지 알 수가 없어. 그러나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쇠꽃이로구나, 어즈버야 지화자자 좋을씨고 쇠꽃이로구나. 이러면서 춤이라도 한 번 춰. 마음자리 그 자리를 상상하면서 춤추는 것도 마음이 추지 무정물 어디 이것이 추나요?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 **한결 같은 물은**
> **어디에서도 변함없다.**
> **이 자리는 불변심을 말한다.**
> **악한 것도 착한 것도 아닌**
> **'열반묘심' 이라고도 하는**
> **이 자리가 바로 성품자리**

[강송] 영특스런 슬기라서 의젓한지라.

영특스런 슬기, 여러분이 다 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젓한 자리거든요. 다 의젓한지라.

[강송] 기틀마다 응하면서 씀을굴리니.

기틀마다 응해. 그래서 씀을 굴려. 작용을 해. 어디라도 응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기틀마다 응하면서 씀을 굴리니, 작용을 하니. 작용이라 써도 좋은데 될 수 있는 대로 우리말을 쓰려고 씀을 굴리니 했어요.

[강송] 어즈버야 다함없는 장엄세계다.

마음, 이 장엄세계를 만드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거든요. 그러하니 이 극락세계 여러분이 만들고 이 지옥도 여러분이 만들고 사바세계도 여러분이 만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몸뚱이로서인 여러분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허공으로서인 여러분이 만듭니다. 이거 절대로 의심하지 마세요. 이거 의심하면 안 됩니다.

[강송] 어즈버야 다함없는 장엄세계라. 지화자 좋을씨고 돌말이뛴다.

돌말이 뛰어. 아까는 쇠꽃이라 했는데 돌말, 석마, 세상에 돌말이 뛰는 법이 어딨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고깃덩어린데 왜 걸어다니나? 아, 그건 내 성품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돌말이 뛴다. 도대체 이거 무슨 말이냐.

어느 것 하나 이름자 아닌 것이 없습니다. 전부. 산도 이름자, 지구도 이름자, 나무도 이름자, 돌말도 이름자. 이름자는 내 마음대로 굴릴 수가 있습니다. 재주를 부려서 이걸 걸어가게 만든다는 것보다도 내 마음대로 굴릴 수가 있습니다. 이름자는. 그러하기 때문에 무슨 모습 생겼다고 그래서 거기에만 딱 들어앉아 버리면 한계성이 딱 있습니다. 지금 지구가 돌아. 태양을 한 바퀴 돌아. 실은 이거 지구 자체가 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씨가 도는 겁니다. 알고 보면. 너무 엉뚱한 말이 되서 이건 곧이 안 들을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씨는 그만 허공 전부라 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지구나 태양이 어딨나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의 마음씨 가운데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각자 한 가닥의 마음을 나투어서 거기서 모습을 나투어. 그 모습과 모습끼리 타협을 해. 거기 정해진 자리를 도는 건데 돌도록 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원인이라면 여러분의 마음씨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돌말, 나무달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이름자에요. 사람이것도 이름자에요. 그러면 이름자는 내 마음대로 인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지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백봉 김기추 거사 기념사업회 · 보림선원

다시 읽는 효당 최범술 스님의 법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우리 몸의 법당 알뜰히 청소하자

17-1. 회향게(回向偈)

처음에도 말했듯이 행원례(行願禮)란 우리의 일상생활을 토대로 하여 그 위에 수행(修行)의 스케줄을 짜 본 것이다. 이 수행생활의 일과를 짜는데 있어 어디에다 주안점을 두었느냐 하면 우리는 다들 집을 지니고 살고 있으며, 또 수행하는 사람들은 법당을 중심으로 도량에서 생활하는데, 집이라거나 법당이라는 것이 이를테면 자기의 몸이며, 다시 말하여 자기의 몸이 우리에게는 가장 가깝고 큰 법당이라는 것을 생각하여, 바로 자기 몸에 담겨 있는 부처가 가장 알찬 부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자기 몸의 법당이거나 그 법당 안의 부처이거나, 우리 다솔사(多率寺) 수덕전(手德殿)에 모셔 놓은 부처님이거나, 또 제가끔의 우리들 가정 생활하는 집이거나 다 한결같이 우리에게는 신성하고 경건한 터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를 신성한대로 지켜 나가려면 날마다 깨끗이 소제를 해야 한다.

거미줄을 걷어 내고 마당엔 잡초 하나 없이 뽑아 버리고, 먼지를 털고, 닦고 하여 환하게 만들고 또 집안에 물건 하나라도 놓을 곳에 놓이고, 걸릴 곳에 걸리고, 또한 자기의 몸에 지닐 것은 제 자리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혹 옷고름이 풀렸거나, 차림새가 단정치 못하고, 또는 여자의 치마끈이 느슨히 풀어졌거나 한다면 이런 것은 그 집, 속이 소홀하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그리하여 우리가 집을, 몸의 법당을 알뜰히 청소하고 물을 뿌린 다음에는 우리는 이것이 더 맑게 보이기 위해 향을 피운다. 향을 피우고 꽃을 꺾어다가 장식하고 그러면 이 도량이 맑고 거룩해져 우리의 몸의 법당도 한층 더 신성하게 된다. 사람이 사는 데는 내왕이 있게 마련이며, 이제는 어떠한 거룩한 어른이라도 맞아들일 수 있다.

그러니까 부처님도 모셔 올 수 있고 우리들의 선망부모(先亡父母), 조상들은 늘 우리의 몸에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것이므로 우리는 이들을 역시 모셔야 한다. 우리의 집으로 어떤 성인이 오건 찾아온 때에는 그분들께 성의껏 대접하고 이분들과 사람 살아나가는 일을 수희(隨喜)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이 이를테면 행원례라는 것인데 우리는 큰 비원을 세워 행동을 통해 이를 나날이 이룩해 나간다는 것이다. 거기에는 어려운 일도 있겠지마는 우리는 차라리 가장 가깝고 또 가장 쉬운 일을 먼저 택해서 한다. 일이 어려워서는 되지 않고 곤란한 것은 되도록 이를 피하고, 평탄한 길에서 아주 쉬운 얘기를 가장 거룩하게 실행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염불생활을 한다. 염불이란 얼마나 간단하고 쉬운 일인가.

그리고 수행(修行)하는 사람은 모든 행동을 삼가고 몸을 닦아야 한다. 이를 불교에서는 계행(戒行)이라고 한다. 계행은 보통 오계(五戒)나 십계(十戒)로 일컫는다. 이는 몸으로 입으로 마음으로 제가끔 부여된 계통에 따라 조목이 세워진다.

> **향을 피우고 꽃을 꺾어 장식하면**
> **도량이 맑고 거룩해져**
> **우리 몸의 법당도 한층 더**
> **신성하게 된다.**
> **여기에는 어떤 거룩한 어른이라도**
> **맞아들일 수 있게 된다.**
>
> **부처님도 모셔 올 수 있고**
> **선망부모(先亡父母), 조상들은**
> **늘 우리의 몸에 그림자처럼**
> **따라다니므로**
> **우리는 이들 역시도 모셔야 한다.**
> **집으로 어떤 성인이 오건**
> **그분들께 성의껏 대접하고**
> **사람 살아나가는 일을**
> **수희(隨喜)해야 되는 것이다.**

몸으로 범하는 것은 첫째 살생(殺生)하는 것, 또 손이나 발로 도둑질 하는 것, 그리고 또 음탕한 짓을 일삼는 것 등이 있다. 입으로는 거짓부렁하고, 비단 말 하고, 두 혀를 놀리고, 험상궂은 악구(惡口)하고 그러는 것이 대개 네 가지 계율에 든다.

또한 뜻으로는 탐욕을 부리거나 버럭 성을 내거나 얼빠진 생각을 내어 남을 불신하거나, 의심하거나, 아만심을 가지거나, 이렇듯 탐진치(貪瞋癡)에 빠진다. 뜻으로 셋, 입으로 넷, 몸으로 셋을 합쳐서 열 가지의 계율, 즉 십계라고 한다. 다시 말하여 살(殺), 도(盜), 음(婬, 망(妄), 주(酒), 기어(綺語), 망어(妄語), 양설(兩舌), 악구(惡口), 탐(貪), 진(瞋), 치(癡), 등이다.

그밖에 범망경(梵網經) 같은 데서는 마흔 여덟 가지의 계율 즉 사십팔계(四十八戒)를 설정한 것이 있다. 요즘 비구(比丘)의 이백오십계(二百五十戒)와 또 오백계라고도 하지만 실상은 삼십 팔계인데 그런 것도 있다. 이렇듯 계율(戒律)의 조문이 많은 수에 이르러 엄격하게 계(戒)와 율(律)을 분간하게 되어 있다. 계는 선악(善惡)의 윤리성에서 추출되는 우리의 행동의 규제이며, 율은 비나야(Vinaya)라는 것으로 원래 인도에서 그 사회의 풍속, 관습 등에 맞도록 단체적 행동에 규칙을 세워 놓은 것이다. 그러므로 인도는 기후가 더우므로 습기를 피해 가사(袈裟), 보자기 같은 것을 둘러써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 한국 같은 겨울에 추운 지방에서는 이런 보자기나 가사만으로는 못 견디는 것이다.

핫옷에는 그 위에 핫두루마기를 업어야 되고 시베리아나 만주 등지는 이를 것도 없고, 함경북도만 해도 모피(毛皮)등속을 옷에 대고 배자도 해 입고 그런다. 최근 태국의 유명한 승려가 우리나라를 방문했지만, 맨발에다 옷은 가사 하나만으로 다른 것 입지도 않아 계율 지키느라고 벌벌 떨다가 돌아갔는데 이러다가는 병이 나기 쉬운 것이다. 그 분들은 그런 것을 계율이라고 아는 모양이나 우리가 만일 이것을 지키려다가는 큰 사고에 봉착 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방의 풍토에 맞는 규칙을 정해 놓은 비나야, 즉 육과 인간 본래의 윤리성을 설명한 규제인 계와는 우리가 완전히 분리하여 각기 별도로 연구할 문제다. 이에 대해서는 철저히 인식해 둘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효당 최범술 문집(편자 · 효당사상연구회 회주 원화 채정복)〉 전 3권(민족사 刊) 중 제 2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에서 발행하는 어린이 인성교육 월간지 <마음꽃>은
어른들도 함께 보는 어린이 마음공부 놀이터입니다.



월간 〈마음꽃〉 2013년 4월호 '아무나 쓰는 이야기' 中

마음꽃 펴어라, 얍!

"가기 싫은 학원을 즐겁게 갈 수는 없을까?"
"보기 싫은 친구를 사랑할 수는 없을까?"

나와 같은 고민을
지혜롭게 풀어가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마음꽃〉에서 만나보세요.



* 사찰이나 학교 · 도서관에 기증되는 마음꽃은 구독료를 받지 않습니다. *

정기구독 안내
전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031)470-3180 / 010-5650-3180

정기 구독료 :
30,000원 (1년 / 12권)

입금 계좌 :
농협 356-0822-8773-23
(예금주 : 권나래)

사찰 음식은 생명체의 근원…

사찰음식 대가 **선재 스님** (선재사찰음식문화연구원 원장)



선재 스님은 … 1956년 경기도 수원에서 태어났다. 1980년 경기도 화성 신흥사 청소년 수련원의 성일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수원 봉녕사 승가대학을 졸업하고, 여러 선방에서 정진하였으며, 화성 신흥사 청소년 수련원에서 수행 지도를 했다. 1994년 중앙승가대 사회복지과를 졸업, 논문으로 '사찰음식문화연구'를 발표했다. 이는 사찰음식에 대한 최초의 논문으로 불교계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불교텔레비전에서 수년 동안 '선재 스님의 푸른 맛 푸른 요리'를 진행했으며, 동국대 사범대학 가정학과 겸임교수를 역임했다. 현재 선재사찰음식문화연구원 원장으로 사찰음식 계발과 아울러 사찰음식을 지도하고 있다. 선재 스님은 간경화를 앓다가 사찰음식으로 치유하였고, 스님과 같은 환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 위법망구의 정신으로 사찰음식을 국내외에 전하고 있다. 동국대 사찰음식강의 담당교수, '2014 김장문화제' 추진위원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11월 18일 강남 봉은사 보우당 향적원에서는 선재 스님의 김치 강의가 한창이었다. 80여 명의 수강생들은 홍시를 채반에 거르고 찹쌀을 넣은 양념으로 절인 배추를 버무려 사찰 김치를 만들고 있었다. 파 마늘과 젓갈을 뺀 사찰식 김치이기에 맛은 담백했고 김치 특유의 강한 냄새도 없었다. 수강생들은 완성된 김치를 차곡차곡 정성스럽게 담아내고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고 맛보며 환한 행복의 미소를 지었다.

이처럼 선재 스님의 사찰요리 강좌는 인기가 상당하다. 봉은사, 비구니회관, 봉녕사 등의 실습 강좌는 물론 시군구청 등 각종 기관과 식품회사까지 스님의 사찰음식 특강은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특히 비구니 회관에서 진행하는 사찰음식 강좌는 1년을 기다려야 들을 수 있을 만큼 그 명성이 자자하다. 어디 그뿐인가? 목사 부인들이나 수녀님도 수업을 들으러 올만큼 스님의 강의는 종교를 초월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렇다면 스님의 사찰요리 강좌가 이렇게 폭발적 인기를 얻는 비결은 무엇일까? 바로 불가의 가르침인 생명존중 사상에 기초한 제철음식만을 고수하는 스님의 고집스러운 철학 때문일 것이다. 20여년 사찰음식 연구에 매진해온 사찰음식의 대가 선재 스님을 통해 사찰음식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 들어봤다.

외국인에게도 인기 만점인 '사찰김치'

스님은 요즘 사찰 김치 홍보에 한창이다. 특히 11월 14일~16일 서울시에서 주최한 사상 최대 규모의 김치 축제 한마당 '제 1회 서울 김장문화제'에서 사찰김치 노하우를 전적으로 공개한 바 있다. 이 행사는 사찰 김치는 물론 궁중 · 종가 김치 등 평소 김치의 역사와 다양한 이야기를 살펴 볼 수 있는 전시로, 스님은 사찰 김치를 소개하는 추진위원으로 위촉됐다. 특히 이번 축제에서는 스님의 레시피로 직접 김치를 담구는 김장 체험 클래스가 운영됐는데 스님은 이 자리에서 홍시 배추김치와 된장 갓김치, 좁쌀알타리 김치 등을 선보여 시선을 끌었다.

스님은 "김장은 우리의 독특한 문화죠. 가족과 이웃이 함께 만들고 나누는 문화로 유네스코에 등록될 만큼 가치 있는 우리 문화유산이죠. 특히 사찰 김치는 수행을 방해하는 파 마늘과 살생에 해당하는 젓갈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맛이 깔끔하고 개운하죠. 그러니 김치 먹기 싫어하는 아이들도 또 냄새가 역해 거부하는 외국인들도 즐겨 먹을 수 있는 김치가 바로 사찰 김치"라고 설명한다.

이어 스님은 "요즘 사람들이 퓨전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음식도 뭘 빼거나 더하거나 해서 퓨전을 만들어내죠. 하지만 외국인들은 한국 고유의 전통을 느끼고 싶어해요. 사찰음식은 전통의 입맛을 그대로 살리되 담백하고 깔끔하니 외국인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죠. 외국인들이 템플스테이를 좋아하는 이유도 사찰음식의 담백한 맛이 그들 입맛에 맞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사찰김치는 일반적인 양념 대신에 호박 홍시 다시마 청각 찹쌀 등 다양한 재료를 넣어 영양과 맛을 보충한다. 또한 김치가 빨리 익는 것을 막기 위해 바닥에 떡갈나무 잎을 깔기도 하고, 김치를 보관할 때 생강나무를 함께 넣어 자극적인 냄새를 줄이기도 한다.

이렇게 맛도 영양도 만점인 사찰음식을 조리할 때 빼놓지 말아야 할 덕목이 있다. 사찰음식이 수행식이라는 가장 기본 원리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다. "요즘, 배추가 싸잖아요. 한 포기에 천 원이면 살 수 있을 거에요. 하지만 배추 한 포기의 가치가 단순히 천 원뿐이라고 생각하면 안돼요. 그 안에는 우주의 생명이 깃들어 있고 농부의 땀이 배어 있고 수많은 이들의 손길이 담겨 있죠. 그러니 김치 하나를 만들 때에도 정성을 다해야 해요. 항상 이 음식이 온전하지 않으면 나도 온전하지 못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음식을 대해야 하죠. 지금 여기 있는 이 음식이 부처님이고 내 생명을 이룬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학교마다 장독대 만들기 운동 펼쳐야

스님은 서울 김장문화제에서 김치 판매 제안을 받았다. 이를 흔쾌히 받아들였고 그 수익금은 학교 장독대 만들기에 기부하기로 했다. 학교에 장독대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뭘까? 스님은 인스턴트 음식, 화학조미료와 첨가물 등에 입맛이 길들여진 아이들을 위해 학교에 장독대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부처님께서 모든 음식은 약이라고 하셨어요. 요즘 아이들은 모두 학교 급식을 먹잖아요. 그런데 단가를 맞추다 보니 좋은 재료를 사용하기는 힘들죠. 아이들 건강이 걱정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요즘 시중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장들은 첨가물이 들어가 있잖아요. 음식의 가장 기본이 장인데 이 장만이라도 전통을 고수해 아이들에게 건강식을 먹이자는 취지로 장독대 만들기를 제안해봤어요. 학생들이 전통방식으로 직접 장을 만들어 장독대에 보관하고 이 장으로 급식 음식을 조리한다면 학생들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스님은 학교 한 곳을 선정해 장독대를 만들어 볼 생각이다. "전액 아름다운동행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전달해 세상에 이 운동을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사찰음식의 지혜가 아이들의 식탁으로 고스란히 옮겨지길 기원합니다. 물론, 제 혼자 힘으로 부족하니 앞으로 종단 차원에서 이런 일을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불교가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철 재료에 수행정신 담은 사찰음식
전국 곳곳에 강의 다니며 비법 전수
서울 김장문화제 지도 강사로 선정
호박 홍시 찹쌀 넣은 이색 김치 선보여

간경화로 1년 시한부 선고 받아
사찰음식으로 극복하며 확신 얻어
부처님 경전 근거한 사찰음식
세상에 알리며 건강한 삶 유도

스님은 음식의 가장 기본이 장과 김치이고 이들만 잘 만들어 꾸준히 먹어도 건강해질 수 있다고 말한다. "사람들이 제가 혼자 있을 때는 뭘 먹는지 너무 궁금해 해요. 별 거 없어요.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제가 만든 장과 김치로 아침을 챙겨 먹고 주말에 혼자 있을 때에도 장과 김치로 밥을 먹어요. 제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 데에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사찰음식은 뺄 건 빼고 더할 건 더해 균형을 맞춘 보약이라 할 수 있죠."

음식은 자연의 순리에 따른 재료로 만들어야 한다고 스님은 강조한다. 때문에 성장촉진제 항생제 등으로 길러진 축산제품은 자연의 순리를 거스른 위험한 먹거리라고 스님은 설명한다. "현대인들 대부분은 성장촉진제로 키운 닭과 그 닭이 낳은 달걀을 먹죠. 물론 다른 고기들도 마찬가지죠. 이런 환경 탓에 태어난 지 1년이 안된 아기가 생리를 하는 기현상이 일어나기도 하죠. 모두가 성장촉진제 음식을 먹고 아이를 키운 엄마의 영향 때문에 호로몬에 이상이 생긴 탓이죠. 무척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스님은 채소 역시 다르지 않다고 말한다. "비닐하우스 덕분에 봄철에나 맛볼 수 있는 딸기를 겨울에도 먹을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죠. 이렇게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농산물은 우리의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기후의 특성상 저장해서 먹어야 하는 겨울철 음식들이 있기는 하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음식들은 먹지 않는 것이 건강에 좋아요. 요즘 유기농을 중요시하는데 신경써야될 게 바로 제철 음식입니다."

청소년 포교사에서 사찰음식 대가까지

스님은 경기도 수원 출신으로 고등학교 시절에는 미션스쿨에 다니며 주일학교 교사를 할 만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다. 하지만 용주사 수원 포교당에 우연찮게 〈부모은중경〉 강의를 듣고 출가를 결심했다. 하지만 속가 아버지의 반대로 5년을 기다렸다고 한다. 그 시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했고 용주사 수원 포교당의 청년회를 결성해 포교할 만큼 열성적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1980년 화성 신흥사 오성 스님을 은사로 출가를 하게 된다.

"제가 제일 후회스러웠던 것은 불법을 좀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거라는 거에요. 그래서 청소년 포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했죠. 출가해서 가장 열심히 한 일이 어린이 청소년 포교였어요. 학생들을 상대로 심성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반응이 좋았죠. 교육프로그램은 물론 식단까지 짜서 학생들을 지도했죠. 이때부터 사찰음식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스님의 청소년 포교는 퇴학당할 위기에 놓여있던 학생 한 명을 모범생으로 만들어 졸업시키면서 큰 화제를 모았다고 한다. "아버지가 중동에 돈 벌러 가 있는 동안 아이가 학교에 힘 있는 아이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비행 청소년이 됐죠. 상담 등을 통해 그 아이

밝은사람들 총서

불교와 사회의 상생적 소통을 위한 길잡이!



욕망, 삶의 통쾌인가 괴로움의 뿌리인가 — 정준영 외 / 396쪽 | 20,000원
나, 버릴 것인가 찾을 것인가 — 권석만 외 / 504쪽 | 23,000원
마음, 어떻게 움직이는가 — 미산 외 / 400쪽 | 20,000원
몸, 마음공부의 기반인가 장애인가 — 우희종 외 / 424쪽 | 20,000원
행복, 채움으로 얻는가 비움으로 얻는가 — 미산 외 / 348쪽 | 18,000원
죽음, 삶의 끝인가 새로운 시작인가 — 안성두 외 / 416쪽 | 20,000원
믿음, 디딤돌인가 걸림돌인가 — 오강남 외 / 300쪽 | 18,000원
괴로움, 어디서 오는가 — 정준영 외 / 326쪽 | 18,000원

학술연찬회
주제: 깨달음, 궁극인가 과정인가
일시: 11월 29일(토) 10시 18시
장소: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깨달음의 정체에 대한 고찰
불교의 궁극적 지향점인 '깨달음'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이 책은 '깨달음'을 주제로 초기불교, 선불교, 불교학, 비교종교학, 상담심리 등 여러 방면에서 그 실체와 의미,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을 논구하고 있다.

깨달음, 궁극인가 과정인가
정준영 외 집필/신국판 양장/388쪽/20,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주문 (02) 3672-7181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마음 다스리는 수행食”



봉은사 사찰요리 강좌 장면. 스님은 봉은사는 물론 비구니회관, 봉녕사 등의 실습 강좌와 시군구청 등 각종 기관과 식품회사까지 전국 각처에서 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제 1회 서울 김장문화제’ 추진위원으로 사찰김치 홍보에 나서기도 했다.





스님의 강좌는 프랑스 이태리 독일 등 해외에서도 널리 소개되어 우리 사찰음식의 중요성을 알려나가고 있다. 독일 베를린 사찰음식강의 및 시식회참여 사진(사진 왼쪽)과 ‘한국과 프랑스의 음식만남’ 행사.

를 잘 지도해 나중에 모범생으로 만들었어요. 그러자 해당 학교에서 수련회 요청이 들어왔고 또 인근 학교에서도 연락이 올만큼 관심이 대단했어요. 그런 와중에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 졸업 논문도 쓰면서 바쁘게 살다보니 밤 12시에 자고 새벽 3시 반에 일어나는 날이 되풀이 됐죠. 결국 간경화에 걸렸어요. 속가의 오빠와 아버지가 같은 병으로 사망할 만큼 가족력이 있었죠. 시한부 1년을 선고 받았어요.”

스님이 이때 작성한 논문이 바로 ‘사찰음식문화연구’다. 경전을 근거로 사찰음식의 특징과 유형을 나름대로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갈 바를 제시한 이 논문은 큰 주목을 받았다. 또한 사찰음식의 진가를 알아봤던 스님은 사찰음식 연구에 매달리며 스스로의 건강도 사찰음식 안에서 찾게 된다.

“사찰음식을 연구하면서 계속 제가 만든 장으로 식사를 했어요. 그만큼 전통 장은 면역력을 길러주고 우리 몸을 튼튼하게 하죠. 이른바 자연식을 통한 항체생성으로 병을 극복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죽다가 살아났으니 저는 제 2의 목숨을 살게 된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 사찰 음식을 알려야 되겠다고 결심한 시기가 바로 그때에요. 바로 음식 수행자가 되기로 한 거죠.”

1995년 3월부터 스님은 불교TV ‘푸른 맛, 푸른 요리’를 통해 사찰음식을 소개하면서 세간에 큰 관심을 모으게 된다. 이후 프랑스, 이태리, 독일 등에서 사찰음식 강의를 하면서 사찰음식을 알리는 선구자 역할을 해왔다.

“건강이 악화된 분들이 사찰음식을 찾는 경우가 많아요. 먹는 음식이 건강하지 못하니 당연히 건강도 나빠진 거죠. 이런 분들은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갈망이 커요. 물론 병이 든 뒤에 식생활을 바꾸는 것보다는 미리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 평소에 좋은 음식을 잘 챙겨 먹어야 해요. 바쁜 현대인들이 이렇게 음식을 챙겨먹기는 힘들기는 하죠. 하지만 김치와 장만이라도 잘 챙겨 먹었으면 좋겠어요. 밖에서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경우가 많더라도 아침이나, 주말 등 집에 있는 시간에 제대로 된 김치와 장을 잘 챙겨 먹는다면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겁니다.”

유기농 음식, 채식 등 건강식에 대한 정보가 넘쳐나고 있는 가운데 사찰음식이 돋보이는 이유는 바로 생명존중을 바탕으로 한 수행식이라는 점이다. 우리 사회에 이런 정신이 퍼진다면 불교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바는 훨씬 커질 것이다.

“저는 전통 사찰음식이 청소년들의 비행도 막아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토피 우울증 갱년기 등의 질환도 음식으로 극복할 수 있죠. 큰 병이 나서 치료하고 이미 사회의 문제아가 된 뒤에 이를 수습하는 것보다 좋은 음식을 먹어 마음을 맑히고 늘 몸을 살피는 일이 더 중요하죠. 생명존중이 깃든 사찰음식은 교육적인 측면에서나 질병 예방차원에서나 꼭 필요한 음식이죠.”

사찰음식은 스님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불자라면 누구나 함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선재 스님. 음식이 곧 보약임을 잊지 말고 오늘 먹을 음식을 돌아볼 줄 알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지혜가 바로 사찰음식 속에 담겨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전법일기

전법도량을 가꾸면서

이곳 마야사를 3년 전에 창건할 때 역사와 전통이 없는 대신에 무엇을 내세워야 할지 고민했었다. 말하자만 지장도량이 있고, 관음도량이 있듯이 사찰의 성격을 정하는 일이 우선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미 규모가 크고 유서 깊은 사찰이 주변에 많은 상황에서는 기존과는 다른 방향 설정을 하는 일은 기업의 이미지처럼 중요하다.

그 당시 내가 결정한 도량의 콘셉트는 ‘펜션 같은 사찰’로 가꾸어서 작고 아름다운 절로 만드는 것이었다. 그래서 불자들의 정서와 습관을 고려하여 예배공간은 전통양식으로 짓고 부속건물은 펜션 양식으로 설계를 했다.

우리 절 식당은 내부가 밝고 따스하다. 천정을 높이면서 가구(架構)들이 드러나게 하였고 황토벽과 한지 전등으로 마감을 하여 단순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이 나도록 유도한 덕분이다. 그리고 한 쪽 창호는 통유리로 처리하여 전망을 시원하게 만들어서 카페 같은 분위기를 연출했다. 그 창가에 커피를 나눌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마련하여 오랜 시간 앉아 있어도 지루하지 않도록 책과 음악을 준비해 놓고 있다. 또한 야외에는 카페테리아를 꾸며서 취향에 맞는 음료를 마실 수 있도록 배치하였다. 이런 식당의 분위기가 소문이 났던지 잡지에도 몇 번 소개된 바 있고 방문객들의 호응도 높았다. 이제는 사찰식당도 복합공간의 개념으로 나아가야 휴(休)와 식(食)을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젊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 낼 수 있다. 이곳 마야사 신도들의 연령층이 30, 40대가 중심이 되어 활동하는 것도 이런 배경과 무관치 않다고 본다.

다음은 해우소 부분인데 우선 출입문에 대한 파격이 필요했다. 대부분의 해우소는 스테인레스 재질의 유리문을 사용하지만 여기에서는 목재와 유리가 조화를 이루도록 제작하였더니 마치 커피전문점의 출입구처럼 고급스럽게 연출되었다. 외부는 적벽돌과 방부목으로 마무리하여 청결하고 편안하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수차례의 공정을 거쳤다. 별스럽지도 않는 일을 자랑처럼 왜 늘어놓느냐하면 다른 시설에 견주에 해우소가 방문자들에게 외면 받는다면 고객을 놓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서다.

만에 하나라도 그 절에 가고 싶지 않은 이유가 화장실이 불편하다는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식당과 해우소는 신앙 공간보다 더 자주 이용하는 생활공간이므로 절에 오는 불자들을 손님으로 생각한다면 주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두 곳의 시설에 더 많이 공을 들여야 하고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소박하고 아름다운 절로 만들기 위해 여기에 오면서 철마다 꽃과 나무를 심었다. 여러 차례 고백했지만 이곳에 절터를 잡은 것은 주위의 숲이 마음에 들어서였다. 울타리로 서 있는 주목나무를 비롯하여 열병하듯 자리 잡은 벚나무와 뒤뜰의 늙은 감나무들이 내 눈길을 사로잡았다. 건물은 뚝딱거리면 금세 짓지만 나무는 수형을 만들기까지 세월의 시간을 건너야하기 때문에 울울창창한 숲이 있다는 것은 가치를 따질 수 없는 자산이다. 이런 점에서 펜션 같은 사찰을 조성하기에 아주 적합한 장소였다. 굴뚝으로 모락모락 피어나는 연기를 보니까 평화롭고 한적한 시골의 별장 같은 기분이 든다.

도심에서 벗어난 시골의 외진 곳이지만 손님들이 자주 찾아오고 있다. 소개 받아서, 소문 들어서, 인터넷에서 보았다는 것이 방문의 계기다. 집을 짓고 나무를 심는 일도 전법의 초석일 것이다.

날마다 절 구경 오는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펜션 같은 사찰로 방향을 설정했던 처음의 내 생각이 아주 틀린 게 아닌 것 같아서 위안이 된다.



그림 · 박구원



현진 스님 (청원 마야사 주지)

관음태교는 유대인 태교법 등 세계의 어떠한 태교법보다 우수한 영혼체 중심 영재태교법

영산불교 연지사에서 제안한다

‘관음태교인재 10만명 양성운동’ – 3,40년 후면 초일류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어









하고 있습니다. 유태인들이 미국과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비결이 태교와 영유아교육에 있다는 사실을 유네스코(UNESCO)에서도 밝힌 바 있습니다.

유태인 태교의 핵심은 무엇인가?

1) 닛다 임신법

① 생리 첫 날부터 5일간, 생리가 끝난 후 7일간 부부관계를 피합니다. 즉, 생리 시작일로부터 12일간은 금욕기간입니다. ② 생리 시작후 12일째 밤이 되면 ‘미크바’라는 욕조에서 몸을 깨끗이 씻은 뒤 부부관계를 가집니다. 이 기간은 대개 배란일 하루나 이틀전 정도로 임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닛다 임신법은 건강한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을 해야 건강하고 지혜로운 아이를 출산할 수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를 가진 계획 임신법입니다.

2) 태담(胎談)태교

유태인들은 태아가 어느 정도 성장했을때 부터 꾸준히 탈무드(유대인의 지혜가 담긴 율법서)나 구약성서(토라)를 태아에게 들려줍니다. 이를 통해서 어머니도 지혜와 바른 정신을 함양할 수 있고 태아에게도 유대인의 정서와 정신을 기르게 합니다. 그리고 유태인들은 태교를 한 가정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사회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여기며 랍비(유대교 목회자)가 지속적으로 신경 쓴다고 합니다.

세계를 제패하는 유대인

태교(胎教)가 출산 후의 평생교육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유대인이 전 세계 70억 인구의 0.2% 정도에 불과한 인구를 가지고 있으면서 아인슈타인을 비롯한 전세계 노벨상 수상자의 약 23%(2001~2009년)를 차지하고, 미국의 정치·경제·문화 예술계를 주름잡고 있는 비결이 유태인의 태교에서 비롯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또 유대인들은 세계 어느 나라들보다 자녀들의 영유아교육에 물심양면으로 많은 투자를

비교할 수 없는 관음태교의 우수성

그러나 아무리 유태인 태교법이 우수하다고 하더라도 불교 고유의 태교법인 관음태교를 따라올 수 없습니다.

유태인 태교법은 근본적으로 영혼체의 존재를 이해하지 못하며 행복과 불행의 원인인 업(業)과 과보에 대한 통찰이 없어 금생 한 생을 잘 살기 위한 육체 중심의 태중교육에 그칩니다. 그래서 출생 후의 지능 및 재능개발에 중점이 두어져 있습니다.

관음태교는 태아의 본체인 영혼체의 존재와 업과 과보의 행복논리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행복한 삶을 열어가기 위한 영혼체 중심의, 심성 정화를 바탕으로 하는 전인적인 태교법입니다. 또 유태인 태교법은 부모 중심의 자력 태교로서 훌륭한 배우자나 태아영혼체와의 인연 선택이 불가능하고 태아의 업장소멸이 가능하지 않아 출생 후의 불행과 고통을 예방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관음태교는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 중심의 타력태교법으로서 결혼 전부터 태교가 시작되어 좋은 인연의 배우자와 태아영혼체와의 만남이 가능하고 또 태아의 업장소멸을 통해 미래의 불행을 소멸하거나 완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관음태교의 방법

첫째, 관세음보살님께 3배하고, 귀의·참회하면서 주소·생년·이름을 고합니다.

둘째, 〈관세음보살보문품〉을 1독하고 ‘불정심관세음보살모다라니’를 5, 15, 32회 독송합니다.

셋째, 간절한 마음으로 태교발원을 합니다. 결혼 전에는 좋은 배우자 만나기를, 잉태 전에는 훌륭한 아이 잉태를, 잉태 후에는 태아의 업장소멸과 훌륭한 아이로 성장하기를 발원합니다.

넷째,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간절하게 소리내어 10~30분 정도 부릅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면 좋으며, 잉태 후에는 태담(胎談)태교를 병행합니다. 태아는 어머니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태아와의 대화를 통해 엄마·아빠의 사랑을 전해주고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겠다는 어머니의 거듭된 확신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함부로 낙태(落胎) 하지 말아야 하고 5계10선을 지켜야

관음태교를 하면서 가장 주의할 점은 살생, 도둑질, 거짓말, 사음, 음주(술 외에도 담배· 마약 등)를 하지 말라는 재가불자의 5계(戒)를 반드시 지키고, 10선(善)을 실천해야 합니다. 사전에 임신 계획을 잘 세워서 낙태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낙태는 살인죄를 범하는 것이고 낙태아와 원결(怨結)을 맺기 때문에 절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또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자연분만을 하고 모유를 먹이도록 합니다. 그리고 출산 후에도 염불을 계속하도록 합니다.

관음태교인재 10만명을 양성하자 – 3,40년 후 초일류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어

관음태교는 뛰어난 두뇌와 성현의 인품을 함께 갖춘 전인적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국가와 인류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세계적인 인재양성 태교법입니다. 자연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로서는 인재경쟁력을 키우는 것만이 유일한 살 길이고 미래의 희망입니다. 유대민족이 태교와 영유아교육 등 교육을 통해 세계적 인물을 많이 배출하여 오늘날 미국의 정치·경제·문화예술계를 주름잡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관음태교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10만명 정도의 관음태교 인재를 양성한다면 향후 30~40년 후에는 지금의 유대인을 훨씬 능가하는 초일류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불자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의 행복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관음태교인재 10만명 양성운동’에 적극 동참합시다!



▲관음태교로 출생한 아이를 소개하는 자재만현 큰스님

영산불교 현지사 홈페이지 http://hyonjisa.com 이메일 hyunjigung@hanmail.net 현지사 춘천본사 :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영서로 4892-23 ☎033-243-1787

중국불교계 세계위상위해 총력 질주

中정부 중국불교 주도…
불교의 '공산화' 우려

중국 불교계가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지난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산시(Shaanxi)성 바오지(Baoji)에서 중국 불교사상 처음으로 제47회 세계불교도우의회(World Fellowship of Buddhists)를 개최한 데 이어 오는 2015년에는 제4회 세계불교포럼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에는 상하이, 마카오에 중국불교협회 지부를 각각 설치했다.

한마디로 중국불교계가 아시아는 물론 세계 각국에서 자시의 위상을 키우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런 중국불교계의 기민한 행보를 지켜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스리랑카 불교계의 인터넷 뉴스 〈Lankaweb News〉 지는 "중국불교계가 중국 정부의 불교 정책을 충실히 실천하는 것 같다"며 "이는 중국불교의 '공산화'로 보게 하는 대목"이라고 보도해 주목된다.

중국불교계는 이번 세계불교도우의회에서 자국의 불교도 수는 6억7천5백만여 명, 비구 · 비구니 수는 24만여 명, 사원(사찰) 수는 4만 4천여 개로 추산하고 세계 최대(最大) 불상과 세계 최고(最高) 탑을 보유한 점에 주목, "중국불교는 부처님 지혜를 따르는 세계에서 가장 큰 불교국가"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중국불교의 참 모습은 그런 숫자 나열의 이면에서 찾아야 한다"고 전제한 〈Lankaweb News〉 지는 "과거 중국 정부의 핵심 인사였던 저우언라이(Zhou Enlai), 장쩌민(Jiang Zemin) 모두 아시아 정책의 일환으로 중국불교를 키웠고, 지금의 시진핑(Xi Jinping) 국가주석은 보다 적극적으로 중국불교계와의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지만, 중국을 불교국가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중국에 불교를 전래한 티베트는 부정하고, 한국, 일본 등에 중국불교가 전래된 사실만을 강조하며 아시아 불교 맹주국의 자리를 넘보고 있는데, 이런 모습에서 불교국가의 자질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16일부터 18일까지 산시(Shaanxi)성 바오지(Baoji)에서 중국불교사상 처음 열린 제27회 세계불교도우의회(World Fellowship of Buddhists) 전경

中…WFB, 불교세계포럼도 개최
스리랑카 언론, 中 불교계 비판
"중국불교 참모습은
숫자 나열 이면에서 찾아야"

〈Lankaweb News〉 지에 따르면, 불교 맹주국으로서의 위상을 키우기 위한 중국 정부의 노력은 198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산시성 법문사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손가락 뼈가 발굴된 것이 계기였다. 당시 중국 중앙정부는 법문사를 '세계 불교의 수도'로 만들겠다는 계획에 따라 바오지 지방정부와 대기업들이 2002년 법문사와 그 주변 개발에 착수했다. 불교를 내세워 개발 이익 등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하겠다는 목적에서다. 2009년에는 법문사 주변 공원 조성도 마쳤다. 그러나 당초 예상과 달리 이 프로젝트는 아시아 불교국가에게 외면 당했고, '노다지'가 아니라 '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

이에 따라 〈Lankaweb News〉 지는 "산시성 법문사의 경우를 놓고 보더라도, 아시아 불교국가의 공의를 함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중국 정부의 불교정책은 소정의 성과를 얻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편 〈Lankaweb News〉 지는 인도 콜카타(Kolkata)의 인도박물관(Indian Museum)에서 열리고 있는 'Kaala Chakra and On the Nalanda Trail' 전에 주목, 불교 종주국 인도 불교계의 행보에 주목,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목된다.

"인도 불교계가 인도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인도 각지에서 발굴된 돌, 나무, 은, 양피지, 비단 등을 비롯한 다양한 소재의 유물 91점을 선보이고 있다"고 보도한 〈Lankaweb News〉 지는 "이번 전시회는 불교라는 정신문화를 토대로 아시아를 하나로 엮는 데 부족함이 없다"고 평가하고 "이번 전시회는 인도에 이어 상하이와 일본을 거쳐 한국, 몽골, 대만, 호주 등지에서 순회전을 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오종욱 편집위원

日 정토진종 하와이 정착 125주년

11월 17일 일본계 불자 모인 가운데 기념법회



브랜디 야마모토(Brandi Yamamoto)와 멜리아 오쿠라(Melia Okura)가 Kapaa Hongwanji 사원에서 지난 17일 봉행된 하와이 정토진종 도래 125주년 기념법회에서 촛불을 밝혔다.

하와이 카파 홍완지(Kapaa Hongwanji) 사원이 정토진종 도래 125주년 기념법회를 지난 17일 봉행했다.

〈Garden Island〉 지는 "이날 카파 홍완지 사원에는 4백여 명의 일본계 정토진종 불교도들이 모인 가운데 기념법회를 봉행한 데 이어 영화 〈돌고래 이야기(Dolphin Tale)〉 무료 상영, 바자회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정토진종이 하와이에서 처음 법회를 봉행한 날은 1889년 11월 17일로, 이때 소류 카가히(Soryu Kagahi) 스님이 집전을 맡았다. 이후 스님은 사탕수수 농장의 노동자로 이주한 1,000여 명의 일본계 하와이인을 돕기 위해 노력했다.

하와이 정토진종의 첫 사원은 1900년 11월 20일 개원됐다. 당시 하와이에는 중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세운 사원이 있었는데, 전소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때 일본인 이주 노동자들은 중국인 이주 노동자들을 위로하자는 데 뜻을 모아, 사원을 개원한 것이다.

이에 대해 〈Garden Island〉 지는 "이는 당시 일본인 이주 노동자들이 '자기중심적 욕망과 감정에 속박이 없어야 한다'는 정토진종의 대명제를 실천한 것"이라며 "인종과 종파를 떠나 불교도라면 누구나 방문할 수 있는 사원을 세운 것이 단초가 되어 당시 정토진종이 하와이에서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었다"고 풀이했다.

또한 〈Garden Island〉 지는 "당시 봉행된 법회가 바로 하와이에서 정토진종의 첫 발자국"이라는 에릭 마츠모토(Eric Matsumoto) 법사의 말을 인용, "125주년 기념법회에서 쏟아진 축하의 말은 하와이에서 정토진종을 처음 열고 지키는 데 한 몫을 해낸 과거와 현재의 모든 불교도들이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에릭 마츠모토 법사는 이번 125주년 기념법회를 기획 · 진행했다.

"125년 전 당시 하와이에는 반일 감정이 팽배해 있었고, 이는 일본계 이주 노동자의 삶을 더 척박하게 했다"고 말한 카주노리 타카하시(Kazunori Takahashi) 법사는 "따라서 당시 하와이에 첫발을 내딛은 정토진종 스님들은 일본인 이주 노동자의 생계를 돕는 데 주목했다"며 "지금의 하와이 정토진종은 선대 스님들의 노력과 이주 노동자 1세대의 이해에 힘입어 발전된 위상을 가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Garden Island〉 지에 따르면 하와이를 방문한 정토진종 스님들은 사탕수수 농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했던 노사 갈등을 중재했던 것은 물론 일본인 이주 노동자들이 일본 문화를 잊지 않도록 경전을 강독하며 일본을 가르쳤을 정도로 하와이에서 일본인 이주 노동자의 생활과 정서는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정토진종 1889년 하와이 들어와
카가히 스님 日 사탕수수 노동자
1000명 돕기 위해 불교 포교 시작
현재 하와이 33개 사찰과 연대 맺어

한편 이날 125주년 기념법회에서 촛불공양을 맡은 하와이 정토진종 청소년부의 멜리아 오쿠라(Melia Okura · 사진 왼쪽) 회장은 "불교의 기원은 오래됐고, 전래 과정에서 다른 문화를 만나고 변화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것 같다"며 "이 힘이 125년 동안 하와이 정토진종의 발전에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Garden Island〉 지는 "정토진종계 카파 홍완지(Kapaa Hongwanji) 사원은 하와이 평화의 날(Hawaii Peace Day), 부처님의 날(Buddha Day), 자선 프로젝트(Project Dana) 등을 제정하고 실천하며 하와이 군도에 퍼져있는 크고 작은 33개 사원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며 "하와이에서 정토진종의 미래의 더욱 밝다"고 덧붙였다.

오종욱 편집위원

명상은 기억력과 학습능력 향상… 8주간 뇌 스캔 실험

美 하버드대 라자르 박사팀 실험 결과 밝혀

명상을 하는 것만으로 기억력과 학습 능력이 향상되는 것을 미국 신경과학자들이 밝혀냈다.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 11월 8일 자 보도에 따르면 미국 하버드대학의 사라 라자르 박사팀이 실험 참가자 16명을 대상으로 명상 여부에 따른 뇌 영역의 변화를 관찰했다.

그 결과, 명상을 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뇌에서 기억력과 학습 능력 등을 관장하는 영역이 활발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라자르 박사팀은 이번 연구를 위해 8주간 참가자들에게 '마음챙김 명상'을 수행하도록 하고 시행 전후 자기공명영상장치(MRI)를 통해 그들의 뇌를 스캔했다.

뇌 스캔 결과는 놀라웠다. 명상을 수행한 참가자들은 8주 만에 MRI 스캔에 나타날 정도로 뇌에 큰 구조적 변화를 일으켰는데 변화한 부분은 뇌의 일부 회백질로 이를 구성하는 신경세포(뉴런) 간의 연결이 이전보다 훨씬 조밀해지고 두터워진 것이다.

변화한 회백질로는 기억과 학습, 정서조절을 포함한 뇌 중심의 '좌측 해마'와 기억과 감정에 중요한 '후측 대상피질', 공감과 관련한 '측두 두정접합', 운동조절을 돕는 '소뇌'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명상을 수행하지 않은 참가자들은 뇌스캔에서 별다른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사라 라자르 박사는 "당신이 뇌의 이런 특정 부분을 활성화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그 부분은 성장한다"면서 "이는 실제적인 정신 운동으로, 마치 근육을 만드는 것처럼 뇌도 사용해야만 잃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8주간 마음챙김 명상을 수행한 참가자들은 그렇지 않은 참가자들 보다 기억과 학습을 관장하는 뇌의 일부분인 회백질과 신경세포간 연결이 조밀하고 두터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명상이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는 실험에 참가한 마티유 리카르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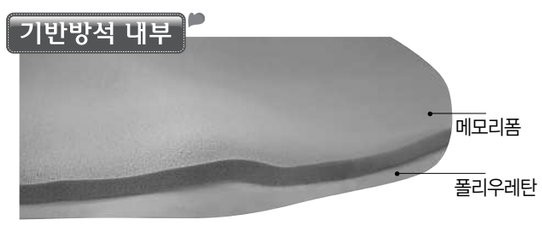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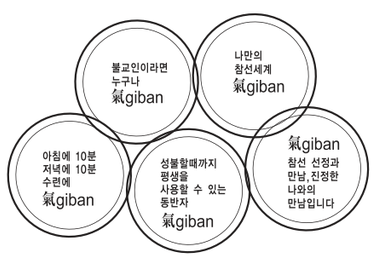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www.hyunbulshop.com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108 염주세트
값 30,800원
· 구성 : 108염주 + 합장주
· 크기 : 직경 10mm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www.hyunbulshop.com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www.withbuddha.co.kr

이야기가 있는 불교 종합쇼핑몰

위드붇다

위드붇다만의 독창적이고 감각적인 HANDMADE상품
국내불교작가들의 빼어난 불교미술작품들을 매주 업데이트!

다양한 불교용품과 아이디어 넘치고 실용적인 불자용품
우수한 품질과 실속있는 착한 가격, 그리고 다양한 혜택
편리한 구매와 끝까지 책임지는 안전한 배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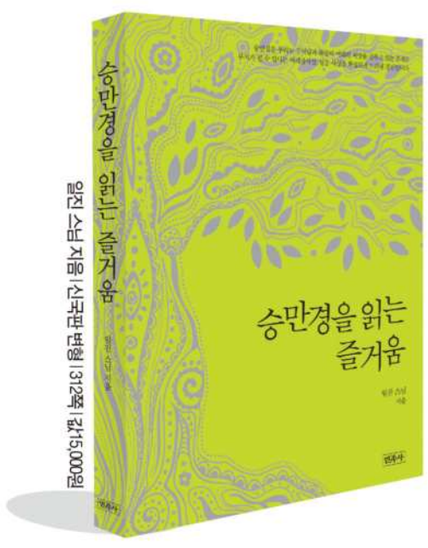
항상 새로운 만족을 드리는 불교전문 종합쇼핑몰

네이버와 다음에서 위드붇다를 검색하세요.

신분 차별의 시대에 여성도 성불하고, 불가촉천민도
성불할 수 있다는 절대평등의 진리를 일깨워준 승만경 !

'누구나 다 여래의 씨앗을 품고 있다' '모두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여래장 사상!
운문사 일진 스님이 잔잔하고 섬세한 필치로 해설하는 그 희망과 긍정의 메시지,
이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즐겁고 행복해진다.

승만경을 읽는 즐거움



『승만경』은 여래가 될 수 있는 경전, 부처가 될 수 있는 경전이다. 40여 년을 경전 연구와 탁월한 변재辯才로 전법 활동을 해온 경험으로 저술된 일진 스님의 『승만경을 읽는 즐거움』을 많은 이들이 읽고 부처님이 가신 길을 함께 가기를 고대한다.

-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의 추천사 중에서

일진 스님은 1970년 재석在錫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78년 월하月下 화상을 계사로 비구니계를 수지하였다. 1978년 동국대학교 승가학과와 운문승가대학 대교과를 졸업, 1985년 법계명성 스님으로부터 전강을 받았다. 동국대(경주) 불교학과 외래강사, 조계종 교재편찬위원 역임, 2004년부터 현재 단일계단 갈마위원 교수사, 2010년 운문사 주지, 제15대 조계종중앙종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한국 최고의 비구니 수행도량인 운문사에서 학인 지도와 지역포교에 전념하며 한국불교에 희망의 주춧돌을 놓고 있다.



민주사 | 종로구 삼봉로 81 두산위브파빌리온 1131호 Tel. 02)732-2403~4 Fax. 02)739-7565 홈페이지. www.minjoksa.org 이메일. minjoksabook@naver.com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minjoksa 농협 053-02-109450 (예금주: 윤재승)

불교종합쇼핑몰

붓다북.

www.buddhabook.co.kr
02) 953-7181

불교서적 · 명상음반 · 신행용품



조선最高 목판본 묘법연화경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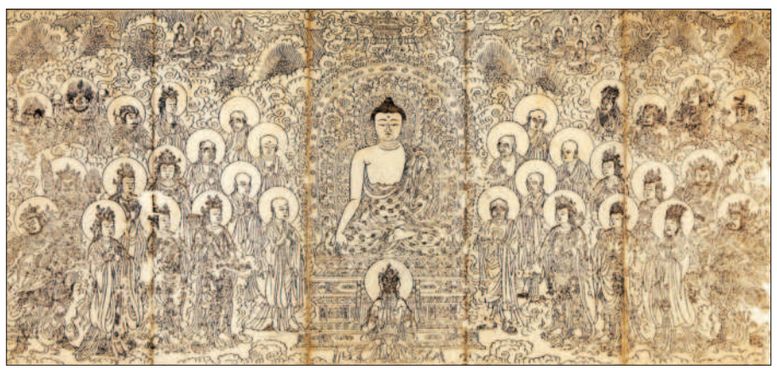
동국대 108주년 기념 기획특별전 12월 19일까지

변상판화 속에 구현된 다양한 부처님의 세계가 한눈에 펼쳐진다. 동국대박물관은 12월 19일까지 개교 108주년 기념 기획특별전 '108번뇌로부터의 해탈: 각즉불심(刻卽佛心)'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는 1459년(조선 세조 5년) 제작된 조선시대 최고의 '목판본 묘법연화경'이 국내 최초로 일반에 선보인다. 절첩본으로 제작된 이 판본은 세종의 며느리이자 광평대군의 부인 신 씨가 발원해 간행되었으며 현재는 일본의 사찰 세이라이지에 소장돼 있다.

판본 1권에 수록된 변상도의 특징은 석가여래 앞에 무릎을 꿇고 불법을 청하는 '보살형 청문자'가 등장해 눈길을 끈다. 동국대박물관은 "이 변상도는 나무에 새겨 찍은 그림임에도 선이 마치 아주 가는 붓으로 방금 그려낸 듯 섬세하고 유려하면서도 활달하다. 조선 초기 왕실발원 판본 중에서도 단연 으뜸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 판본은 신 씨가 세조와 그 왕비인 정희왕후, 세자의 복을 기원하는 동시에, 세종대왕과 그의 비 소헌왕후, 세조의 요절한 장남 의경세자, 19세에 요절한 자신의 남편 광평대군 등 죽은 이들의 명복을 빌고자 간행됐다. 5면에 걸쳐 전개되는 변상도는 중앙에 자리한 부처님을 중심으로 가섭과 아난을 위시한 10대 제자, 8보살, 제석, 범천, 사천왕과 팔부중이 좌우대칭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부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예불을 드리는 뒷모습의 보살형 청문자가 표현되어 있다. 보통 변상도의 청법자는 스님의 옆모습인 경우가 많은데 여성의 표현은 처음 있는 경우로 이는 발원자 신 씨일 가능성이 높다. 묘법연화경은 전체 7책으로, 이번 전시에서는 변상도가 수록된 1권과 김수온(金守溫, 1410~1481)이 쓴 발원문이 포함된 7권이 공개된다.


이번 전시에서는 1459년(조선 세조 5년) 제작된 조선시대 최고의 '목판본 묘법연화경'이 국내 최초로 일반에 선보인다. 이는 세종의 며느리이자 광평대군의 부인 신 씨가 발원해 간행됐다.

광평대군 부인 신씨 발원 제작

'보살형 청문자' 등장 주목

조선초기 작품 중 단연 으뜸

이와 함께 법화경 최초의 언해본으로 1463년 간경도감에서 간행된 묘법연화경(동국대 도서관 소장)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이 판본은 세조가 친히 구결을 다는 등 왕실에서 주도적으로 간행에 참여했는데 신 씨 발원의 법화경변상을 모본으로 했다. 1459년 본에 비해 각 존상 사이에 여백이 있고 보수(寶樹)나 보개(寶蓋), 시방제불의 모습 등 도상의 표현방식과 배치 등이 조금씩 다르다.

이밖에도 '지장보살본원경 언해'(1791년, 송광사 성보박물관 소장)도 주목할 만하다. 1매의 판각에 각기 반 곽씩 위태천과 지장보살도를 새겼다. 위태천은 전형적인 무장형이며, 지장보살도는 지장삼존과 6보살만을 새긴 간단한 도상이다. 이는 우리나라 전각에 봉안되는 지장보살도의 도상으로 차용되어 왔다.

이밖에도 동국대박물관은 중앙도서관, 송광사 성보박물관, 목아박물관, 불교 천태중앙박물관과 개인 등이 소장한 불교 판화작품 등 47점을 전시한다. 동국대 박물관장 정우택 교수는 "목판화는 백팔번뇌에서 벗어나 무애자재의 깨달음, 곧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깊은 불심과 숙련된 기술을 연마하기 위한 수행의 과정을 필요로 한다"며 "이번 특별전은 조선시대 판본경전 특히 변상도를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최초의 기회로, 판본변상도의 시기적 변화는 물론 개별 작품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아주 귀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며 전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혜숙 기자

BTN 생방송 '보시' 100회 특집 맞아

11월 26일 특집 생방송


BTN생방송 '보시'(연출 류건욱 • 박동건PD)는 2013년 첫방송 이후 100회를 맞았다.

BTN생방송 '보시'(연출 류건욱 · 박동건PD)가 11월 26일 100회를 맞아 특집 생방송을 진행했다. 불교사회복지 활동 소개, 기부문화 대중화, 재능보시활동 가능성 발견 등을 위해 기획된 프로젝트 프로그램 '보시'는 2013년 1월 2일 첫 방송 이후부터 매주 오후 2시 생방송으로 시청자들을 찾아왔다.

매회마다 어린이, 장애인, 사회 취약계층 등의 사연을 소개하고, 응원문자(#1252)와 보시후원계좌를 통해 지금까지 약 3억 원을 모금했으며, 86명의 소외 이웃을 지원했다. 모금된 후원금은 의료비, 주거환경 개선비, 생활비, 장학금 등으로 지원됐다.

100회 특집에서는 지난 2년 간 출연자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다섯 가정의 최근 모습이 소개됐다. 2014년 2월 5일 '네 가족 생계를 홀로 책임지는 필리핀 엄마. 미나 씨' 사연은 방송 당시, 시청자들의 눈시울을 적셨다. 14년전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시집 온 미나 씨는 빠듯한 살림이었지만 두 딸을 낳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던 중, 3년 전 남편의 당뇨가 시작되면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아픈 남편을 대신해 자활사업단에서 도시락을 만드는 미나 씨의 한달 월급은 고작 65만원. 그러다보니 월세를 2년 동안 내지 못해 네 식구가 길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안타까운 사연이 방송돼 시청자들의 눈시울을 적셨다. 10개월이 지난 지금, 미나 씨 가족은 보시 후원금의 도움으로 방 3칸 짜리 집으로 이사해 밝은 웃음을 되찾았다고 한다.


출연자에게 보시금을 전달하는 제작진

기부문화 대중화 위해 첫 방송

응원문자와 보시후원계좌 통해

총 3억원 모금 소외계층 지원

이와 함께 라오스에 봉사활동을 갔다가 불의의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파라미타 청소년 연합회 사무국장 조한곤 씨, 냉난방이 되지 않는 비닐하우스에서 살며 지적 장애 딸까지 돌보는 이용필 씨 등의 주인공들을 다시 만나본다.

사연만큼이나 후원 에피소드도 다양하다.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으며 힘겹게 살면서도 수급비의 일부를 보시해주었던 후원자가 있었는가 하면, 서문사 무공 스님은 신도들과 쌀 100포대와 라면을, 명덕사 우정 스님과 신도들은 소외된 이웃들의 주거지 개선을 위해 힘을 모았다.

'보시' 담당 PD 류건욱 제작국 부국장은 "매주 TV로 사연을 소개하고 생방송을 진행 한다는 부담도 있지만, 100회를 맞고 보니 그만큼 보람된 순간도 많았다. 그리고 100회까지 진행하면서 소외된 이웃과 함께 아파하며 '보시'에 동참해주셨던 스님과 불자님들에게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소외된 이웃을 위해 먼저 다가가 손을 잡아주는 부처님 품안 같은 더욱 따뜻한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노력 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세상을 밝히는 노래 만들고 싶어요"

BBS찬불동요제 대상 수상한 이재성 작곡가



불교방송(사장 이채원)이 주최하는 '제5회 어린이 · 청소년 창작 찬불 동요제'에서 일곱빛깔 중창단의 '산사로 오세요'(작곡 이재성 · 작사 배정순)가 대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 곡을 작곡한 이재성〈사진〉 씨(서울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교사 · 41)는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며 틈틈이 동요를 작곡해 다양한 수상경력을 가진 실력파 작곡가다.

이번 대상 수상곡 '산사로 오세요'는 풍성한 자연이 함께하는 산사로 오라는 내용을 밝고 경쾌하게 담아냈다. "2012년에는 '부처님께 가는 길'로 인기상을 받았는데 이번에 대상을 받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춘천교대 재학 시절 음악교육을 전공했고 현재는 수원대 일반대학원 합창지휘과에 진학해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불교 집안에서 자라 늘 산사에 가는 걸 좋아하는데 이번 곡은 그런 느낌을 살려 좋은 결과를 낳은 것 같습니다."

독실한 불교 신자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늘 불교문화 속에서 생활해온 이 씨는 불심의 마음을 담아 이번 곡을 작곡했다. 이 씨가 최초 작곡한 곡이 바로 우리는 선우 청년부에서 활동하며 만든 캠프송이었다고 하니 불교는 그의 음악 세계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경남 MBC 고향의 봄 창작동요제에서 '어린이 세상'으로 은상을, 울산 MBC 서덕출 창작동요제에서 '행복한 우리 가족'으로 금상을 수상하는 등 다수의 동요제에서 수상한 바 있는 이 씨는 "앞으로도 행복을 전하는 노래로 세상을 밝히는 작곡가"가 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이 씨는 현재, 서울초중등컴퓨터음악교육연구회 회장, 한국동요작곡가협회 운영위원, 한국동요문화협회 회원, 한국서정작가협회 회원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찬불 동요제 실황은 BBS 라디오(12월 5일 오후 4시)와 TV(12월 11일 오후 2시)를 통해 방송되며 입상작들은 방송 콘텐츠로 방송을 통해 널리 보급될 예정이다.

정혜숙 기자

'빛으로 통하다' 연등회 장엄전

11월 25일~12월 4일

연등회(중요무형문화재 제122호)는 11월 25일~12월 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에서 '빛으로 통하다 -연등회장엄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는 현재열 작가가 한지와 대나무를 이용해 재현한 악기등과 연등회 장엄 도감 정명 스님의 천연염색 초롱등이 함께 전시된다. 악기등은 부처님을 찬탄하는 등으로 주악천인이 들고 있는 등이다. 비파등, 동발등, 북등, 생황등, 세요고등, 아쟁등, 태평소등, 해금등 8가지 악기는 내소사 대웅전 천정 단청의 전통악기문양을 모티브로 제작했다.


부처님을 찬탄하는 악기등

초롱등은 보문동 미타사의 노스님으로부터 기증받아 불교중앙박물관에 보관 중인 50여년 된 종이가 사용돼 눈길을 끈다. 여기에 연등회장엄 도감 정명 스님이 천연염색재를 물 들여 제작 주목된다. (02)2011-1745

정혜숙 기자

정윤영 개인전 '안에-있음'

정윤영(27) 작가의 개인전 '안에-있음'이 12월 4일까지 강남구 삼성동 갤러리 마하에서 열린다.

정 씨는 이번 전시에서 고려불화의 채색 기법인 '배채법(背彩法)'과 순수서양화 방식을 접목시킨 회화 30여 점을 선보인다.

작가는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경험한 투병생활과 기억이 담긴 상흔에 대한 이야기를 수예적인 필선과 문양 그리고 겹겹이 배접된 비단에 배어든 화사한 색감의 꽃을 통해 그려낸다. 정윤영 작가는 동국대에서 불교미술을 공부했으며 국민대대학원에서 서양회화를 공부하고 있으며 현재 핑크붓다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548-0547 정혜숙 기자

약사선원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손비법

석정수 스님은 약사여래 부처님 가피를 통해 환부에 있는 병마를 직접 손으로 뽑아버리는 신비의 약손을 가진 스님입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불자님들의 건강상담은 물론 전생업장소멸. 사업성취 등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온갖 질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약수선원에서 하는 일

1. 수행하시는 스님들께 약차보시 및 건강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2. 노숙자. 장애자들에게 대중공양(주먹밥)을 하고 있습니다.
3. 우울증, 수면장애, 신경통, 위장병, 요통, 당뇨, 고혈압, 견비통, 중풍, 부인병, 갑상선 등 상담을 통해 병을 치유시켜 드립니다.
4. 육신의 병, 정신의 병, 잡신의 병, 귀신의 병 등 각종 빙의로 고통받는 분들의 수행도량



상담전화 : 010-2766-7677 약사선원 경기 양주시 장흥면 부곡1리 58번지

고흥 해수관음상 영운사 모연문

귀의삼보하옵고,

동북아 '우주항공허부' 전남 고흥군 대서면에 자리한 해련산 신선대 **영운사 해수관음상**은 서방정토. 서해바다에 '용궁 .용왕. 방생' 기도도량으로, 불자들이 경건하 예배하고, 소원을 빌면 **32응신**을 나투시어 모든 일이 잘 성취되는 영험기도 도량입니다.

금번 영운사에서 **대웅전 법당 건립**의 어려움으로 **기와 불사**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지금도 아픔과 고통속에 헤매는 중생들에게, 누구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으며,누구나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진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모든 불자님들께서 정성껏 공양을 올려, 정법실현을 위한 서원을 세우시고, 고통에서 벗어나 희망의 삶을 이루는 공덕을 쌓으시기를 기원합니다.

– 영운사 주지 혜양 합장 –





불사 동참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드립니다.
농협 351-0311-0956-53 (영운사)
(동참하신 분은 **010-2614-8730**으로 전화부탁 드립니다)

● 주 소 : 전남 고흥군 대서면 안남리 752-1 (영운사 주지 혜양 010-2614-8730)



서양음악과의 접목 시도…
불교음악 수준 한 단계 높여

문화人 오느름 민족음악관현악단 단장 김회경 작곡가

"한국불교음악이 발전하려면 제도적 개선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찰 지휘자들은 월 최저임금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급여를 받는 등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죠. 스님들부터 인식을 바꿔 사찰법회를 현대화하고 음악인재를 양성해 불교음악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불교음악이 살아나고 사찰법회가 활성화되면 불교가 일반인들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을 겁니다."

작곡가 김회경 씨는 불교음악 발전을 위해 사찰부터 변해야 한다며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불교음악의 중심에서 불심을 담아 음악을 만들고 알려온 작곡가 김회경 씨. 스스로 주인 되는 삶을 살겠다는 원을 세우고 음성공양으로 세상을 밝히고 있는 찬불작곡가 김회경 씨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김 씨는 교성곡 '혜초' '지장경' '회당' '아! 원효' 등은 물론 '연꽃 피어 오르리' '제행무상' '구름 걷힌 달처럼' '보리심' 등 수많은 찬불가를 작곡하며 한국불교 음악을 이끌어왔다. 중앙대서 서양음악을 전공했지만 국악과 수업을 도강할 정도로 우리 소리에 매료돼 이후 한국음악학과 대학원에 진학하며 그의 음악세계는 한층 풍성해졌다.

"어렸을 적에 어머니를 졸라 동네 굿 구경을 나가면 굿가락에 도취되어 밤을 샐 정도였죠. 아마 제 정서 속에 본능적으로 우리 음악에 대한 열망이 숨어 있었던 거 같아요. 대학 시절에는 서양작곡을 전공하면서도 국악과 수업을 도강했어요. 당시 지휘자 박범훈 교수님(前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일본 유학을 마치고 국악과 교수로 막 부임할 즈음이었죠. 이후 대학원을

교성곡 등 다수 찬불가 작곡
1992년 조계사서 합창 지휘 시작
'아! 원효' … 동국대 행사서 발표
11월 27일 대구서 '회당' 연주

한국음악과로 진학하게 되면서 박 교수님과는 각별한 스승과 제자 사이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후 그는 서울음악제 당선, 난파음악제 최우수상, 동아음악콩쿠르 입상, KBS 서울국악대경연 창작부문 입상 등을 통해 음악적 실력을 인정받게 된다. 오느름 민족음악관현악단 창단, 문화복지연대 공동대표를 역임하는 것은 물론, 1992년 조계사어머니합창단 지휘를 시작으로 불광사 합창단 지휘, 조계사 음악감독 등을 맡으며 불교계 합창단과도 꾸준히 인연을 맺고 있다.

최근에는 교성곡 '아! 원효'를 작곡, 그 중 일부를 11월 4일 동국대 한국음악과 개설 20주년, 개교 108주년 기념음악회에서 초연한 바 있다.

이번 작품은 원효의 교리적 가르침은 물론 드라마틱한 부분들을 재구성해 교성곡으로 완성했다. 김 씨는 이번 음악회를 계기로 동국대 한국음악과의 위상에 대해 다시 한번 재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며 간곡한 바람을 전했다.

"동국대 한국음악과는 불교음악이라는 특수한 장르를 보편화시켜 대중들에게 알릴 수 있는 강한 장점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학과가 경주캠퍼스에 배치돼 있어 중앙과의 소통이 힘들어요. 게다가 한동안은 폐과 위기까지 겪는 등 동국대 내에서도 소외받는 학과로 취급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국대 한국음악과는 종립대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과로 꼭 존재해야 하며 서울로 올라와 남산의 국립극장과 충무로와 연계해 불교음악을 부흥시키는 중심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 씨는 동국대와 불교계가 이런 점을 잘 인식해 불교음악으로 불교정신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의 행보는 여전히 바쁘다. 최근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자비나눔 힐링콘서트 '더나눔' 공연을 끝냈고 오는 11월 27일에는 대구 수성 아트피아에서 2014 대구 심인문화제의 일환으로 '교성곡 회당'을 공연한다. 그가 직접 작곡한 교성곡 '회당'은 2002년 서울국립극장에서 초연한 이후 두 번째로 대중에게 선보이는데 직접 지휘도 맡을 예정이다. 또한 내년 1월에는 전국합창단연합회와 함께하는 부처님 8대 성지 음성공양 순례도 계획하고 있다. 정혜숙 기자



최근 공연을 마친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자비나눔 힐링콘서트 '더 나눔'의 지휘 모습.

중생 분별 초월한 해탈의 경계

임연태 시인 山寺에 깃든 선비의 詩心
㊻ 장성 백양사 (下)





단풍이 절정에 이른 백양사 경내의 모습이 아름답다.

백양사와 쌍계루는 고려 이후 호남 최고의 명승지로 자리하고 있다. 이색과 정도전이 쓴 기문과 정몽주가 지은 시가 그 근간을 형성했다. 후대의 시인들이 정몽주의 운자를 빌어 시정을 드러내고, 이색의 기문을 칭송하여 절과 누각의 승경을 찬탄한 것이다.

연좌청루공하승(宴坐淸樓共夏僧)
산중승사설유능(山中勝事說猶能)
위이간곡회의단(湊 {{委}}{{委}}{{曲}}回疑斷)
초체봉만난약증(沼 遞峯巒亂若增)
암백각혐운투색(巖白却嫌雲 {{奪}}色)
월명환여수구징(月明還與水俱澄)
배회사진인간몽(徘徊謝盡人間夢)
만장단제의일등(萬丈丹梯擬一登)
-송순

쌍계루 연회에 여름날 스님과 함께하니
산중의 즐거운 일이야기 끝없다오.
구불구불 산골 물끊어졌나 의심 속에
먼 봉우리는 어지러워 새로 솟은 것인가.
흰 바위는 구름을 혐의하여 질투하고
밝은 달은 물과 함께 맑음을 다함이라.
배회함에 인간의 꿈을 다 하노니
만길 위 신선세상으로 한 계단 오르는 듯.

면앙정({{仰}}亭) 송순(宋純 1493~1583)의 이 시는 〈백암사쌍계루〉인데 《면앙집》 제3권에 수록되어 있다. 잘 알려진 대로 송순은 조선 중기 호남 시단의 거봉이었다. 그가 태어나고 활동한 지역이 오늘날의 담양인데 장성과는 가까운 거리다. 그래서 백암사 스님들과도 교분이 있었을 것이다. 이 시는 여름 날 쌍계루에서 스님과 더불어 연회를 벌이고 있음을 알리면서 시작된다. 이어 산세와 구름과 달 등의 풍경으로 출세간의 영역인 백양사를 묘사하고 인간의 욕망이 사라진 신선의 세계로 와 있는 즐거움을 토로한다.

명명지지천심수(明明止止千尋水)
담담경경일말운(淡淡輕輕一抹雲)
아자무심능물물(我自無心能物物)
소삼만상자호분(昭森萬象自毫分)

밝고 밝게 멈춘 듯 고요한 천 길의 물속
담백하고 경쾌하게 한 점 구름 드리웠네.
내 무심함속에 일마다 편안하노니
밝음 속 만상이 절로 털끝처럼 갈린다오.

이정(李楨 1512~1571)의 문집 〈구암집〉제1권에 전하는 〈쌍계루〉라는 시의 경우도 쌍계루가 물속에 투영된 아름다운 풍경을 묘사하며 '무심함 속에 일마다 편안한' 경지를 노래하고 있다. 이는 신선의 경지라기보다는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의 경지다. 선불교 수행자들이 추구하는 경지가 바로 무심 속의 편암함인 것이다. 그런 경지에서는 모든 것이 스스로 '털끝처럼 갈린다' 고 했으니 중생적 분별을 초월한 해탈의 경계를 말하는 것이다.

16세기 삼당시인의 한 사람인 백광훈(白光勳 1537~1582)도 19세기의 기정진(奇正鎭 1798~1879)도 쌍계루에서 맑은 세상을 꿈꾸는 마음은 다르지 않다.

중노비석괴명승(重勞飛錫愧名僧)
라성올지백부능(懶性兀知百不能)
천리구암쌍파승(千里舊庵雙派勝)
일루신영기인증(一樓新詠幾人增)
운귀효동봉만습(雲歸曉洞峯巒濕)
로세추단수목징(露洗秋壇水木澄)
진경미궁심이숙(眞境未窮心已熟)
석란명월몽선등(石欄明月夢先登)

무딘 걸음으로 애쓰니 명승이 부끄럽고
게으른 성품이 모남에 온갖 일 미숙하네.
천리의 옛 암자는 두 물줄기에 빼어난데
한 누대의 새 글을 몇 명이나 보탰던가.
구름이 새벽동구에 개니 봉우리가 젖고
이슬이 가을 절 씻김에 물과 나무 맑다오.
진경을 다하지 못함에 마음이 타는데
돌 끝에 밝은 달이 먼저가길 꿈꾸네.

백광훈은 이 시를 성진(性眞)이라는 스님에게 주기 위해 지었다. 제목의 원문이 '차쌍계루운 증성진사(次雙溪樓韻 贈性眞師)' (〈옥봉집〉제1권)이다. 앞의 수련과 경련은 다소 냉소적인 어감이다. 그러나 잘 아는 스님에게 대놓고 칭송하는 것을 피해 '무딘 걸음' '게으른 성품' 등의 수사들을 동원하여 열심히 정진하여 불도를 이루기를 여망하는 심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미련의 구절이 그러한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분등차탑정수승(分燈借榻定誰僧)
왕사암루입몽능(往事庵樓入夢能)
황조명변쌍안합(黃鳥鳴邊雙岸合)
단풍총리일루증(丹楓叢裏一樓增)
정의설벽운두촉(正疑雪壁雲頭矗)
경득빙계월하징(更得氷溪月下澄)
인세점여료주학(人世漸如遼柱鶴)
부려비부석년등(扶藜非復昔年登)

등불과 책상 빌린 공부로 누가 스님인가
암자와 누대의 지난일이 꿈속에 훤하네.
꾀꼬리 울음 속에 양 언덕 합해지고
단풍 숲 고움에 누대 하나 더해 있다오.
눈길 벼랑인가 함에 구름 끝은 뾰족한데
다시 얼음골에 오니 달빛 받아 맑음이라.
세상이 점차 기묘함만을 숭상하나니
지팡이 짚고도 작년처럼 오르지 못하네.

전북 순창 출신의 기정진은 조선 후기 학계에 주목받을 업적을 남긴 학자다. 그가 쌍계루에 올라 정몽주의 운자를 빌어 쓴 이 시 '차쌍계루포옹운' (〈노사집〉제2권)도 다소 냉소적인 어투로 시를 열고 절과 누각의 풍경을 통해 새로운 경지로 도달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미련의 '세상이 점차 기묘함만을 숭상하나니' 라는 대목은 유학자의 시각에서 불교나 천주교를 바라보는 것으로 보인다. 기정진의 시대는 이미 20세기적 격변이 꿈틀대고 있었다. 그는 병인양요를 보고 쇄국적인 태세를 주장하는 상소를 올리기도 했다. 이 상소가 후의 위정척사(衛正斥邪) 사상의 이론적 기초가 되었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 죽 염 125g 40,000원
가 루 자 죽 염 230g 7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125g 4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68번째 저서 출간!
대한불교조계종 수덕사 만공 전강선사로 이어진 법맥과 해인사 용성선사로 이어진 강맥을 한 몸에 받은

신간! 바로보인 선문염송 제26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 선문염송(禪門拈頌), 전 30권중 26권 출간! 고산, 조산, 남원, 동안선사 등의 공안이 실려있다.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 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바로보인 유마경
모든 이치를 통달해 변재에 자유자재했던 유마거사의, 부처님 당대를 휩쓸었던 활구법문이다. 읽는 것만으로도 변재가 트인다는 유마경,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유마거사의 의중을 속속들이 드러낸 번역과 〈대원선사 토끼뿔〉로 이 시대의 최상승법을 제창하였다.

바른 불자가 됩시다
바른 신앙과 바른 수행의 길잡이!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현대인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명쾌한 진리의 이야기!



☎ 031-534-3373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1/12 ~ 11/18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인생수업	법륜	휴
2	백일법문(개정증보판)	성철	장경각
3	사찰의 비밀	자현	담앤북스
4	나는 그곳에서 부처님을 보았네	제1회 신행수기 공모 당선작	모과나무
5	흔적 없이 나는 새(전심법요)	수불	김영사
6	죽창수필	운서주굉	불광출판사
7	리셋	월호	마음의숲
8	닦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용화
9	깨달음 궁극인가 과정인가	정준영 외 4인	운주사
10	땅콩 스님과 애벌레 선	보현	민족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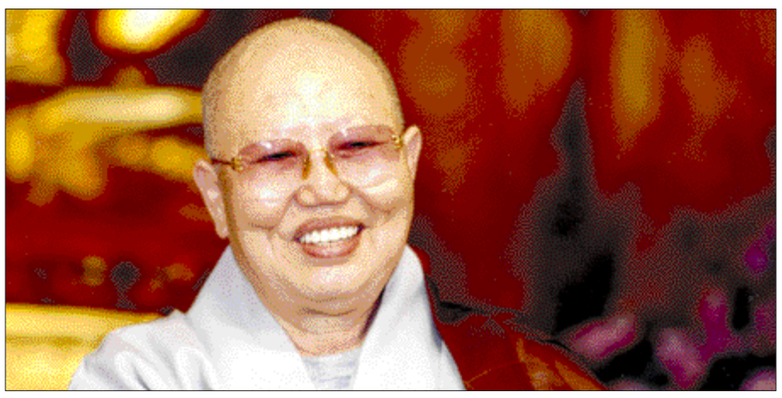
‘마음’이 하는 일, 어디까지일까



〈일체를 움직이는 그 자리 (생활 속의 참선수행 8)〉 한영합본
대행 스님 법문 | 한마음국제문화원 영문번역 한마음출판사 펴냄 | 6천원

〈한마음 한뜻이 되어 (생활 속의 참선수행 9)〉 한영합본
대행 스님 법문 | 한마음국제문화원 영문번역 한마음출판사 펴냄 | 6천원

〈내 마음은 금부처(我心是金佛)〉 중국어본
대행 스님 지음 | 仁曦 번역 한마음국제문화원 · 한마음출판사 펴냄 | 1만5천원



마음공부는 개인 차원 넘어선 ‘공부’
지구 살리는 문제에도 기여할 수 있어
근본마음은 우주 전체 움직일 수도…
삶의 길 잃은 대중에게 필요한 법문

지난 2012년 원적에 든 대행 스님〈사진〉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한마음국제문화원에서 2014년 하반기 새로운 책 3권을 출간했다. 〈생활 속의 참선수행〉 시리즈 한영합본 8, 9권과 한글본으로 출간되었던 〈내 마음은 금부처〉의 중국어본(간체자) 〈아심시금불(我心是金佛)〉이다.

〈생활 속의 참선 수행〉 시리즈는 현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선지식 중 한분인 대행 스님이 법회 때 설한 법문을 영역하여 한글 원문과 합본으로 구성한 책이다. 본 시리즈는 단순히 한글과 영문을 대조하여 읽을 수 있다는 이점을 넘어, 한글로 표현된 불교적인 표현과 단어들이 영어로는 어떻게 번역되어 표현될 수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한글과 영어가 한 문단씩 병렬로 배치되어 있어 독자들은 마음공부와 영어공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자신의 것이지만, 자신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게 ‘마음’이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디까지일까. 〈생활 속의 참선수행〉 시리즈 제8권 〈일체를 움직이는 그 자리〉와 제9권 〈한마음 한뜻이 되어〉에서 대행 스님은 마음이 해낼 수 있는 일에 대해 설법한다. “마음공부는 각자의 어려움과 고통을 극복하는 개개인의 문제에만 국한되어 활용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공부는 어떤 역사적인 사건으로 인해 특정한 지역에 갇혀 있거나 묶여있는 영령들을 풀어주어 그들이 가야 할 길로 인도할 수도 있고,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지구 온난화 문제와 같은 전 지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 마음의 작용은 빛보다 더 빠른 한 찰나에 온 누리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 오존층 파괴와 같이 지구의 수명을 단축시키거나 인류를 파멸로 이끄는 자연계의 재앙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일상의 소소한 문제해결과 자연재해를 막아내는 처방전도 모두 우리의 근본마음 깊은 곳에서 일으키는 한생각에 의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 대행 스님은 강조한다.

또한 대행 스님은 우리의 근본 마음은 이 우주 전체를 움직이는 힘을 지녔으므로 오로지 내면의 뿌리인 근본 마음에 일체를 믿음으로 맡기라고 당부한다. 우리의 습과 착과 욕심을 내면의 근본 자리에 방하착하여 녹이는 작업을 하라고 말한다. 마음을 갈고 닦아 차원을 높여, 누구나 내면에 갖추고 있는 근본 마음의 위대한 권리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진화하라고 설법한다. 그 진화는 한 개인의 발전을 넘어 인류가 살아가는 터전인 지구를 한마음 한뜻으로 보존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두 권의 책은 말하고 있다.

〈我心是金佛〉은 이미 독일에서 출판되어 장기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 했으며, 일찍이 대만과 인도네시아에서도 출간되어 호평을 받은 바 있는 〈내 마음은 금부처〉의 중국어 간체자본이다.

대행 스님의 지혜와 유머가 담겨있는 33편의 법문을 모은 〈내 마음은 금부처〉는 무한한 근본마음의 에너지를 쓸 수 있는 방법을 일깨워준다. 인생길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을 때, 세상이 끝난 듯한 좌절감이 느껴질 때, 따듯한 위로의 말 한마디가 절실할 때, 그 무엇보다도 용기가 필요할 때 필요한 법문들이다. 한국불교의 지혜를 중국 불자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것이 책이 의미일 것이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불보살 지혜 담긴 ‘진언’ 한 자 한 자 따라가기

다라니(진언) 사경 1~6권

운주사 편집부 펴냄 | 각권 5천원



사경은 예로부터 수행의 한 방편으로 널리 권장되었다. 다만 옛날에는 사경 도구가 귀하고, 글자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적었기 때문에 일반 대중에게 널리 보급되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사경 수행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책 〈다라니(진언) 사경〉 시리즈는 중생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겪게 되는 일들, 인생의 크나큰 일들에 대한 발원을 담은 진언들을 모아 엮은 사경수행 공책이다.

사경이란 부처님의 말씀을 옮겨 쓰는 것으로, 기도 수행의 한 방법이다. 즉 사경은 몸과 마음을 정갈히 가다듬고 부처님의 말씀을 한 자 한 자 정성껏 옮겨 쓰는 수행 과정을 통해 불보살님의 가피를 받아 신심과 원력이 증장하고 바라는 소원이 성취되며, 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다가 목숨을 마치고 극락왕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불교에서 ‘진언’은 수행의 한 방편으로 매우 중요시 해왔는데, 진언을 반복해서 외우거나, 진언 자체를 관하는 명상을 하거나, 정성껏 받아쓰는 등의 수행을 통하여 물질적, 정신적 장애들을 극복하며, 마음을 정화하고 지혜를 얻어 궁극에는 깨달음에 도달하게 된다고 보았다. 책은 사경이란 무엇인지, 사경의 의의, 진언 사경의 공덕, 사경하는 순서 등을 함께 소개하고 있다. 공책으로 나온 〈다라니(진언) 사경〉은 독자가 한 자 한 자 채워내는 책이다. **박재완 기자**

〈다라니(진언) 사경〉 시리즈 1~6〉 구성
▲1권 〈과거세로부터 지어온 죄업을 참회하는 진언〉
참회진언, 관세음보살 참회주
▲2권 〈업장을 소멸하는 진언〉
광명진언, 관세음보살 멸업장진언, 지장보살 멸정업진언, 정삼업진언, 세제죄장진언, 보현보살멸죄주
▲3권 〈태교와 어린이를 위한 진언〉
호제동자다라니, 장수멸죄 호제동자다라니
▲4권 〈학업성취를 위한 진언〉
문수보살 오자진언, 대일여래 만족일체지진언, 관세음보살 보경수진언, 혜철수진언
▲5권 〈병고에서 벗어나기 위한 진언〉
약사여래 대진언, 약왕보살진언, 문수보살 소제병고다라니, 제일체질병다라니
▲6권 〈소원성취를 위한 진언〉
대원성취진언, 수구진언, 준제진언, 관자재보살 여의륜주

우리 불교미술 알려면 인도미술사 먼저

인도미술사

왕용 지음 | 이재연 옮김 | 다른생각 펴냄 | 6만5천원



우리나라 고대 미술을 논할 때, 불교미술이 절대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그리고 그 불교미술의 원류는 당연히 불교의 발상지인 인도다. 책은 중국인민대학 출판사에서 출간한 〈세계미술통사〉 시리즈 중 한 권인 〈인도미술〉을 완역한 것으로, 우리나라 고대 미술의 근간을 이루는 불교 미술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 고대 미술의 많은 부분이 불교미술로 채워진 것처럼 불교의 발상지인 인도의 미술 역시 불교미술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고대미술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불교미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도미술의 이해가 필수적이다.

책은 인도 문명의 초기인 기원전 약 2500년경부터 무갈 왕조가 멸망(1854)한 근대까지의 약 4500년 인도 미술 전반을 편년사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미술 분야별로는, 건축(각종 종교의 사원, 탑, 능묘, 등), 조소(불상을 비롯한 여러 종교들의 신상, 시바상, 약시상, 약샤상, 종교 고사 등 부조와 환조), 회화(벽화, 세밀화) 등 주요 미술 영역 전반을 다루고 있다.

총체적으로는 주로 인도의 종교, 철학, 미학의 시작에서 인도의 건축, 조소, 회화 등 조형예술의 풍격이 변화 발전해 온 역사를 체계적으로 서술하면서, 인도의 불교 예술과 힌두교 예술 및 이슬람 예술의 정신적 내용과 심미 특징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해 430여 컷에 달하는 많은 컬러 사진들을 수록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모두 역대 인도 예술의 대표적인 작품들이며, 대부분이 인도 현지에서 직접 촬영한 것들로, 인도 미술사에 대한 중요한 시각자료로서의 가치도 지니고 있다. 책을 통해 수많은 부조, 환조 등 조소 작품과 사원, 능묘, 스투파와 석굴 등 웅장하면서도 섬세하고 정교한 건축 작품들을 함께 만날 수 있다. 아울러 책의 뒷부분에서 비교적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소개하고 있는 인도 세밀화는 그 동안 우리에게 별로 소개되어 있지 않아 생소하면서도 참신한 경험을 선사한다. 또한 중간 중간에 독특한 인도 전통의 미학 이론도 소개하고 있다.

인도는 지리적으로 유라시아 대륙에 속해 있으면서도, 히말라야 산맥과 힌두쿠시 산맥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고립된 아대륙 성격을 띠고 있다. 그리하여 비교적 안정적으로 자신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창조하여 장기간 유지해올 수 있었다. 그러한 지리적 조건으로 인해 독특한 민간신앙이 발달했고, 이어서 힌두교, 불교, 자이나교 등 다수의 세계적인 거대 종교들도 탄생하여, 문화와 예술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또한 실크로드 상에서 유럽과 아



부처의 두상과 비천, 6C(사르나트 고고박물관)

불교미술의 원류는 발상지 인도
인도 문명 초기부터 무갈 왕조까지
4500년 인도미술 편년사적으로 서술
현지 촬영 430여 컷 컬러 사진 수록

시아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 항상 양쪽 지역과 활발하게 교역을 하거나 혹은 양쪽으로부터 잦은 침입을 받음으로써, 능동적이든 피동적이든 간에 동서 문물의 교류지 역할을 하기도 했다. 따라서 자신들의 유구한 전통 위에 새롭게 유입된 외래 요소를 융합하여 찬란한 문화를 꽃피워왔다. 책은 그러한 역사적, 정치적 맥락에서 각 시대별, 왕조별로 어떠한 예술 풍격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명쾌하게 풀어내고 있다. 아울러 주요 예술 작품들에 대한 풍부한 도판과 함께, 그것이 만들어진 역사적 내역과 주요 제원, 그에 얽힌 고사 등도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박재완 기자

국어교사인 강기혜와 다솔스님, 신문사 기자인 자운이와 혜강스님,
이들이 펼치는 사랑은 투명한 수채화 같다. 사랑이 이토록 아름답고 애절할 수 있다니!

너무도 그리웠던 그 소설!
남지심의
『솔바람 물결소리』『연꽃을 피운 돌』출간



소중한 사람에게 주고 싶은 가장 행복한 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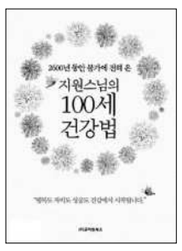
출간 기념 '서평' 이벤트
『솔바람 물결소리』『연꽃을 피운 돌』을 읽은 독자님들의 서평을 기다립니다. 선정된 분들은 '도서출판 여기곤'의 서평단이 되어 여기곤에서 출간한 모든 책을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여기곤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이벤트, 행사에도 참여하실수 있습니다.
참여방법 : 이메일 접수 batista@naver.com (이름, 연락처, 주소를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070 · 8880 · 8202

연꽃을 피운 돌 남지심 지음 | 값 13,500원 | 양장본
솔바람 물결소리 남지심 지음 | 값 13,500원 | 양장본
도서출판

현실서 나타난 모든 병, 다 마음이 설계

지원스님의 100세 건강법

지원스님 지음 | 고려원북스 펴냄 | 1만5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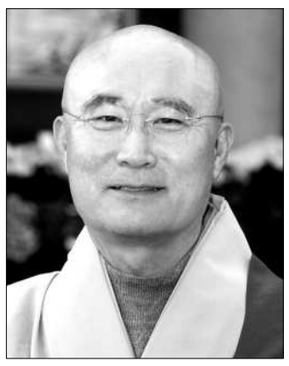
몸, 마음, 영혼이 아픈 사람 등등. 현대인들은 모두 어딘가가 아프다고 한다. 왜 아픈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기에 쓰러질 때까지 앞만 보고 달려간다. 이제 잠시 멈추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살필 때이다. 혹시 우리의 위와 장이 잠시도 쉬지 못하게 너무 많은 음식을 주지는 않은지, 건강의 기본인 숨쉬기조차 제대로 못하는 건 아닌지, 마음속에 어둠과 원망과 집착을 그대로 방치하진 않은지, 저자인 지원스님이 불교서 발췌한 건강법은 이렇게 '지켜보기' 부터 시작된다.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사진〉이 2006년 창건한 육지장사(경기 양주시 백석읍)의 템플스테이는 한 해 3000여 명이 몰릴 정도로 인기다. 다른 사찰에서는 좀처럼 하지 않는 건강을 주제로한 프로그램이다. 지원스님은 "부처님께서는 인간이 복을 짓는데 간병이 첫째라 하셨습니다."라며 "인간에게 질병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라고 건강 템플스테이를 기획한 의도를 설명했다.

저자는 스님들이 단순히 산속의 맑은 공기 속에서 살고, 육식을 하지 않아서 건강하다고만 생각하면 곤란하다고 말한다. 스님들 건강에 핵심은 소식과 단식에 익숙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책에는 단식을 처음 접하는 사람도 쉽게 할 수 있는 1박2일 단식법도 소개돼 있다. 또한 '허기' 를 극복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과 몸속에 충분한 양의 산소를 공급해주는 효과적인 호흡법도 일러준다. 이를 익히면 들이마시는 숨과 내쉬는 숨을 어떻게 조절할지 알 수 있으며, 각자 체질에 맞는 호흡법을 통해 자신의 약한 장기의 기능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이다. 숨쉬기만 잘해도 건강해지는 것이라는게 저자의 주장이다. 여기에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해주는 쑥뜸 등 온열요법까지 더해지면 더할 나위가 없다는 것이다. 몸이 따뜻해야 병에 걸리지 않고, 암도 냉증이라는 사실이 이미 과학적으로 밝혀졌다고 저자는 이 책에서 설명한다. 불가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그것을 알고 생활속에서 실천해왔다는 설명도 덧붙인다.

불교에서는 현실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다 마음이 설계한 것이라 한다. 마음이 먼저고 몸이 그 다음이란 얘기다. 마음이 먼저 늙고 몸이 늙으며, 마음이 먼저 병들고 몸이 병드는 것이다. 마음에 두려움, 원망, 집착, 분노가 가득 들어차 있으면 자연스럽게 몸의 질병으로 나타나는데, 우리는 이를 화병이라고 표현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욕심 부리고 집착하면 화낼 일도 많고 두려움도 커진다. 욕심을 버리는 순간 마음이



1박2일 단식부터 체질별 호흡법까지

마음 병들지 않는 한, 몸도 병 안들어

병의 뿌리 제거하는 명상법도 소개

편해지고 몸도 릴렉스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이완의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명상이라며 저자는 이의 중요성도 강조한다.

산중 스님들과 일반인들이 다른 것은 먹는 음식과 공기뿐만이 아니다. 스님들은 명상과 참선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닦고, 부정적 생각과 감정의 찌꺼기들을 태워버린다고 저자는 소개한다. 현대인들은 하루에 단 1분도 고요히 앉아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는데, 성냄이 싹트고 나서야 알아채고, 집착이 자신의 몸을 망가뜨린 후에야 후회하게 된다고 저자는 이 책에서 경고한다.

심리학과 정신의학에서는 수많은 실험과 과학적 데이터를 통해 몸과 마음이 하나라는 사실을 증명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부처님께서 이미 2,600년 전에 이미 말씀하신 것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마지막으로 스님은 건강을 지키는 비결로 제대로된 호흡법과 매일 10분씩 웃으라고 조언한다. 특히 호흡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지원 스님은 "책에 '살아 있다는 것은 숨이 붙어 있다는 것, 그래서 목숨이라는 말이 나왔다' 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호흡이 짧아지는데, 올바른 호흡을 하지 못하면 아무리 음식을 잘 섭취해도 소용없어요"라며 호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호흡과 웃음, 이 두 가지가 병원에 갈 필요가 없는 만병통치약이라고 지원 스님은 조언한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저자 지원스님은?

설악산 백담사서 출가했으며, 범어사 승가대 사교과를 수료했다. 1970년 통도사서 월하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료한 후, 신흥사 총무국장, 총무원 교무국장과 포교국장을 역임했다. 9대, 14대, 16대 조계종 종회위원을 지냈고, 1983년엔 삼보사를, 2006년엔 육지장사를 창건했다. 2011년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원장에 선출돼 현재까지 맡고 있으며, 2014년엔 동국대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1980년 조선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시조시인으로 등단했고, 저서로는 시집 〈장명등〉과 서간문집 〈마음이 열리면 천당도 보이지요〉등이 있다.

竹窓아래서 풀어놓은 깨달음의 알갱이

죽창

죽창수필

운서주굉 지음 | 연관 옮김 | 불광 펴냄 | 3만원



"어떤 스님이 오랫동안 폐결핵을 앓으며 자리서 신음하고 있었다. 대중들은 누구나 그가 조만간 죽을 것으로 여겼지만, 정작 본인은 전혀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다. 그래서 누가 머지않아 죽을 것이라 말하면 금방 불쾌한 기색을 보였다.

내가 시자를 보내 뒷일을 생각해 일심으로 염불할 것을 권했으나, 그는 도리어 남자 병은 생일 전을 꺼리는 법이니 그때를 지낸 후 천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더니, 그 달 열이레가 그의 생일이었는데 그날을 하루 앞두고 문득 죽고 말았다."

"요즈음, 당신의 마음뜨락은 어떠한가? 여기, 눈밝은 남자의 낡은 바릿대에 담긴 삶의 진솔함이 신선한 깨달음으로 다가온다. 염의(染衣) 안에 서린 솔바람소리가 당신의 마음문을 열어준다. 구도의 법열(法悅))이 빚어놓은 문자사리 속에서 당신은 천지(天地)와 더불어 하나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위 글은 〈죽창수필〉에 나오는 대목이다. 이 책은 자백진가 · 감산덕청 · 우익지욱 스님과 함께 명나라 4대 고승으로 꼽히는 주굉 스님의 수필집이다.

81세에 입적한 스님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보며 후학들에게 꼭 전하고픈 이야기를 죽창 아래서 붓 가는 대로 진솔하게 풀어놓았다. 스님이 살아오며 보고 느낀 소소한 경험담을 비롯해, 구습을 바로잡기 위한 비판, 수행자들에게 내리는 따끔한 경책, 일상의 깨달음이 담긴 단상 등 426편의 글이 모두 하나같이 깊은 울림을 준다. 한편 한편의 글들이 간결하면서도 명료해, 오랜 시간 가슴에 여운을 남기며 삶에 대한 고요한 성찰을 불러일으킨다.

우리나라에는 실상사 화엄학림 초대학장을 지낸 연관 스님에 의해 이 책이 1991년 처음 소개됐다. 이후 15년간 불교계 스테디셀러로 사랑받으며 현대인이 반드시 읽어야 할 소중한 고전(古典)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청정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인생의 참뜻과 지혜를 전하며 세상의 격류를 건너는 데 튼튼한 징검돌이 되었다.

고전의 샘에서 길어올린 삶의 지혜

명나라 고승 주굉의 글 426편 실어

2005년 여러 사정으로 절판돼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아쉬움을 남겼다. 하지만 그 아쉬움을 딛고 옮긴이 연관 스님에 의해 죽창수필은 다시 새롭게 태어났다. 현대인들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번역의 오류와 한문투 문장을 세심하게 다듬고 주석을 대폭 보강하였다. 보석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는 마음으로 오랜 시간 공을 들여, 그 빛나는 완성본이 탄생해 다시 세상을 밝은 지혜로 비춘다.

하마터면 이 책은 다시는 세상에 나오지 못할 뻔했다. 연관 스님은 개정판 〈죽창수필〉 역자 서(序)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나는 이렇게 들었다. 삶은 무엇입니까? 놓아버려라. 죽음은 무엇입니까? 놓아버려라. 선(善)이란 무엇입니까? 놓아버려라. 악(惡)이란 무엇입니까? 놓아버려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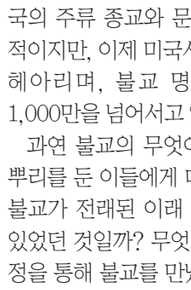
연관 스님이 원고를 USB 메모리에 저장해 출판사를 찾던 날인 지난 8월. 그날 오후 전화기를 타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스님이 주석하는 실상사 수월암에 낙뢰가 떨어져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채 전부 전소된 것이다. 이번 개정판 〈죽창수필〉은 이렇게 불길 속에서도 장엄하게 피어난 화중연화(花中蓮花)이다. 고전의 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혼돈의 시대, 이런 우여곡절끝에 이 책은 다시 10년 만에 우리 곁에 왔다. 그래서 더욱 더 소중하게 느껴진다.

김주일 기자

미국인들은 왜 동양종교인 불교에 흠뻑 매료 됐을까?

미국과 불교의 만남

토마스 A 트위드 지음 | 한창호 옮김
운주사 펴냄 | 2만원



이 책은 불교라는 동양 종교에 매료된 미국인들의 이야기다.

대다수가 그리스도교를 신봉하던 19세기의 미국이 새로운 종교인 불교를 만나 그것을 삶의 가치로 받아들이는 과정을 공동체와 문화적 흐름이라는 관점서 객관적으로 서술했다. 동 · 서양 사상이 접촉해 발생하는 긴장과 수용, 변용 과정에 대한 흥미있는 성찰을 보여준다.

얼핏 미국과 불교는 조합이 안되는 말처럼 느껴진다. 미국은 서구의 물질문명과 정신세계를 대표하는 나라지만, 불교는 그와 궤를 달리하는 동양 사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100년도 훨씬 전부터 미국의 일부 지성인들은 불교가 그리스도교와 비교해 결코 뒤지지 않는, 나아가 오히려 그리스도교의 한계를 뛰어넘는 세계적 사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후로 미국불교는 서구의 전통사상과 종교, 그리고 문화와의 부대낌 속에서 차츰차츰 뿌리 내리기 시작했다. 물론 아직까지 미국의 주류 종교와 문화는 다분히 기독교적이지만, 이제 미국서 불자는 250만명을 헤아리며, 불교 명상을 하는 이들은 1,000만을 넘어서고 있다.

과연 불교의 무엇이 서구 사상에 깊이 뿌리를 둔 이들에게 매력을 주고 있을까? 불교가 전래된 이래 미국서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무엇보다 미국은 어떤 과정을 통해 불교를 만났으며, 그 만남의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이 책은 세계 주요 종교 중 하나인 불교와 19세기 미국의 만남을 문화적 흐름과 접촉이라는 관점서 논쟁적이고도 객관적으로 서술한다.

19세기 미국의 관점서 불교의 의미를 다양하게 모색하고 해석한 노력을 추적한 이 책은, 먼저 미국에 이식된 새로운 종교운동인 동양의 불교와 외적인 아름다움과 번영을 구가하는 미국 전통의 빅토리아 문화가 만났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를 역사적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이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불교를 접한 많은 미국인들이 스스로 불교를 미국 문화의 한 갈래로 간주하지만 동시에 당시의 미국 주류의 빅토리아 문화의 일부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러다가 결국 불교가 빅토리아 시대의 열렬한 지지자들에 의해 크게 지배적 문화로 형성되는 과정을 분석적으로 서술한다.

분석을 돕기 위해 저자는 불교 신봉자와 동조자를 비교주의자, 합리론자, 낭만주의자라는 세 범주로 구성된 유형을 구축한다.

저자는 이 다양한 그룹이 미국의 가치가 구현된 구식의 빅토리아 양식에 저항하면서 앵글로-프로테스탄트 빅토리아 문화의 가설을 유행시키는 다양한 방법을 보여준다.

예컨대 일부 미국인들은 불교가 과학과 양립할 수 있고 서양 신앙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큰 관용을 보인 점 때문에 감명을 받았다. 또 붓다와 예수 사이에서 의미 있는 유사점을 발견하여 동양적 세계관의 '지적 풍경' 에 대한 공감을 표현하거나 불교와 그리스도교 둘 다에 공통되는 윤리적 차원을 지적하는 이들도 있었다. 한편, 두 신앙체계에서 '프로테스탄트적' 특질을 인정하는 이들도 있었다.

불교에 대한 이런 다양한 반응과 해석은 문화적 접촉의 복잡성을 드러낸다.

다시 말하면, 일부 미국인들이 왜 불교

불교와 빅토리아문화 역사적 서술

미국서 지배문화 형성 과정 분석

불교유행 뿌리 문화적 관점서 조명

에 매료되었는지, 그럼에도 왜 실제 신봉자 수는 얼마 되지 않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21세기가 열리자 개종자 불교가 번창하면서, 미국에서는 새롭고 훨씬 더 광범위한 불교 유행이 시작됐다. 점점 더 많은 미국인이 동양으로 돌아서면서 종교적 풍광이 바뀌었고, 학구적 유행에도 불이 붙었으며, 대중적 문화도 형성됐다.

이런 사실을 바탕에 두고 이 책은 바로 두 번째 불교 유행의 뿌리를 더듬는다. 이런 연구를 통해 왜 현대의 개종자들이 사회적으로 활동적이거나 '참여' 불교를 옹호하는지, 왜 여성들이 그렇게 많은 선 센터와 비파사나 센터를 이끄는지, 그리고 왜 오늘날 미국 불교서 평신도가 그렇게나 두드러진 역할을 하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역사에 바탕해 연구한 이 책은, 불교가 미국에 뿌리내리고 거듭해 미국사회에 널리 퍼지는 문화적 상황 속에서도 미국이 본래 지닌 서구적 가치, 즉 행동주의, 개인주의, 낙관주의가 지속되는 문화적 중요성을 그들 스스로 견지하며 재확인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인들이 불교를 자기네 것으로 만들려 시도함에 따라 불교가 새로운 형태를 띠게 되는 문화적 변용 관점서도 살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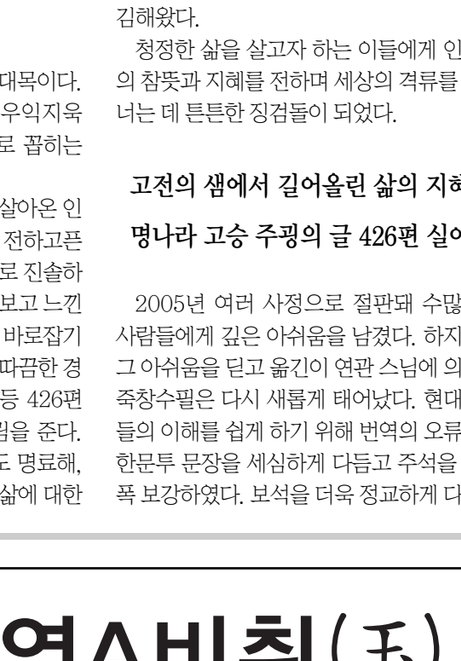
김주일 기자

박태원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비취는 세계7대 보석중의 하나이며, 중국사람들이 비취를 하늘의 돌로 생각하여 항상몸에 지녔으며, 유럽인들은 병마를 치유하는 신빈의 보석으로 여겨왔으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하여 영혼을 부활시키는 보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비취는?

- 비취 경도는 6.5 ~ 7이다.
- 비취의 유일한 산지는 미얀마(버마) 뿐이다.
- 예로부터 신비의 돌이라 불리며, 성경과 불경에 최고의 보석으로 서술되고있다. 왕위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중국의 국석이 되었다.
- 중국 명나라 이시진의〈본초강목〉, 허준선생의〈동의보감〉에도 약석으로 기록.
- 아주대 오흥국 교수팀의 실험 결과 –
  - ▶ 원적외선 방출량 94% (신진대사 원활, 혈액순환 원활, 화상치료, 저혈압 고혈압 조정, 통증완화, 뇌세포 재생)
  - ▶ 음 이 온 방출량 86% (음이온 : 세포활성화, 혈액정화, 피로회복, 자율신경안정, 면역력증가, 통증완화, 알러지 체질 개선)
  - ▶ 탈취율 90% 1시간 ▶ 항균성 85%
  - ▶ 대장균 감소율 83.6% ▶ 녹농균 감소율 86.3%
- 비취는 생리작용과 피부탄력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혈액 순환에 효과가 커서 정신을 맑게 해주면 독성을 중화하고 수면기능을 높임.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 B비취 : 수지처리 ▶ C비취 : 원석에 염색



◀보석감정서 ▲보석감별서 (앞,뒤)

◀박태원보석감정원 ☎ 1599-9231

가격
비 취 목 걸 이(진옥) 가액 ₩180,000원
비취팔찌 – 상(연옥) 가액 ₩80,000원
비취팔찌 – 중(흰옥) 가액 ₩60,000원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친환경 삼베타올선물 SET

NEW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3종 세트 27,000원
(2set 이상 주문시 배송비 무료)





햄프오일비누
1개 10,000원

무엇이 맹인 아비의 눈을 뜨게 했을까

불교로 읽는 古典

한국대표 구전 설화 〈심청전〉



이미령
불광교육원 전임강사

왜 하필 심청전인가

몇 해 전 판소리를 감상할 기회가 있었다. 단출한 무대 위에 한복을 정갈하게 갖춰 입은 소리꾼이 부채 하나를 들고, 고수의 장단에 맞춰 몇 시간에 걸쳐 작품 하나를 들려주는 시간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그때 우리가 지루하게 혹은 고루하게만 여겼던 작품들을 다시 만났다. 그중에서 판소리 심청전의 충격은 아주 컸다. 가슴이 찡해지고 콧날이 시큰해졌고, 그러다 허리가 꺾이도록 웃기도 했다. 어쩌면 소리꾼의 그 엄청난 연출력 덕분이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활자가 아닌 소리로 작품을 만났을 때 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그리고 옛 작품들은 지금 다시 읽혀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

심청전이라…. 아버지 눈을 뜨게 하려고 열다섯 살 꽃봉오리 소녀 청이 인당수에 몸을 던지고, 어찌어찌하여 다시 살아 돌아와 황후가 될 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마침내 눈을 뜬다는 사실. 이 줄거리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재론할 가치조차 없을 정도로 모두가 아는 줄거리여서 더 식상하다.

게다가 효녀 심청은 공양미 삼백 석에 제 몸을 팔아버린다. 여기에는 종교가 개입했다. 그 당시는 어땠을지 모르지만 요즘 사람들에게 공양미 삼백 석 운운하면 욕부터 듣는다. 종교는 아편이라는 그 지긋지긋한 훈계를 또 다시 들어야 한다. 그래서 심청전과 불교는 친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로 읽는 고전' 이라는 연재물에 원고청탁을 받고 심청전을 가장 먼저 생각해 낸 데에는 이유가 있다.

'효심' 이라는 판에 박은 고정관념을 걷어내 보니 심청이라는 여주인공의 입장이 아니라 어리디 어린 딸에게 의지해 살아가는 가엾기 짝이 없는 아버지의 입장이 보였기 때문이다. 베풀 수 있으면 괜찮다. 하지만 베풀 것 하나 없고 남에게 기대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 적이 있어 보았는가. 심봉사는 바로 그런 인물이었다. 그런 주제에 언감생심 기절초풍할 소망을 품었고, 그로 인해 인생의 나락까지 떨어진 인물이다. 지독한 절망에 빠진 인간의 허우적거림과 헛발길질, 심봉사의 모습이다.

그런데 심청전을 판소리로 듣거나 책으로 보면서 절대선의 경지에 오른 착한 딸보다는 못난 아버지가 더 크게 보였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모습에 이 세상을 허겁지겁 살아가는 내 주변 숱한 사람들의 모습이 겹쳐졌다.

이 작품은 어쩌면 구제불능의 지경에 처한 존재가 가까스로 턱걸이를 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 속에서 자기 인생의 난관을 헤쳐 나가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불교가 요구하는 덕목들이 떠올랐다.

절망 끝에 붙잡은 지푸라기

무엇보다 내가 심청전에 관심을 갖게 된 데에는 소설 속에 들어 있는 불교적 장치 때문다.

몽은사 화주승이 청이 아버지 심봉사와 마주치는 장면은 정말 극적이다. 어둔 밤에 귀가가 늦은 딸을 마중나간 앞 못 보는 아버지. 그런데 그만 물에 빠지고 만다. 날은 어둡지, 추위는 냉혹하지, 살려달라고 소리쳐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지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커다란 핸디캡인, 앞을 보지 못하지….

어둠과 추위와 고독과 죽음의 두려움이 그를 엄습한 절체절명의 순간. 바로 이때 혜성처럼 나타난 사람이 있었다. 몽은사 화주승이다.

그런데 얼음장 같은 강물로 뛰어들어 심봉사를 구해놓은 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무심하게 〈금강경〉이라도 읊조리며 지나가면 좋았을 터였다. 문제는 이 스님이 '떡밥' 을 던졌다는 사실이다.

"우리 절 부처님은 영험이 뛰어나서 빌면 안 되는 일이 없고, 구하면 모두 들어 주신다오. 공양미 삼백 석을 부처님께 올리고 지성으로 불공을 드리면 눈을 떠서 완전한 사람이 되어 온갖 세상을 훤하게 볼 것이오."(현암사 〈심청전〉 41쪽)

몽은사 화주승의 이 제안을 '떡밥' 이라고 표현한 것을 용서해주시길! 왜냐 하면 바로 이 '공양미 삼백석' 이, 민중의 아픈 점을 이용해서 제 배만 불린다며 종교가 욕을 먹을 때 (소설이라는 허구임에도 불구하고) 불교 측의 불리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 불교는 원래 그렇지 않은데"라며 아무리 해명하려 해도 소용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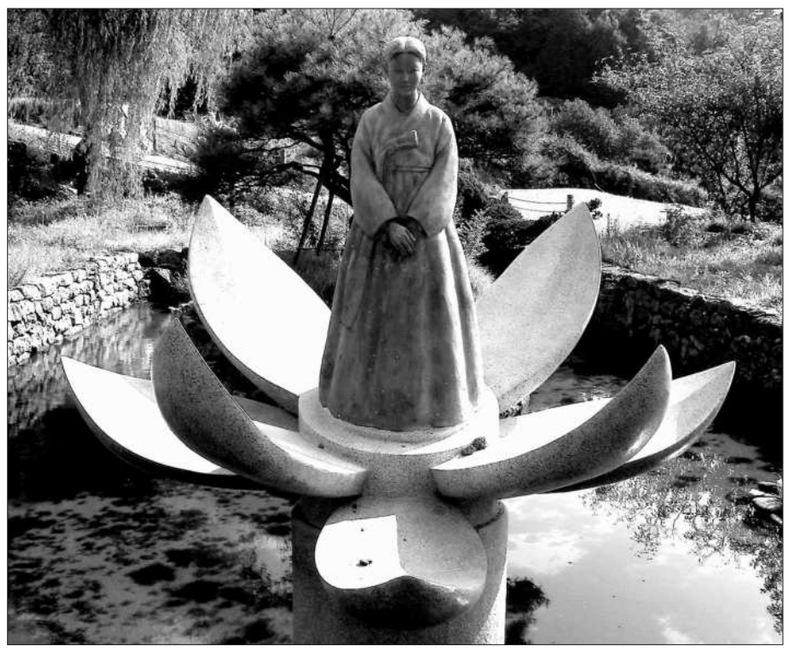
게다가 그 화주승의 이어지는 태도도 의뭉스럽다. 떡밥을 덥석 문 심봉사에게 그는 이렇게까지 말하기 때문이다.

"여보시오. 댁의 가세를 살펴보니 끼니도 잇기 어려운 처진데 삼백 석을 무슨 수로 마련한단 말이오?"

그러지 않아도 자신의 가장 비참한 모습을 고스란히 들킨 심봉사가 아닌가. 화주승의 이 말은 밟힌 지렁이가 얼마나 자존심을 내세울 수 있는지 그 시험대가 되었다. 심봉사는 눈에 뵈는 게 없어졌다. 그는 맹렬한 결기로 이렇게 장담하고 만다.

"여보시오. 어느 쇠아들 놈이 부처님께 적어 놓고 빈말하겠소. 눈뜨려다가 앉은뱅이 되게요. 사람 말을 업수이 여기시오? 염려 말고 적으시오."

아아, 심봉사여! 어쩔 셈인가! 아무리 이판사판이라는 심정으로 확 저질렀다지만 부처님과의 약속은 조금 신중했어야만 했다. 하지만 이미 저질러진 일이요, 엎어진 물이다. 화주승은 시주책을 바랑에 넣고 떠나갔다.



곡성군에 조성된 심청이야기 마을의 심청의 동상. 심청의 지극한 발원과 효심이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한 원동력이었다.

지독한 절망에서 허우적대는
심봉사는 우리와 다르지 않아
화주승의 무리한 시주 권유에도
심청은 낙담않고 서원을 세워

원망·잡념없는 一心의 발원이
심봉사의 눈을 뜨게 한 동력

청이는 왜 반겼을까

착한 딸 청이가 한발 늦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야 집에 돌아왔다. 그런데 그녀의 반응이 놀랍다. 아버지에게서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놀라지도 화를 내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반기며 아버지를 달래기까지 한다.

"아버지, 걱정 마시고 진지나 잡수세요. 후회하시면 진심이 못 되십니다. 아버지 어두운 눈을 떠서 밝은 세상을 보신다면 공양미 삼백 석을 어떻게든 준비하여 몽은사로 올리겠습니다."(현암사 〈심청전〉 44쪽)

그리고 그녀는 그날부터 정한수를 떠놓고 지성으로 빌기 시작한다. 이 대목에서 나는 첫 번째 궁금증이 들었다. 뭐지, 청이의 이런 태도는?

아버지의 대책 없는 태도에 화를 내지도 않았다. 가난한 집안 사정에 절망하거나 실망하지도 않았고, 화주승의 무모한 권선에 분노하지도 않았다. 심봉사는 전생에 얼마나 나라를 많이 구했기에 이런 딸을 둘 수 있었을까?

하지만 이 대목에서 이런 상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동안 청이는 죽을 때까지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아야 하는 아버지의 팔자소관에 가슴이 아팠을 것이다. 그런 팔자를 타고 태어났다는 자괴감에 짓눌린 아버지를 모시는 일이 무척 힘들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는 눈을 뜨고 싶다는 의지를 일으켰다. 청이는 그게 반가웠으리라. 아버지가 소망을 품었다는 사실, 절망의 어둠을 기어 다니던 존재가 실낱같은 희망을 품었다는 사실, 좀 더 나은 삶을 살겠다는 의지를 일으켰다는 사실이 기뻤던 것이리라.

이제 청이와 그 아버지에게는 눈을 뜨겠다는 '원(바람)' 이 생긴 것이다. 원(願)을 품은 삶과 원이 없는 삶은 그 빛깔이 다르다. 그리고 원을 품은 사람은 안다. 그게 그냥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원을 품은 사람은 맹세를 한다.

"모쪼록 이 바람이 이뤄지게만 된다면 뭐라도 하겠습니다."

맹세(誓)는 원(願)과 늘 짝을 이루며 다닌다. 그래서 불교에는 '서원(誓願)' 이라는 말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자신의 원에 겁을 집어먹은 심봉사가 지레 낙담을 하고 만 반면 청이는 맹세를 한다.

"아비 허물을 내 몸으로 대신 하옵고 아비 눈을 밝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몸을 팔아서라도 아버지 눈을 뜰 공양미 삼백석을 마련하겠습니다."

맹세를 얼마나 충실하게 지켜내느냐는 원이 이루어지느냐 아니냐가 달린 문제다. 어쩌면 맹세한 내용을 하루하루 지켜가는 과정이 원을 이루는 과정일 수도 있다. 그렇게 어린 딸과 눈먼 아비는 하루하루 원을 이루는 그 지점을 향해 나아갔다.

부처님 영험을 믿지 못한 청이

소설이야 극적일수록 대중의 반응이 큰 법이다. 하여, 청이가 산 채로 인당수에 빠진다는 설정까지 끌어댔다. 하지만 청이는 옥황상제의 배려로 결국 살아서 꽃봉오리에 실린 채 자기 나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고, 그리하여 황후가 되었다. 그런데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면서도 청이 가슴에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점점 커져갔다.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맹인잔치를 열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도 문득 고개가 갸웃! 두 번째 궁금증이 도졌다. 청이는 자신의 몸을 팔아서 마련한 공양미 삼백석의 효능을, 결국 몽은사 부처님의 영험을 믿지 못했다는 말일까? 신심이 도타웠다면 자기희생으로 아버지가 눈을 뜨셨으리라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하거늘 그녀는 아버지가 눈을 뜨지 못했다는 전제 아래 전국의 모든 봉사들을 황성으로 불러 모은다.

청이가 그랬듯이 사람들은 부처님 전에 빌어도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힘없고 빽 없는 이들은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부처님에게 기댄다. 민초들은 빌기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지만 빌기라도 해본다. 그래야 사바세계를 살아낼 숨이라도 쉴 수 있기 때문이다. 관세음보살님이, 지장보살님이, 아미타부처님이 괜히 계시겠는가. 이분들은 중생의 마지막 보루다. 몽은사 부처님도 그런 분이셨다.

황후 청이는 노심초사한다. 그리고 아버지가 눈을 뜨셨건 뜨지 못하셨건(이쪽 생각이 더 강하다) 상관없다는 생각을 한다. 오히려 가까이서 모시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줄 참이었다. 자신과 한 마디 의논도 없이 공양미 삼백 석을 덜커덕 약속한 아버지에 대한 원망 같은 것은 처음부터 없었다.

보겠다는 그 간절한 바람으로

청이의 간절한 바람이 이루어졌다. 그 사이 늙고 쇠약해져버린 아버지가 찾아온 것이다. 그 동안 심봉사는 얼마나 고생이 심했던가. 딸이 팔려가면서 마련한 재산은 뺑덕어멈이 홀랑 날려버렸고, 살던 고향을 떠나 떠돌이 신세가 되었으니 말이다. 앞을 보고 싶다며 몽은사 화주승에게 한 약속이 얼마나 야속했을까. 그냥 그대로 만족하며 살 것을 어쩌자고 눈을 뜨겠다는 원을 품었단 말인지….

그런데 죽은 줄로만 알았던 딸의 목소리가 쟁쟁하게 들려오는 것이다. 심봉사는 얼마나 놀랐을까. 그리고 얼마나 확인하고 싶었을까. 정말 내 딸이 맞는지, 손에 잡히지 않는 소리는 그만두고라도 손에 만져지는 이목구비를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졌을 것이다.

보자. 어디 한 번 보자.
나 때문에 죽었던 청이가 눈앞에 있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내 딸 청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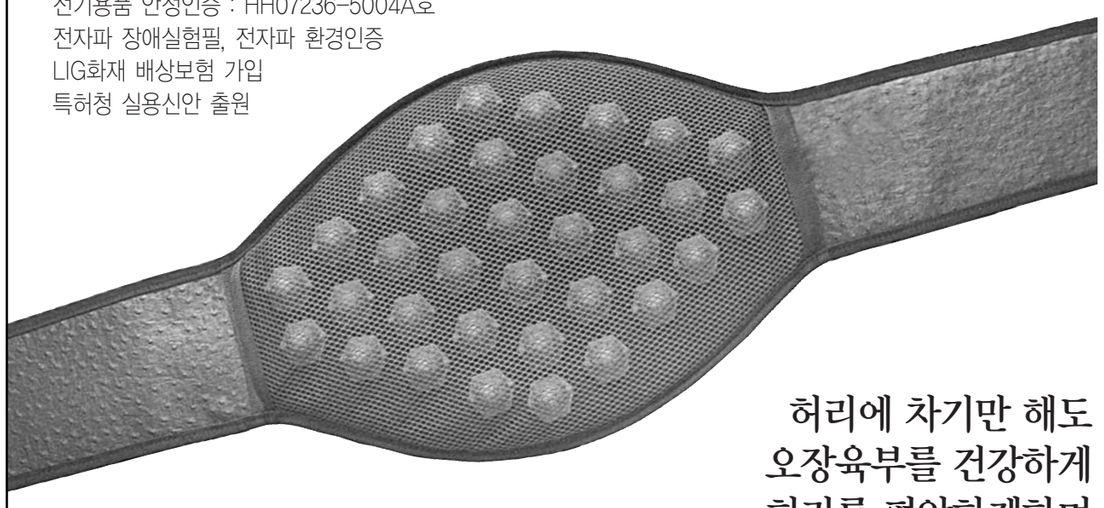
심봉사 인생에서 이 순간보다 더 간절히 눈을 뜨고 싶었던 때가 있을까? 몽은사 화주승에게 공양미 삼백 석을 약속할 때는 자신의 처지에 너무나 낙담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심봉사 심정은 그때와는 달랐다. 자신을 위해 목숨까지 내 던진 딸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는 심정이다. 원망도, 낙담도 섞이지 않은, 오직 내 딸이 보고 싶다는 그 지독한 원이 심장에 차오르고 목울대를 넘어서서 결국 번쩍하고 두 눈을 열었던 것이다.

심봉사의 눈을 뜨게 한 것은 무엇일까?

몽은사 부처님과의 약속이 있었고 외동딸 청이의 효성이 절대적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그의 눈을 뜨게 하지는 못했다. 이 외부적인 원인은 그로 하여금 '보고 싶다' 는, 지금까지 품어본 적이 없는 강력한 원을 품게 했다. 제 몸을 희생하면서까지 자신을 살리려한 딸에 대한 고마운 마음과, 자신은 비록 눈 뜨는데 실패했지만 이렇게 버젓하게 살아 있어줘서 고맙다는 그 기꺼운 마음, 바로 그것이 그의 눈을 띄어준 것은 아닐까.

원(願)을 품으라고 불교에서는 말한다. 원을 품어야 보살이고, 원을 품어야 부처가 될 수 있다. 성불은 원에서 시작한다. 그렇기 때문에 법장비구는 48가지 원을 품어서 아미타부처님이 되었고, 약사여래는 10대원을, 승만부인도 10대원을 품었다.

그런데 그 원에는 누군가를 향한 원망이나 분노, 비난이 들어 있어서는 안 된다.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관이나 낙담이 서려 있어서도 안 된다. 네가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다는 그 마음, 청이를 향한 눈먼 아비의 그 지극하게 느껴운 마음의 원이어야 한다. 그런 마음을 품을 때 범부는 처음으로 나 아닌 타인의 존재를 확인하게 될 것이요, 그 사랑의 관계를 알아차린 그의 활짝 뜬 눈 앞에는 중중무진의 법계가 펼쳐져 있으리라.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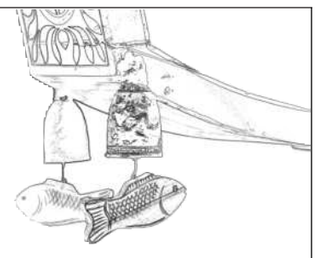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5×4.5) 4만원, 1Box (9×4.5)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수보리여, 여래는 참답게 말하는 자이며, 진실을 말하는 자이며, 진여(眞如)를 말하는 자이며, 속이지 않는 말을 하는 자이며, 사실과 다른 말을 하지 않는 자이다

- 금강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다음」에서 대명스님을 치세요!
대명 합장 (부산 · 밀양)

물상 역학 비법전수
일주일만 배워도 상담가능
사찰운영에 필요한 모든 방편전수
스님되실분, 사찰운영하시는 분
-사주, 궁합, 이사, 택일, 작명
※조상영가 배워 천도재 할 수 있음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 일 단 기
이론실기 현장실습
* 출장 탐사
* 개인사업자 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영남범음의 그윽한 소리
로 염불, 집전 해 드립니다
사찰 각종 제 및 행사
출가 희망자, 초보자 개인지도
영남소리, 사물, 바라,
작법 무료전수
055)744-5300
010-5243-3587
경남 진주 여여암 법일 합장

허리병 고치는 법
저서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출원
아픈분 및 배울분은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네이버 허리선생 혜경
50년전통 010-3829-7582

백발백중 귀장술
쉽게 보는 회전원판
네이버 · 다음에서
「귀장술 원판」 검색
※ 특허 : 30-0721929
수강생 모집
010-8558-2345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거지달마와 인연을
소승은 시각장애자 71세
무소유 초대종정 대종사입니다
남은 여생 암자 있을 자리를
마련해 주실분을 찾습니다
010-9003-7783

영 통 철 학
(1개월 완성)
-바로 상담가능
-고승 비급전수
동국대 대학원졸(석사)
정광 합장
010-2586-7938

야 콘 판 매
당도와 맛 우수함
사찰음식과 건강식품
활용 용이함
5kg, 10kg 쥬스
011-9503-4848

인도 다람살라에 계시는
달라이라마(성하님) 친견 및
수계 받으실 분을 모십니다
네팔 룸비니와
인도 사대성지 순례포함
스님과 재가불자님
* 네팔 카투만두 타멜에
한국식당 및 호텔 하실 분을
찾습니다
자호스님 010-6267-3435

범음범패 학인모집
범음,범패,바라,나비춤,
천도재,49재,점안식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방편술 : 단기완성, 무공역학,
최면, 성명학
무상합장 : 010-4611-3738
정봉합장 : 010-3283-3658

비법 실전 사주
- 격국,용신을 뛰어넘는 쉬운 통변법
- 장애 및 조상음덕을 찾아
(빙의, 산소탈 등등) 천도재 등
각종 재로 이끄는 비법 및 방편법
* 3개월 후 새로운 비법에
눈뜨게 됩니다.
032-515-5922 (출장강의 가능)
(별도 : 빙의 퇴마법 강의)

기적의 자연전인치유
묘심기공(妙心氣功) 수련생 모집
의료 치료 기공사 과정. 손빛 氣 치료
기공 수련을 수년간 했어도
체계적인 정리가 안된분 환영
네이버까페: 묘심기공.
다음까페 : 일묘심 약사선원
전화: 02-766-1296 / 010-4611-1296
일묘심 약사선원
1호선 신설동역11번출구직진100m kt 맞은편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도)
010-3770-5313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포항)
054-286-1182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수원시내)
031)253-8300
010-6604-9027

부전스님 모십니다
(경남 거제시)
010-5579-0404

수도 서울에서 새로운
도전으로 포교에 열정이
살아 숨쉬는 40대, 50대
주지스님과 부전스님을
모시고자 하옵니다
02)552-4000

기문강의 안내
기문학은 명리를 모르는 초보자라도 배울 수 있는 아주 높은 학문입니다. 학생이 뭣때문에 공부가 안되나 시험운과 학과,학교명,과목,차후직업 등 사업자 왜 사업이 잘 안되는지, 사업자 사주와 공무원,직장인 사주를 명확히 알 수 있으며 혼인,상조,이사,출행, 단시점을 확실히 알 수 있는게 기문입니다.
꼭 배우실 분만 전화주세요.
스님직접 강의 5개월 완성
부산 010-3544-9777. 051-721-6444

철학관, 작명소 영업할분
(명리학) 신살육신법,격국용신법,
횡사예방법,영가길흉법
- 점사:육임,육호,기문,귀장,
당사주활용법
(성명학) 작명,개명,상호,신생아
- 한글,한문,영어작명법,싸인
감정법(특강:관상학,수상학)
*고승,명사 쪽집게 통변개인전수함
010-5564-2488

원하는 대로 이루는 기도
• 특수하고 또 특수한 기도법을 스님께 확실하게 일러드립니다
• 서울 지하철 1호선 부천역 소명 4거리 3층 백선사 대주스님
☎ 032)664-0048 / 011-741-0867

명상 기초부터 지도자과정 안내
1 무료 명상 체험하기 (서울,광주,파주)
2 붓다의 가피명상 기본과정 & 지도자과정
3 태교명상 & 좋은 부모 되는 예술
4 가족세우기, 강력한 삶의 변화
성공 풍요,건강,관계개선, 최상의 깨달음 코스
니르바나 혜산스님 010-4114-6600

천 기 누 설
누구나,
사주를 바꾸는
기도법을 특별 전수합니다
약천암 회주 현오 합장 010-9229-3801

진본 태을신수 기문둔갑
번역본 최초 출간
천문지리 통달의 신기술수!
추길피흉의 역학도 필독서!
문의 : 부산 010-2507-1042
편저자 스님 직강 : 명리, 기문둔갑, 태을신수
•기초반 : 왕초보자, 수강 즉시 상담 가능
•실전반 : 사찰, 철학관, 상담운영하실 분
(조상영가 찾는 천도재비법 전수)
사업,취업,진학,전공,결혼,건강,빙의 등

여자 상좌를 구합니다
보연암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 79번지)
* 사찰에 거주 (주 · 야간)
하실 분
010-8920-5663
031-848-0663
011-888-2727

천비록 天秘錄 (하늘 · 땅 · 사람의 비밀)
도서출판 대도대한 펴냄 / 값 15,000원 / 전화 063)643-7285
이 땅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 잘못 알려진 신(神)들의 역사를 밝혔으며,
신(神)들로 인해 사람들이 많은 영향을 받아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해결 방안을 밝혔으며,
바른 신앙과 도를 찾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바른 신앙과 도의 길을 밝혀 놓았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 다 신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그 누구라 해도 신과의 연결에서 벗어날 수는 없으며, 지금은 자신을 지배하는 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와, 패배하는 이로 나뉘는 시대임을 밝히고 있다.
(판매서점 :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리브로, 알라딘, 예스24 등)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예비수행승(행자)모집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대학, 강원, 기본선원)뒷바라지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근절, 산중사찰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 053)474-8228, 010-9562-8228

지장기도 및 천도법회 안내
부처님 진신사리 봉안도량 지장보궁 지장사에서는 선망부보 왕생극락발원 지장기도 및 천도재를 무주상 보시로 3년간 봉행하오니 인연있는 불자님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매월 둘째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 ○매월 넷째주 토-일요일 초중고 명상수련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법회도 봉행합니다. 오시는 분께는 네팔에서 가져온 당뇨, 고혈압,비만에 좋은 차를 무료로 드립니다. 출가수행 할 행자님을 모십니다.
부처님 진신사리 봉안 지장보궁 지장기도도량 대한불교조계종 백마산 지장사
경북 김천시 농소면 입석길 332 / 전화 054)332-1189 www.jijangsa.net

어깨부터 발목까지 관절에
대하여 치료할 자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를 필요로 하시는 스님
이나 보살님이 있으시면
연락바랍니다
010-3359-8897

천도재 보조하실 보살님 모십니다
(급여 180만원.
상담 후 결정)
011-202-3911

역학. 빙의 퇴마 (개인지도. 예약상담)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저자 상담 지도
1. 빙의퇴마, 최면요법, 심리상담과정
(우울, 불안, 각종공포증, 정신질환의 치유)
2. 역학(기문둔갑) 사주, 궁합, 택일, 방향 과정
3.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 빙의(신병) 출장 퇴마 해 드립니다
전화 010-3772-4606 www.제행스님.com
서울 지하철 4호선 상계역 2번출구 상계중앙시장 내 농협 옆

영 가 찾 는 법 강 좌
간단하게 영가를 찾을 수 있는 전래비법과 사주로 찾는 법
생년월일만 알면 찾을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 대 상 - 명리 왕초보반, 영가반(철학관, 포교원 운영자 등)
○ 강 의 내 용 - 초 보 반 : 쉬운 오행풀이로 듣기만 해도 기억할 수 있음
- 영가특강반 : 한 맺혀 간 조상, 조상(귀신)의 발동을 아는 법 등
※ 수시 상담 및 접수를 받고 있으니 해당지역에 문의 바람
백암역리원 02)597-1101. 010-9150-2284 (1.9호선 노량진역 5번출구 동작구청 옆)
대 구 출 강 053)944-3272. 010-9885-8424 (1호선 아양교역 2번출구)

봉 은 불 교 미 술 원
불화 (탱화) 제작 전문
괘불, 후불 (영산 회상도), 칠성, 신중, 산신,
나한 (오백나한), 감로탱화
종합 (무속탱화),종류별 불화...
홈페이지 주소 / 봉은 불교 미술원 (불화 자료 보실수 있읍니다)
불모 오 재 택 (가암)
(온양) 010- 8237- 3545

조용한 산사에서
남은 여생 초연한
삶을 살아가실
보살님을 모십니다
010-3753-7844

명 리 학 강 의
(주 1회 3시간 2개월 완성)
사주. 작명. 개명
(전화 상담)
일지암 (서울)
010-3695-1626 법정

탈 종 공 고

• 사찰명 : 혜명사
• 주 지 : 명륜(한명복)
• 소재지 :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820-45

위 사찰과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대한불교관음종 총무원장 법하

여기를 보라!


정각스님

박정희 대통령 명령으로 정도령께 박여인 보냈지만, 화순 그네 앞에서 행불 후 김영열(정각)스님 되어 탄공 큰스님께서 통도사에서 도사 한 분이 나온다고 예언하신 도의 문제를 풀고 하산하여 동아일보, 중앙일보 박여인 찾는 광고내어 성수동에서 상봉할 때, 청와대에서 일한다고 한다음 행불되었다.
남북한 이산가족 많은데 정도령님 반쪽 가족되어 나라가 슬피운다.

- 정도령 (正導領)

정각 스님 031)837-3677

영남 범음. 범패 제4기 학인모집

본 염불원에서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불교의식, 작법에 관심 있는 스님 및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강의 내용
■ 실용의식 : 천수경, 상단, 각단예불, 천도재, 49재, 모든의식, 작법무-천수바라, 화의재바라, 오공양작법, 각사물 등..
- **교육과정** : 6개월과정
- **모집인원** : 수시모집
- **교육대상** : 승, 속 관계없이 가능 함
- **개강일시** : 2014년 12월 15일 월요일 개강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오후 5시까지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교육장소** : 경남 고성군 대가면 양화리 578 대무량사 총무원 (불교회관)
- **문 의 처** : 010-5065-5690

※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 지도함

(사) 한국미륵불교 부설
영남범음범패 염불원장 재봉 합장

무료공개강좌

(연결카페 http://cafe.naver.com/baikamsa 백암역리원)

영가천도는 반드시 본인과 관련된
영가를 천도해야 영험이 있다.
간단하고 쉽게 영가를 찾을 수 있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전래비법과 사주로 찾는 법.
생년월일만 알면 찾을 수 있는
간단한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 일 시 : 11월 28일 (금) 오후 2시 ~
29일 (토) 오후 2시 ~
■ 대 상 : 명리왕초보반 (영가기초포함)
영 가 특 강 반 (포교원운영자)
■ 강 의 내 용
① 한 맺힌 조상 찾는법, 조상(귀신)이 발동한(대,세운) 것을 아는 법
② 천도는 얽히거나 장애가 있는 곳에서 해야 효험이 빠르다.
③ 무속인의 주장신도 알 수가 있으며 영가를 정확하게 뽑아낸다.
④ 결혼이 안되거나 결혼을 해도 풍파가 많은 가정
⑤ 신경성, 우울증 등으로 마음안정이 안되거나,
공부가 안되는 학생

명리왕초보반강좌
✪ 듣기만 해도 기억되는 쉬운오행풀이, 한자 몰라도 됨
✪ 기초반 2개월과정 모집 - 수강료 2개월 30만원
✪ 기초가 없으신 분은 초보반 수강후 영가반에서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백 암 역 리 원
02)597-1101.010-9150-2284
7호선신대방삼거리역 1번출구 (성대시장 성대마트앞) - 동작구 상도동 315-5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게 재 : 매 다음주 목요일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규격 5㎝ 50,000원(1회) / 가로 7㎝ 70,000원(1회) / 가로 10㎝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내가 항상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가르침을 물을 건너는 뗏목과 같이 알라' 고 하지 않았느냐. 법도 오히려 버려야 할 것인데 하물며 법 아닌 것이랴"

- 금강경 -

사 찰 안 내

아름다운 사찰
- 위치 : 강원도 영월(시내 3분거리)
- 총부지 : 1300평, 건물 5동(요사채, 산신각)
- 법당 : 20평 (목조기와지붕, 연등 250등)
- 대문앞 : 계곡 (갈수기 관계없이 물 철철)
- 가액 : 3억 2천만원 (융자 1억 가능)

아름다운 토굴(자급자족가능)
- 위치 : 경남 고성
- 총부지 : 970평, 건물 4동
- 청정지역지정, 자연산 약초(봉삼, 비비초, 산초, 제피, 엉개, 산나물 등등)
- 요양처 최적지 • 가액 : 1억 8천

※ 전국 사찰 2000개 보유

주소 : 부산시 북구 만덕동 302번지 다산타워 505호

사찰전문 연산공인중개사사무소

※ 홈페이지 // 사찰전문 연산컨설팅 Daum카페

직통 051) 863-662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 계곡이 흐르고 건물 3동
- 토지1700㎡
- 물과 산과어우러진 조용한 암자
- 양도금액 : 3억3천만원

010-5479-5779 (창건주)
010-7347-1010 (사찰전문)
(원주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 상담문의

대형사찰부지안내
- 위치 : 경남 합천 황매산 합천댐인근 해발 400m 남향
- 임야 52,000평(실사용평수 2만평이상)
- 기암괴석, 기도처
- 이동가능한 수백억원 가치 조경석,간판석
- 용바위,거북바위,입석바위 등 기암괴석 다양
- 도로 전기 수도, 순환산책로 공사완료
- 노인복지,연수원,요양원,선원,기도처
- 관광사찰 최적장소 울산함양고속도로 개통시 합천호 IC에서 5분거리 위치
- 가액:평당7만원. 답사상담후 절충가능

010-8677-0932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남 함안군 함안면
- 대지 167평(깨끗하고 예쁜절)
- 법당 1동, 요사채 1동, 창고1동
- 방 4, 입식 부엌, 공양간 따로
- 비구니스님 적합
- 몸만 오시면 바로 법회 가능
- 가액 : 1억 5천

010-4439-4499

포교원안내
- 위치:서울동대문구전농동미주상가건너편
- 법당 및 사무실 40평, 요사채 18평
- 청량리역 도보 3분거리
- 교통요지, 1호선, 중앙선,
- 버스정류장앞, 옥상 사용 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4천 8백만원 보증금 1,000만원, 월세99만원

010-7409-0490
02) 957-0824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 위치 : 서울
◎ 부지 : 40평 ◎ 부지 : 60평
◎ 법당 : 25평 ◎ 법당 : 35평
◎ 요사 : 30평 ◎ 요사 : 30평
◎ 양도 : 3억8천 ◎ 양도 : 10억5천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탱화, 고서, 상담 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02)723-4082

<전국사찰수백건보유. 방문접수 비밀보장>
* 위치 : 경기 양평(급) 사찰 양도
* 법당 42㎡. 요사채 60㎡. 토지 약 1500㎡
* 주변이 산과전원주택. 추천사찰
* (급)양도금액 : 3억(실인수가 2억원)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010-7347-1010 (사찰전문이박사)

주소 : 강원 원주시 모래내길50.성일@상가108호(대표:이규철)

■ 전국사찰.사찰부지.토굴양도 급히 구함!!!

신축 토굴 안내
- 위치 : 경주. 목조주택, 인법당
- 대지 100평, 건평 25평
- 실평수 35평정도
- 동남향 마을끝집 옆길 있음
- 개인토굴 장만하실 스님 적합
- 몸만 오시면 됨
- 가액: 2억 1천만원(절충가능) 대출 6,000만원 정도됨

017-808-2543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수영구 망미 2동 팔도시장 인근
- 평수 : 45평, 2층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 44만원 시설비 상담후 결정
- 몸만 오시면 언제든지 법회 가능

010-3868-7435

사 찰 안 내
- 위치:경기도부천시성무로21번길40-19번지 부천전철역에서 10분거리
- 수십년된 위치 좋은 사찰
- 삼불존, 신중단, 영가단 완비
- 일체 다 되어 있음. 몸만 오시면 됨
- 방 2개, 주방, 별채 방 1개, 종각
- 평수 : 98평, 텃밭도 있음, 창고 20평
- 가액 : 전세 1억 천 오백만원 시설비 답사후 절충

010-6674-135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함안에서 오래된 사찰 기도 많이 하는 지장도량
- 실평수 약 1,700평
- 시설 : 지장전, 산신각, 노천 지장석불, 요사채 3동 (방)10개
- 가액 : 6억 3천

010-3122-0077

포교원 안내
- 위치: 부산시 사하구 감천1동 큰 도로변
- 2층 약 60평
- 삼존불, 신중단, 칠성단, 영가단
- 큰 공양간, 큰방 1, 작은방 2, 욕실
- 시설환경, 위치 특A급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 45만원 시설비 2,500만원

010-7363-5667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포교원 안내
- 위치 : 김해 장유 신도시 위치 최상
- 3층건물 중 2층 전체 40평
- 주불 아미,관음,지장,소불,인등설치
- 법당, 친견실, 스님방, 공양실, 실내화장실
- 가액 : 전세 2천만원, 월세 22만원
- 몸만오시면 즉시 법회. 비품 및 시설비 1천7백만원. 약간 절충

010-2553-8827

사 찰 안 내
- 위치: 전남 광양시와 순천시 접속지역
- 도시 한복판이면서 숲속 뒷산은 울창한 소나무
- 절 앞은 큰 시냇물과 저수보 시내 건너엔 아파트 밀집촌
- 대지 730평, 임야 3,700평, 대웅전 30평 요사2채 50평, 방5개 창고 등
- 가액: 5억 5천

010-2124-3620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산시 와촌면 뒷 갓바위
- 평수 : 약 70평 2층
- 후불탱화, 신중탱화, 칠성탱화 기타 집기 일부
- 좋은 장소 입니다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35만원 시설비 1,500만원

010-4876-5353

암 자 안 내
- 위치 : 충남 예산군 예당저수지 위 150년된 암자
- 법당, 요사채, 예당저수지가 훤히 보이는 천하에 명당자리
- 약 2만평 관상수 주목 10년생
- 만평, 장뇌삼 5천평 요사채 및 창고
- 소유주, 직접매각(가격협의)

010-5097-3468

사 찰 안 내
- 위치 :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 대지 104평, 법당 24평, 요사채 1동
- 스님친견실1동, 산신각
- 사용가능평수 약200평, 주차장 20-30대 주차가능
- 가액 : 2억9천만원

010-5550-9725
010-4001-8476
055)232-7151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전시 서구 둔산동
- 4층 건물 2층(40평)
- 법당1 상담실1 큰방1 작은방1 거실겸 주방 화장실
- 삼존불, 상당탱화, 신중탱화, 산신탱화
- 108소불 (지장보살,관세음보살)
- 보증금 1000만원 월 45만원 시설비2000만원
- 몸만 오셔도 됩니다

010-8653-3216

사찰(급)안내
- 시내와 아주 가까우면서 삼면이 산으로 병풍처럼 감싸있고 사계절 용천수가 흐르고 양쪽계곡에는 가재가 살고 있는 청정수월 기도도량입니다
- 토지 : 2천 700평(법당, 요사, 임법당)
- 양도가 : 3억 8천만원(절충가능)
- 사정상 시세이하로 계산함

010-8008-6781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구포시장 지하철1번출구. 최요지 3층
- 건물 3층 45평, 삼존불, 신중단, 칠성단, 영가단
- 개인사정상 급 안내
- 가액: 전세 1,000만원 월80만원 (시설비 4,500만원)

010-4142-6902

포교원 안내
- 위치 : 김해
- 3층건물중 1층 45평
- 삼존불, 소불 140불정도 몸만오시면 됩니다
- 가액 : 보증금 800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2,000만원

010-9988-7242

사 찰 안 내
- 위치 : 마산시내중심 포교원
- 법당1, 종무소, 공양실1, 화장실2
- 특징 : 도심 번화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별도의 공사없이 바로 운영할 수 있는 도량입니다
- 모든 사항은 스님 상담 후 결정

010-9325-7286

별장 같은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의령(진주 15분 거리)
- 대지 300평
- 요사채: 그림같이 이쁜집(25평) 전원주택 형태
- 법당 33평, 삼존불, 원목가구(피나무) 원불전, 내부시설 여법히 조성
- 모든건물 냉난방, 몸만 오셔도 법회가능
- 마당 : 정원시설, 정원석등 아주 넓음
- 원목으로 조성된 루각(5m×5m)
- 야외음악회 다수 개최 할 수 있음
- 가액 : 3억 3천만(융자 5천 안고)
- 꼭 하실분만 연락요

010-6833-5118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 울주군 두동면 부근 부근
- 대지 180평, 대웅전 25평, 지장전, 삼성각, 대중방 8개 예쁜 용왕당
- 연못 및 청정지하암반수 있음
- 가액 : 보증금 4,000만원에 월 30만원(절충가능) 시설비 500만원

010-4855-7205
010-3036-767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산청 소재
- 대지 600평, 법당 50평, 요사채30평
- 산신각, 용왕당, 주지실
- 가격 상관없이 하실 분 보고 결정

010-8957-8089

청평 한옥 안내
- 대지 199평, 건평 30평
- 전통한옥에 실내는 현대식으로 꾸며져 있음
- 방3,욕실2,거실,주방,패치카
- 현재 스님이 거주하고 있음
- 작은방 2개중 1개는 구들방임
- 가액 : 2억 6천만원

010-9411-5302 (주인직)

사 찰 안 내
- 위치 : 거제시 중심부
- 대지 2,103㎡
- 건평(법당, 요사) 329.4㎡
- 창고, 기타 약 15평 약 25평은 기초공사 완료
- 석등 외 조형물 있음
- 주차장 넓고 경관이 좋음
- 가액 : 7억 8천만원

010-7582-009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선남면
- 대지 : 157평
- 법당 : 25평(목조건물임) 요사채 2동
- 시설 완비
- 가액 : 3억

010-3508-771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경산시
- 대지 : 382평
- 법당 34평, 삼성각 6평, 요사채 1.2층 100평
- 가액 : 20억

010-4069-7723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해운대구 반송2동 22-37번지 사거리 입구
- 평수 23평, 집기시설 일체, 몸 만 오시면 됨
- 스님건강상 급 안내
- 가액 : 전세 500만원 월 20만원 집기일체, 시설비 1,500만원

010-4680-9322

명당터 안내
- 위치 :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신축
- 보은 IC에서 10분 속리산 20분거리
- 탁트인전망 뒤에는 산, 땅모양 좋음
- 귀농 귀촌 하실분, 사찰 암자, 휴양지 적지 아주좋은 명당터, 조경석, 잔듸마당
- 총면적 1025평, 대지285평
- 신축 건평30평 20평 10평 차고 창고 보일러 기름 화목 겸용
- CCTV설치 150미터 암반약수
- 속리산 물줄기가 건물 (주변) 앞,뒤로 물줄기 흐름
- 가액: 3억8천만원

010-5458-2258

혜 광 선 원
- 위치 : 성주군 금수면 무학3길 136-1
- 대지163평, 전답790평, 건평40평1채(준공4년), 12평1채(올해완공), 원두막1채, 각종 과실나무 올해부터 수확
- 경치 좋고 사찰하실분께 추천
- 가액 : 총 2억4천만원(조정가능)

010-8591-107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안동
- 인법당 27평 삼존불, 지장보살, 소불 100여불, 삼성각
- 큰방2, 친견실1, 공양간
- 집기일체양도
- 잔디밭 마당에 7미터 지장보살
- 가액 : 1억 6천 5백만원

010-5555-8744

사찰(터)안내
- 위치 : 밀양시 상동면 신공리 982
- 땅 320평, 옆쪽 계곡 있음
- 삼면이 소나무 울창하여 먼 앞쪽에 물이 보이는 아주 좋은 터입니다
- 토성 작업 완성되었습니다
- 땅까지 포장도로 되었음. 대형차 진입가능
- 정남향 좌청룡 우백호가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
- 사찰 전원 주택 팬션 적합
- 꼭 하실분만 연락 주세요
- 가액 : 7천만원

010-3544-9777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군산시
- 법당 : 30평 목조 건물, 문화재급 보유
- 요사채 및 식당 : 40평
- 대지총면적 : 450평
- 즉시 법회가능
- 총양도가액 : 4억 7천만원
- 꼭 필요하신분만 전화 주세요

010-4725-5907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진주시내에서 20분거리
- 현재는 주택이나 8년간 절 운영했음
- 대지 578㎡, 전 274㎡(3필지)
- 건물 30평, 삼존불, 법당 1, 방 3개, 화장실 2개
- 대문입구, 500년된 똘밤나무 있음
- 기도스님이나 보살님 대 환영
- 가액 : 7,800만원

010-3321-6831

포교원 안내
- 위치: 부산 (구)부산진역 맞은편 부산일보옆 수정시장입구
- 상가건물 5층 40평
- 법당시설 일체(삼존불, 지장전 등)
- 공양간, 방3개 등 생활시설 일체
- 몸만오시면 언제든지 법회가능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약간

010-6413-0463

포교원 안내
- 위치 : 울산광역시 신정동
- 5층 건물중 2층, 90평
- 법당 50평, 공양간 10평
- 요사 큰방1, 중간방 2개
- 가액 : 보증금 3천만원. 월120만원 시설비 답사후 절충

010-5292-1090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충무동 시장통內
- 평수 : 83평(법당, 공양간, 요사체로 구분)
- 보유내용 : 삼존불, 인등 (지장불 108불, 관세음보살 108불, 약사여래불 108불, 옥지장불 197불)
- 상단, 신중단, 영단, 인버터에어콘(냉 · 온방 가능)
- 가액:전세금 2천만원, 월세가 66만원 보증금 2000만원 (절충가능)

010-3628-1156(바로입주가능)

포교원 안내
- 위치: 경기 안양 호계동 경수산업도로 대로변 호계시장 입구
- 평수 24평, 5층건물 3층
- 삼존불, 후불, 지장, 신중, 칠성, 용왕, 산신탱화, LED영가단(540), 인등(170), LED 연등(300) / 방2, 주방, CCTV 4대 설치
- 시설완비 현재 법회중
- 냉장고 2대, 전자레인지, 정수기 세탁기 등, 주방집기 일체
- 가액 : 보증금 1,300만원 / 월 40만원 시설비 1,500만원

010-8369-3569
010-3136-8889

사찰 암자 기도터 명당자리 안내
- 위치: 충남 부여군 은산면 가곡 2길 484-3
- 면적 2,000평
- 거실, 산신각, 용왕전, 뒤산 밤나무 약 100주(매년수확)
- 소나무와 산 계곡물이 평생 마르지 않고 돌과 미륵바위 자연석이 많이 있고 자연환경이 매우 좋습니다
- 천하에 명당자리 좋은 인연 기다립니다
- 꼭 필요하신분만 전화 주세요
- 가액 : 2억 5천만원

011-278-9449

파도소리가 들리는 천하절경 세 놓습니다
- 위치 : 통영시 산양읍 연화리 연명길 82-5
- 가액: 전세 1천만원 월 40만원

010-7475-0474
010-8643-5235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합천군 율곡면
- 법당 등 건물 4동, 토지 약 1,200평 정도
- 가액 : 스님 와병관계로 조건 맞는 스님 (비구, 비구니 스님 막론)께 협의 양도코저 함

055)931-9633
011-503-7692

사 찰 안 내
- 위치 : 창원시 마산 구산면 소재
- 평수 128평, 법당 32평 (아미타, 지장, 관세음)
- 원불 500불, 인등 1,500등, 구위패 300위
- 산신 칠성 18평, 용왕 3평, 공양간, 신도방 3개(스님방 2개, 거실)
- 절입구 아파트 1만세대 조성중
- 가액 : 3억 가격절충

010-2567-136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대구 팔공산 자락 노태우 전 태통령 생가 근방
- 평수 : 대지 100평, 건평 28평
- 1층 방3, 주방, 거실 / 2층 법당 20평 증축
- 삼존불, 미타 관음, 세지, 상단탱화, 신중탱화, 산신탱화, 범종, 소불 108위
- 몸만오시면 됩니다
- 가액 : 2억 3천, 월세 3천에 월 50만원

010-8611-7568

사찰전세 안내
- 위치 : 경기도 포천
- 조용히 수행 기도 하실 수 있는 아담한 사찰입니다
-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010-9491-9227

사 찰 전 세
- 위치 : 부산 시내 지하철 5분
- 300평, 법당, 요사채 산신각
- 가액 : 전세2억 월100만

010-6236-1135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양정동
- 평수 : 3층 독채.. 90평
- 삼존불, 후불탱화, 신중, 지장탱화, 산신, 칠성각.. 인등, 소불 완비
- 시설 일체 완비, 법회 즉시 가능
- 1호선 양정역에서 5분거리
- 가액 : 전세 1,500만원 월세 70만원 시설비 5,000만원

051)865-1940
010-3939-2196
010-3675-2196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 평수 : 70평 2층
- 법당, 간사 3동 응접실, 공양간, 엘리베이터, 도시가스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월 55만원 시설비 상담 후 결정

010-3050-505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안동시 와룡면
- 가옥 7채
- 총평수 99평
- 법당, 요사채
- 산신, 용왕, 칠성각
- 가액 : 3억(절충가능)

054)857-1960
010-9381-520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덕군 병곡면 각리리
- 총평수 750평, 대지 300평, 전 450평
- 대웅전 25평, 요사채 35평
- 사찰에서(대진, 고래불해수욕장) 5분거리
- 가액 : 2억 8천만원(절충가능) (새마을금고 대출 5천 5백만원)

010-4747-3164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동래구 수안동 지하철, 버스 5분거리
- 4층건물중 3층, 4층 각 60평
- 3층 : 법당, 공양간, 종무실, 접견실
  4층 : 주택, 방 3칸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세130만원 (3, 4층 포함, 분리도 가능) 시설비 2,500만원

010-3664-1387

이타적 인간의 뇌

에릭 호프만 (뇌연구 박사)

〈5 · 끝〉 뇌는 희망이다

껍데기 뚫고 내면 향하라… 자신의 우주 만난다

진화하는 우반구

새로운 뇌에 관한 나의 이론에서는 우반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재의 진화 단계에서 우반구 활동은 대부분 무의식적이거나 잠재의식적이다. 그 이유는 우반구가 아직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우세 반구인 좌반구가 뇌량을 통해 우반구 활동을 억제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인간의 뇌는 좌반구와 더 잘 통합되고 더 활발하게 작동하는 우반구를 목표로 진화하는 중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우반구가 그렇게 발달할 때 우반구의 무의식에 저장된 자료들이 의식될 것이다. 명상과 심리치료, 환각제 섭취는 모두 좌반구 활동을 감소시키고 우반구 활동을 증가시킨다.

인간에게선 좌반구와 우반구 모두 의식을 갖고 있음이 이미 확인됐다. 그렇다면 좌반구 의식과 우반구 의식 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있을까?

에크하르트 톨레는 의식을 대상의식(object consciousness)과 공간의식(space consciousness)으로 구별한다. 이 두 가지 의식이 각각 좌반구 의식과 우반구 의식을 가리킨다는 것을 나는 직관으로 알 수 있다. 대다수 사람들의 삶과 마음은 물질적인 것으로 채워져 있으며 무수한 생각으로 혼잡하다. 이런 수준의 의식을 톨레는 대상의식이라고 부른다. 이에 반해 공간의식은 '드러나지 않는 알아차림' 또는 배경 알아차림을 이른다.

신경생리학자 로언 조셉은 우반구 의식을 '오래된 알아차림' 이라고 부른다. 이름 그대로 오래된 알아차림으로서 생물이 진화를 거듭한 수백만 년의 세월에서 생겨난 알아차림이다. 이 오래된 알아차림은 있는 그대로의 참다운 우리 자신을 나타낸다. 자신의 모든 행위(사고하는 행위까지 포함해)에서 오래된 알아차림 또는 배경 알아차림을 감지할 수 있다면 우리는 현존하는 것이다. 〈NOW: 행성의 미래를 상상하는 사람들에게〉에서 톨레는 이렇게 말한다.

"전경(前景)에서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당신은 그 배경에서 내면의 깨어있는 침묵을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공간의식이다. 이 차원의 의식은 모든 사람에게 내재돼 있지만 대다수는 그것을 전혀 알아차림하지 못한다.…대상의식은 공간의식의 작용을 통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의 행성은 온전한 정신을 되찾고 인류는 자신의 운명을 이행할 수 있다. 인류 진화의 다음 단계는 공간의식을 드러내는 것이다."

내가 오해하지 않았다면 대상의식은 좌반구에, 공간의식은 우반구에 속한다. 따라서 톨레가 실제로 하고 있는 말은 우리에게는 우반구 의식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공간의식은 물질세계에서 우리의 모든 행위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고, 우리가 좌반구의 모든 활동을 균형 잡힌 시각에서 바라보게 해준다.

로언 조셉은 전두엽이 뇌량의 양측에서 보초를 서며 어떤 정보를 통과시킬지 결정한다는 이론을 제시했다. 뇌량의 앞부분은 전두엽이 빠른 감마파를 생성해 충분히 활성화돼 있을 때만 열린다. 따라서 전두엽 활성화는 뇌량을 열어주고, 그럼으로써 좌우반구는 통합되기 시작한다.

내면갈등과 외면갈등: 억압된 우반구

우리가 자기 자신과 싸움을 벌이는 한, 세상은 평화로울 수 없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내면 갈등을 겪고 있다. 자기 자신과 사이가 좋지 못한 것이다. 나는 이런 내면 갈등의 다수가 좌반구와 우반구의 갈등을 반영한다고 본다.

좌우반구의 갈등이 내면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외부로 투사된다. 그러므로 자신과의 싸움을 내면에서 해결하지 못할 경우, 우리는 그것을 외부에서 맞닥뜨리고 물리적 수준에서 해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인도의 영적 지도자 오쇼는 직관으로 그것을 알고 있다.

"이 두 반구는 끝도 없이 싸움을 벌인다. 세상의 정치판이 우리의 내면에 있는 것이다.… 당신은 그것을 알아차림 하지 못한다. 하지만 일단 알아차림 하면 이 두 마음 사이 어딘가에서 정말로 중요한 일이 일어난다."

이 점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특히 그러하다. 〈꿈의 실체〉에서 오쇼는 한 가지 예를 든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알고 있다. 우반구와 좌반구가 벌이는 내면의 싸움을 해결하지 못하면 당신은 결코 평화로운 사랑을 할 수 없다. 절대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내면의 싸움이 외부세계에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내면으로 싸움을 벌이며 이성적인 좌반구에 동일시 돼 우반구를 제압하려고 끝없이 애쓰고 있다면 당신은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항상 똑같은 일을 하려고 들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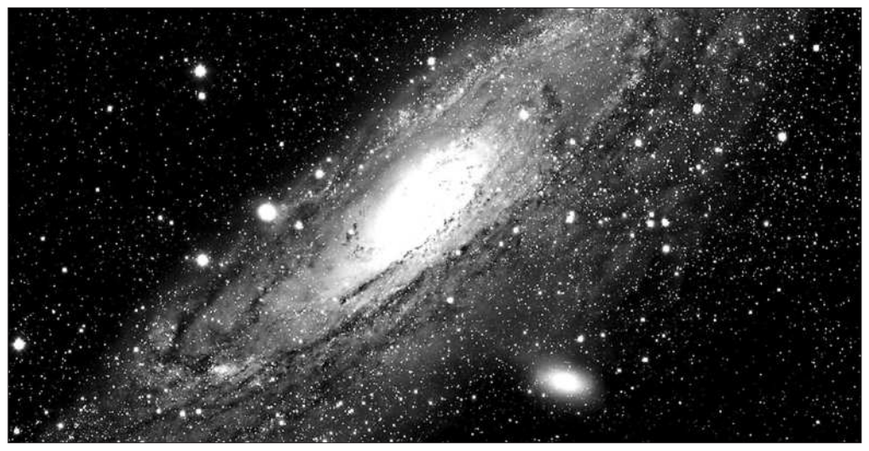
이것을 투사라고도 한다. 내면 갈등이 외부로 투사되고, 그 바깥세상에서 개인은 투사된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그런 노력은 매번 실패로 끝나고 말 것이다.

억압된 성(性), 감정, 여성성

인간이 우반구를 억압하는 이유는 성과 감정과 여성성을 억압하기 위해서다. 인간의 이 중요한 측면들은 우반구, 그리고 그곳과 연결된 변연계에 깊이 뿌리박혀 있다. 우반구에 영향을 주는 심리치료와 명상과 환각제는 모두 감정과 성욕을 자극하는 것 같다.

현대의 많은 문명국가에서 성은 가정과 사회에서 차라리 대화하지 않는 게 나은 주제다. 그러나 고대에는 그렇지 않았다. 그 시대에 성은 축하해야 할 대상이었다. 성기는 음란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고, 일부 국가에서는 그것을 가리지 않았다. 그리스, 로마, 이집트 모두 그런 성 문화를 하나도 숨기지 않고 고스란히 묘사한 그림을 남겼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가? 어째서 성은 '저녁 식탁에 어울리지 않는 더러운 주제' 가 되었을까? 그리고 아담과 이브는 어째서 무화과 잎으로 성기를 가렸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우반구에서 좌반구로 우세 반구가 넘어간 것에 따른 두 반구의 권력 다툼에서 찾을 수 있다.



이성적 좌반구 영향으로
우반구 제압하려고 애쓰면
내면의 갈등 외부에 투사돼

삶의 외형적 경험 이면에는
신성한 메시지 숨어 있어
모든 것은 내 안에 있음을 깨닫자

정상인의 뇌에서는 좌반구와 우반구가 어느 정도 협력하면서도 통제권과 지배권을 놓고 끝없이 싸운다. 이는 과학자들이 이미 알아낸 사실이다. 뇌량을 오고 가는 활동이 실제로 거의 모두 억제하는 활동이라는 것도 드러났다. 그것은 각 반구가 상대 반구를 지배하려 든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좌우반구는 치열하게 경쟁하는데, 유전적으로 좌반구가 승리할 운명이다.

성, 감정, 여성성에 대한 억압은 우반구에 대한 전반적인 억압을 반영한다. 사람들이 주로 우반구(그리고 그곳과 밀접하게 연결된 변연계)를 통해 세상을 경험한 고대세계에서는 성행위가 음식 섭취와 똑같이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뇌가 진화함에 따라 우세 반구가 점차 우반구에서 좌반구로 바뀌고 좌반구가 우반구의 성적 행동을 반성하고 비난하고 반대하면서 두 반구의 권력 다툼이 시작됐다. 이 시점에서부터 알몸 노출, 성욕, 여성성은 금지되고 반대되고 박해받았다. 일부 국가에서는 다른 국가들보다 그 정도가 더 심하며, 특정 지역에서는 이 경향이 매우 뚜렷하다. 어린아이의 성기를 절제하는 의식을 치르고 성도착자를 사형에 처하며 여성을 억압한다. 여성의 행동을 제한하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천으로 가릴 것을 강요한다. 어떤 사회에서는 간통을 한 여성이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아버지나 오빠에게 죽임을 당하기도 한다. 이런 '명예살해' 는 금기시되는 여성의 성적 행동에 대한 극단적인 반응이다.

내 안의 우주

깨달음을 얻은 동양의 영적 스승들은 개인의 내면에 우주가 들어 있다고 말한다. 물리학자 피터 러셀은 오랜 세월 동안 내면을 탐구한 영적 스승들의 "나는 곧 우주"라는 말에 대해 숙고한다. 그들은 정신이 나간 것일까, 아니면 비범한 직관적 통찰을 얻은 것일까? 러셀은 이렇게 썼다.

"그들은 우리가 우주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우리 몸의 세포에서부터 아득히 먼 곳에서 반짝이는 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 만물–가 우리의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음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훨씬 크다.

한 인터뷰에서 암마(Amma), 즉 '안아주는 성녀' 라고도 알려진 인도의 마타 암리타난다마이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내면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삶이 선사하는 모든 경험의 이면에는 신성한 메시지가 숨어 있어요. 긍정적인 경험이든 부정적인 경험이든 모두 마찬가집니다. 겉껍데기를 뚫고 들어가보세요. 그러면 그 메시지를 받을 겁니다. 밖에서는 아무 것도 얻을 수 없어요. 모든 것이 당신 안에 있거든요. 당신 안에 온 우주가 들어 있어요."

우반구가 좌반구와 완전히 통합되면 우리는 자신이 다른 모든 생명체와 하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타인을 생각하는 건 우리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고, 타인을 만나는 건 사실상 우리 자신을 만나는 것이다.

우주 만물이 내 안에 있다. 가장 오래된 힌두교 종파인 시바파에서도 이를 인정한다.

앞에서 신 그리고 우주와 하나가 되는 느낌은 우반구와 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우주 만물이 우반구 안에 있다고도 말할 수 있을까?

신경외과의사 조셉 보겐은 좌우반구의 상보성에 대해 신중하게 말한다. "좌우 각 반구는 상대 반구와 세상을 상호보완적으로 표시해 나타낸다. 따라서 좌반구는 자기(self)를 세상의 일부로 표시하고, 우반구는 세상을 자기의 일부로 표시한다."

흥미롭게도 좌반구와 반대로 우반구는 물리적 육체를 대변하는데, 육체는 그 자체로 하나의 소우주이다.

뇌가 바뀌면 세계도 변한다

'전두엽 우반구' 인간이라는 새로운 종이 살아가는 세계에서는 삶이 과연 어떠할까? 그러한 새로운 뇌의 등장은 우리 자신과 삶에 대한 경험을 당연히 크게 바꿀 것이다. 다음은 새로운 뇌의 진화에 뒤이어 일어날 변화에 관한 나의 생각이다.

○ 지각이 크게 바뀐다. 즉 모든 것이 더욱 선명하고 자세하고 사실적으로 보인다.

○ 마음이 무척 고요해진다. 자신이 경험하는 모든 것에 대한 예전의 끊임없는 판단과 비판이 사라진다.

○ 바깥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내면은 흔들림 없이 언제나 기쁘고 평화롭다.

○ 여러 가지 감정이 여전히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금세 사라지고 감정이나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 예전의 성격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더 이상은 그 성격에 매이지 않고 그것을 한층 더 높은 차원에서 관찰할 수 있다.

○ 예전의 신념체계가 사라진다.

○ 사랑, 연민, 친절, 배려가 우세해지고 타인과 동물을 해치는 일이 거의 불가능해진다.

○ 지금 이 순간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과거와 미래에 대한 관심이 모두 사라진다.

○ 사고가 아닌 직관이 대다수의 행위와 행동을 이끈다.

○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인간과 어머니 대지가 서로 공감하고 하나로 연결돼 있음을 강하게 느낀다. 마침내 사람들은 자신이 지구와 하나이며 지구상의 모든 것과 하나라는 느낌을 받는다. 자신이 살아 있는 거대한 유기체의 일부라고 느낀다.

○ 가치관이 바뀌어 물질주의와 경쟁에서 물러나고 즐거움, 배려, 창의성, 공감에 다가간다.

다시 지금의 세계를 돌아보자. 지진과 홍수 등 수많은 인명을 앗아가는 자연재해는 인간의 현재 의식 수준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갈등을 반영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인간의 의식수준과 인간이 살고 있는 물리적 세계의 상태가 서로 연결돼 있다는 말이다.

전쟁과 테러리즘, 범죄, 질병, 기아가 없는 세상. 두려움과 탐욕, 착취가 없는 세상. 거의 모든 이들이 넉넉하게 소유하고 극도로 가난한 사람이 없는, 자원이 남아도는 평화로운 세상.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러한 세상을 상상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새로운 세상이 가능할까? 가능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세상을 보겠다는 의지와 비전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어야 한다.

정리=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이 글은 에릭 호프만의 〈이타적 인간의 뇌〉(불광출판사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좋은인연 대출안내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전화 주시면 좋은인연이 되겠습니다
스님들께서 사찰을 매매 하실 때 사기를 당하여 피해를 보거나 제대로 된 감정평가와 권리분석을 하지 않아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미리 의논하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매매관련세금 · 부동산권리분석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가능함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보험가액 평가료와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향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영남범패학인모집
본 원에서는 영남범패의 계승과 보존을 위하여 뜻을 같이 할 제 14기 학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동참바랍니다.
아 래
〈진주교육원〉
* 입교일시 : 2014년 12월 1일〈월요일〉 오후 3시
* 교육장소 : 경남 진주시 이현동 이현상가 406호
* 수 강 일 : 매주 월요일 오후 3시~6시
* 교육기간 : 6개월 과정
* 교육내용 : 1 상용의식 및 재의식
2 사물다루는 법
* 수강자격 : 삭발염의한 출가승려에 한 함
* 수 강 료 : 월 10만원 〈교재비 별도〉
* 준 비 물 : 필기도구 및 녹음기
* 문의전화 : 055) 747 – 8419
* 카페안내 : Daum에서 영남범패불음원을 검색해 보세요
영남범패불음원장 원명 합장

갤러리 색즉시공



세족이 부좌이좌 (洗足已 敷座而坐)

부처님은
탁발을 마치시고
발을 씻으신 후
자리에 앉으시어 법을 설하십니다.

괜찮다! 수보리야!
괜찮다! 수보리야!

법을 물으라!
내가 너를 위해 설해 주리라…!

네, 세존이시여!
기꺼이 당신의 법을 잘 듣겠습니다.
……

수보리 존자의 간절한 청이 계셔서
나의 삶이 풍요로워졌답니다.
그분께 진심으로 합장합니다.

그림 · 글=희상 스님

당신은 知音의 인연을 만나보셨나요

Buddha in Comic & Ani

㉑ 니노미야 토모코의 〈노다메 칸타빌레〉

불교의 선어(禪語) 중 '줄탁동시(啐啄同時)' 라는 말이 있다. '어미닭과 병아리가 동시에 알을 쫌' 이라는 뜻으로 병아리가 알을 깰 때 안에서 껍질을 쪼고 어미 닭은 병아리가 나올 수 있도록 밖에서 그 알을 쪼는 것이다. 흔히들 스승과 제자의 인연이 어느 기회를 맞아 더욱 두터워지는 것을 의미한다. 〈시공 불교사전〉에는 이를 '수행승의 역량을 단박 알아차리고 바로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스승의 예리한 기질을 비유한다' 고 풀이하기도 했다.

일본 순정만화가 니노미야 토모코의 〈노다메 칸타빌레〉(2001)는 '줄탁동시' 의 예를 잘 보여주는 만화이다. 이미 일본에서는 드라마와 애니메이션, 극장판까지 나온 국민 만화다. 최근 한국에도 〈내일도 칸타빌레〉라는 이름으로 리메이크돼 KBS에서 방영중에 있다. 한국에서 만든 드라마는 원작의 재미를 못 살렸다는 평가를 받으며 연출진들에 대한 기존 원작 팬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을 정도로 원작이 가지는 영향력은 크다.

그도 그럴 것이 연재했던 출판사인 고단사에서 발행한 만화책 중 초판 100만 부 이상 팔린 만화는 이 노우에 다케히코(슬램덩크 작가)의 〈베가본드〉와 〈노다메 칸타빌레〉가 유일이다. 드라마로 제작 당시 OST를 일본 유명 오케스트라가 담당했고, 이로 인해 클래식이 새롭게 조명될 정도했다.

〈노다메 칸타빌레〉의 매력은 톡톡 튀는 캐릭터들의 향연에 있다. 뛰어난 피아노 실력이 있고 음악을 좋아하지만 기본 성정은 4차원 변태인 여주인공 노다 메구미(이하 노다메), 어릴 적 사고로 비행기 · 물 공포증 생겨 외국 유학을 갈 수 없는 비운의 남주인공 치아키 신이치를 비롯해 어딘가 나사 하나가 빠져 있는 듯한 조연들은 묘한 앙상블을 보여준다.

기본 이야기 구도는 니노미야 토모코의 전작인 〈주식회사 천재 패밀리〉, 〈그린〉과 비슷하다. '엄친아' 인 천재가 멍청해 보이지만 실은 더욱 천재인 인물에게 휘둘린다는 포맷을 그대로 가져오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작자는 여기에 음대를 배경으로 클래식이라는 소재를 가져왔다.

기본적으로 〈노다메 칸타빌레〉는 노다메와 치아키 그리고 함께하는 조연들의 음악가로의 성장 스토리다. 종국에는 연인으로 발전하는 노다메와 치아키의 관계는 서로의 껍질 깨어주는 상호적 '줄탁동시' 다.

첫 회에서 특이한 연주를 보여주는 노다메의 피아노를 알아보고 관심을 가진 것은 치아키였고, 이어 '모차르트의 2대의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를 함께 맞춰냈다. 치아키가 비행기과 배를 탈 수 있도록 이끌어 유럽에 나갈 수 있도록 한 것은 노다메였다.

韓 드라마 〈내일로 칸타빌레〉 원작
순수한 서원과 노력의 과정 통해
음악 천재들의 방황 · 성장기 그려

작품에서 '떨거지들의 집합' 이라고 절하받던 'S오케스트라' 를 대중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로 이끌어 낸 것은 치아키이지만 치아키 역시 자신이 꿈꿔왔던 지휘자의 덕목을 배운 것은 'S오케스트라' 때문이었다.

음악은 조화로울 때 아름답다. 흔히 대규모 오케스트라를 교향악단(symphony orchestra)이라 부르고, 교향악단은 교향곡(심포니)을 전문으로 연주하는 단체이다. 교향곡(심포니)의 어원은 'sym=함께, phonia=울림' 에 있다.

협주를 의미하는 콘체르토(concerto)의 어원은 'concertare' 로 이탈리아어로는 '조화시키다, 동의하다' 란 뜻을 갖는다.

나와 너의 소리를 제대로 듣고 한데 모아 아름답게 엮어 내는 것은 동서양을 떠나 음악에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우리가 사는 인생도 마찬가지다. 누군가의 소리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것, 나의 소리를 제대로 알아주는 인연을 만나는 것만큼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일은 없다.

〈열자(列子)〉 '탕문편(湯問篇)' 에는 유명한 '지음(知音)' 에 대한 유래가 나온다. 백아가 거문고를 들고 높은 산에 오르고 싶은 마음으로 이것을 타면 친구 종자기는 옆에서 "참으로 근사하다. 하늘을 찌를 듯한 산이 눈앞에 나타나 있구나"라고 말했다. 또 백아가 흐르는 강물을 생각하며 거문고를 타면 종자기는 "기가 막히다. 유유히 흐르는 강물이 눈앞을 지나가는 것 같구나"라고 감탄했다.

작품 제목의 '칸타빌레' 는 이탈리아어로 '노래하듯이' 라는 뜻의 음악 용어다. '당신은 자신의 노랫소릴 알아줄 인연이 있는가.' 〈노다메 칸타빌레〉는 그렇게 선연(善緣)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갈파하고 있다.



〈노다메 칸타빌레〉의 포스터. 다양한 캐릭터의 조화가 오케스트라처럼 펼쳐지는 것이 이 작품의 가장 큰 매력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상설전시관 100여평 개원




신중탱화

四 代 傳 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 동 불 교 미 술 원
010-6338-5167 / 010-3743-5167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183번지 해동빌딩

www.hyunbulshop.com
孝 불경 라디오 成佛
불경과 라디오를 하나로!!!
언제 어디서나 불자의 기도, 각종 염불, 찬불가를 간단한 조작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등산, 산책, 모임, 법회 언제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일반 가요 듣기도 가능합니다.
(USB 포트에 가요데이터 삽입)



사용설명
원하는 번호를 누르면 해당 불경이 바로 나오고, 불경 SD카드를 빼시면 라디오로 전환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제품구성
가로 13cm × 세로 6cm × 두께 2cm +
4GB 불경 SD카드 + 이어폰 + 1200AM 베터리 +
USB 충전케이블 + 충전아답터 + 불경목록 + 사용설명서
● 가격 : 6만원 (발송비 포함) / 청색, 홍색 2컬러
* 스님들께서 불자들에게 드리는 선물로도 더욱 좋습니다.
(100개이상 구입 시 사찰명 별도 표기해 드립니다.)




SD카드 삽입 방향

구입처 : 현대불교현불샵 (02)2004-8214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47. 초파일의 노래
48. 마하반야의 노래
49. 성도제의 노래
50. 우리도 부처님 같이
51. 홀로 피는 연꽃
52. 관세음보살 1악장
53. 관세음보살 2악장
54. 개경게
55. 이상정멸분

의식을 두지 않고 놓고 간다면 걸리지 않습니다

참된 인간으로 살고 싶은데

문) 선원에서는 생활 참선을 하는데 한국에서는 간화선을 중심으로 다른 여러 가지 공부 방법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참된 인간으로서 살고 싶지만 마음공부를 잘 모르는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공부해 나가야 될는지요.

답) 이 광대무변한 인간의 법을, 우리가 인간으로 이 모습을 가지고 출현해서 만약에 이 도리를 모르고 그냥 사라진다면, 정말이지 다시 생산이 돼 나와도 그 차원에서 그대로, 무쇠로 깡통으로 또 생산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소가 무쇠고 원소가 깡통이니만큼 또 그렇게 생산이 돼서 이 세상에 출현했을 때에 또 부대끼고 바깥에서 돌아야 합니다. 귀하게 돌질 못하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차원이 금이라면은 집안에서, 몸속에서 귀하게 돌고, 정말이지 바깥에 나갈 새라 땅바닥에 떨어질 새라, 이렇게 귀하게 되고 빛이 나게 됩니다. 온 누리를 싸고도 남음이 있는 광대무변한 그 빛으로 인해서 모든 중생들을 건지고도 남음이 있고, 내 조상들을 건지고도 남음이 있고, 둘이 아니게 모든 아픔을 다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인간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 어디서 온 줄도 모르고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끌려 가는 이런 형상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창살 없는 감옥에서 살면서 어찌 할 바를 모르고, 나갈 수도 없고 들어 올 수도 없는 형편 속에서 어디로 끌려가는지도 모르게 죽는다는 것만 알고 가는 이러한 형국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교를 왜 믿어야 하고 찾아야 합니까. 진짜 믿는 거는 내 그 심봉을 자부처로 알고 진심으로 믿고, 바로 그 프로펠러처럼 돌고 도는 것이 우리 살림살이니 잘 궤도를 지키면서, 올바르게 보고 올바르게 듣고 올바르게 말하고 올바르게 냄새 맡고 올바르게 정진하고 올바르게 모든 행을 하면서 자기 자부처를 진실하게 믿고 거기다가 놓는 작업을 한다면, 우리는 스스로서 그 모두를 다 몰락 놓는 것이 되며, 녹이는 것이 되며 인과응보, 유전성, 이 악성, 그 모든 얽히고설킨 것들을 다 녹이게 되고 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불가에서도 불법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참으로 참혹한 일들이 많습니다. 화두를 받았다 하고 화두를 들고서 10년이고 20년이고 그것을 들고선, 자기도 들 게 없거늘, 자기도 공했거늘 "아이고, 이 뭣고? 관세음보살! 이 뭣고?" 이렇게 들고 10년 20년 가면서도 그 참뜻을 모르고 돌아가다가, 이 몸이 떨어지면 말도 떨어지고 입도 떨어질 것을…. 네?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사람이 일체 사념을 들어오는 대로 다 놓을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막중하게 돌아갈 때 거기다 놓는다면 스스로서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림 · 최주현

전자에 내가 저 서독에 갔다 오면서 남의 짐을 가지고 오는데, 내 거로 알고 인제 거기서는 통과를 하는데, 거기 걸릴 물건이 많이 들어 있었던가 봐요. 나는 그것도 생각 안 한 거예요. 어느 스님이 그것을 좀 들어다 달라고 하니까 아, 내가 질질 끌고선 왔죠. 거기 뭐 들어 있는 것도 생각 안 한 거예요. 질질 끌고 오니까는 "에이그, 스님! 그냥 가져가시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냥 통과가 됐는데 아, 그 맡긴 스님은 통과를 못하고 그냥 거기서 그걸 들켜 가지고는 땀을 쭉쭉 흘리시면서 그거를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물고, 땀 빼고, 또 스님이니까 창피 당하고 그래서 "아이고, 스님. 왜 그런 걸 사 가지고 오십니까? 스님이 무엇이 답답해서 그런 걸 사 가지고 오십니까?" 하니까 "그러게나 말이오. 내가 땀이 지금 방울처럼 뚝뚝 떨어지오. 아이고, 이걸 어떡하면 좋소?" 하고 고개도 이렇게 돌리지 못하곤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놈의 걸 이렇게 묶으시더라고요.

그런 걸 볼 때 나는 차라리 어린애처럼 그걸 의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편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만약에 그 나쁜 것이 거기 들었다고 의식을 했더라면, 내가 사 가지고 오는 거라면 아주 거기다 뭘 넣었으니깐 다 잘 알 텐데, 나는 내가 안 넣은 거기 때문에 의식을 안 했단 말입니다. 모든 것을 의식을 두지 않고 우리가 모든 것을 놓고 간다면 그렇게 걸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 살아나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든 것을 좀 놓고 가세요. 자기가 생각하고 가는 일은 벌써 생각하면 거기에 쓸 건 벌써 놓여 있어요, 놓고 가도. 자동적으로. 진리가 그러하니까. 이거를 없어질까 봐 그냥, 누가 집어 갈까 봐 거기 놓지 못하고는 부둥켜안고 다니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소? 무겁고. 남들은 놓고 가는데 나는 짊어지곤 그냥…. 짊어졌죠, 그거를 부둥켜 이쪽에 들었죠, 저쪽에 들었죠.

모두 여러분이 진짜로 자기가 자기 심봉을 믿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아예 세세생생에 끄달릴 것입니다. 진짜로 믿어야 합니다. 진짜로 믿고 물러서지 말고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불가사의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아 참, 이럴 수가 있나. 참 감사하구나.' 또 이런 게 나와서 모르겠랑은 '아이고, 이렇게 광대한 것이 나왔는데 나는 도대체 알 수가 없으니 이게 무엇인가?' 그때 의정을 내는 거지, 아니 내 심봉, 즉 말하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참 심봉을 의심을 하면 안 됩니다. 내 심봉을 진짜로 믿되 거기서 나오는 불가사의한 일들이 의심이 났을 때 의정을 낸 거란 얘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나를, '내가 이렇게 뭐 힘이 있나?' 이러거든요. '내가 뭐 힘이 있나?' 하는 이 자체도 바로 그 심봉의 능력으로 하여금 이렇게 형성됐을 뿐만 아니라, 이 우주 전체가 이렇게 돌아간다는 뜻을 아셔야 할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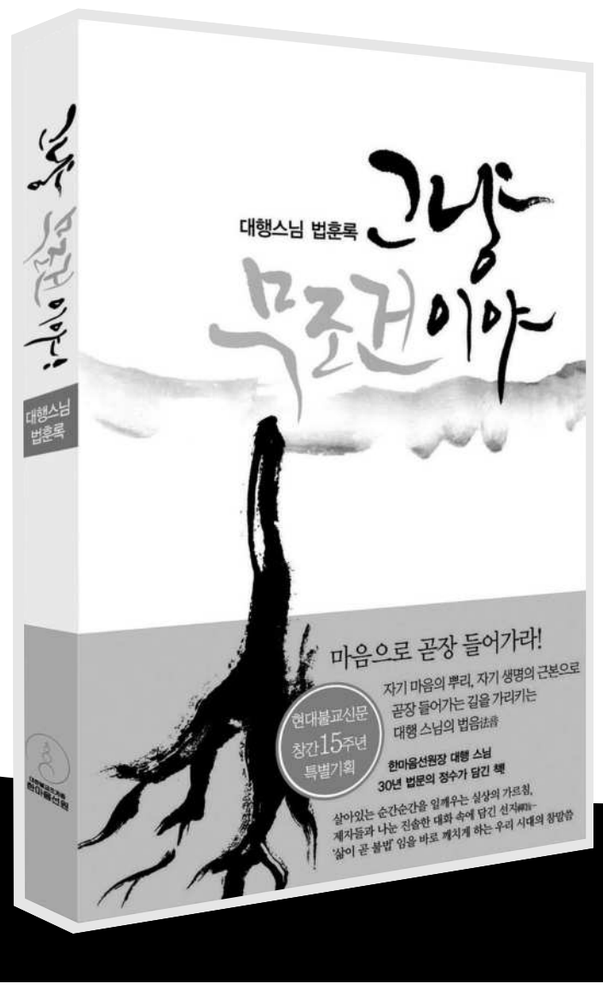
어떻게 하면 팍 죽을 수 있는지요

문) 스님들께서는 내가 나기 이전 근본 자리를 알려면 자꾸 죽어라 죽어라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팍 죽을 수 있겠습니까.

답)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죠. 어느 사람이 와서 "이것이 옳습니까?" 하니까 그르단 말은 하나도 안 하거든요. "어떤 게 정법입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응. 그것도, 그것도 옳다." "저 얕은 산은 저 높은 산하고 어떤 게 차이가 납니까?" "얕은 산도 옳고 높은 산도 옳다." 그래서 한 번 죽기도 어렵다 했는데, 그래도 한 번 죽기는 쉬운데 같이 죽기는 또 어렵거든. 그건 또 둘째예요. 전부 같이 나투기 어렵다 이겁니다. 이 뜻을 말로만 횡하게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실천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문제예요. 거기에는 티끌하나 붙질 않아요. 그르고 옳은 게 붙질 않습니다. 이런 공부 하는 사람들이 마음에다가 '아, 저건 틀리다. 저건 옳다.' 이러한 걸 가지면 절대 이건 할 수 없어요. 미지수의 그것을, 한 구멍도 없고 티끌도 없는 그걸 한숨에, 찰나에 뚫을 수는 없단 말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 나가다가 점차적으로, 점차 뚫을 수 있을는지 모르죠. 그러나 미해질 수도 있거든. 하도 따지니까. 왜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수송동) 2층 현대불교 현불샵

잘된 거 못된 거를 일일이 계산하지 마세요

☞ 29면에서 계속

그렇게 달기는 좋아하는지. 몇 근이나 되는지 그게 의심난다고. 네?

사람사람이 누구나가 한번 "야, 참 너 만나서 좋구나." 하는 그 소리가 바로, 아주 웃으면서 그 소리 한번 하는 게 몇 근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선을 지킨다면 선의 업이 있고 악으로 간다면 악의 업이 있다. 선과 악을 다 놔라.' 이러고 싶은 것입니다. 잘되고 못된 거를 다 놓지 않는다면 그건 치우쳐요.

우리 지구가 부동한 자세로서 그 긍지를 가지고 지축이 흔들리지 않고 있음으로써 사방에서 조여드는 그 자체로 인해서 자석과 같다. 어느 거 하나 붙어도 타 버리고 만다. 타 버리는 관계상 살아난다. 이 유생 무생이 다 이렇게 해서 살고 있는 이 원리를 왜 모르는가. 우리 인간 하나 하나도 혹성이다 이겁니다. 별성이다. 한 사람의 한 점의 마음의 불덩어리가 온 우주 세계를 다 집어삼킬 수도 있는 거다. 그런데 그렇게 집어삼킬 수 있는 그 오묘한 마음을 가지고 만날 저울질만 하고 있으니 이것은 공부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세상에 나와서 저울질하다 간다면 저울질밖에 못하지 어떡합니까. 차원에 따라서 끼리끼리 모이고 끼리끼리 모두가 그렇게, 사람도 차원대로 살고 있고 끼리끼리, 장사하면 장사꾼들대로 모일 거고. 이 세상 이치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만 하지 말고 내 내면을 볼 수 있을 때, 내공을 볼 수 있을 때 홀연히 그 내면으로 하여금 천 리도 요 눈앞이에요. 조그마한 고 불씨 하나가 삼천대천세계를 집어삼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이것저것 따지고 뭐 남는 게 있어서 몽탕 다 태워 버리겠습니까? 본래 태워 버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마음으로 그렇게 쌓아 놓으니까. 무조건이지 뭐 이렇게 달고 저렇게 달고, 그게 도대체 몇 만 근이나 된다고….

나는 그전에 8·15 해방되고 나니까 스무 살이 됐고, 그때 얘기죠. 한암 스님한테 갔는데 예전에는 차가 그렇게 없고 참 길도 험악하고, 서울에서 거기 가려면 차를 타고도 하여튼 무지하게 걸었단 말입니다. 홍성으로 해서 이렇게 며칠이 걸려서. 그러니까 얼굴은 뭐 흙투성이고, 그건 뭐 말도 못합니다. 나 생긴 거 보세요, 조막댕이만 한 게 얼마나 그때 험했겠나? 눈물을 질 흘리면서 "스님! 얼마나 가면 죽겠습니까?" 한암 스님이 있다 하는 소리가 "눈 뜨고 푹 자면 돼. 죽는 거야, 그게." 이 말씀 한마디가 참 실감났어요.

눈 감고 자는 거는 그건 자는 게 아니에요. 눈 뜨고 자야, 얻다가 시장바닥에 갖다가 팽개쳐도 우뚝우뚝 서죠. 잘된 거 못된 거를 남의 탓으로 돌려서도 아니 되고, 잘된 거 못된 거를 일일이 그걸 계산해도 아니 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똑똑하더라도 좀 겉으로 무식한 척하면서, 둔한 척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공부는 둔하지 않고는 도대체 될 수가 없어요. 벌써 오관을 통해서 이 사량으로 전부 알거든. 이 머리로 다 알아 버려요. 감각이니 지각이니, 보는 거 듣는 거 이게 여기 기계적으로 다 있는 거거든요, 이게. 여길 통해서 다 그냥 자기한테 전부 오는 게 있으니 언제 그놈의 오는 거, 헤아릴 수도 없는 게 그냥 스쳐 가는데 언제 그놈의 걸 세웁니까.

그저 모든 게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건 자기 탓이에요. 이 세상에 자기가 나왔기 때문에 자기가 봤고, 자기가 거기 갔기 때문에 들었고, 자기가 있었기 때문에 말다툼을 하게 되고, 자기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게 이렇게 상황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게 되면 모든 게 내 탓입니다. 못난 내 탓. 잘나지도 않고 못나지도 않았고 그저 그대로 내 탓. 그 내 탓이라는 그 한마디의 뜻이 눈 뜨고 자는 일이에요. 언짢은 일, 가정에서도 언짢은 일이라든가 부부지간이라든가 자식지간이라든가 모든 일에 대해서 말을 참 이익하게 해 줄 뿐 아니라 말을 해서 상할 일이라면 하지 말고 안에다 굴려야 하고 안에다 놔야 된다 이겁니다, 내공에다. 모든 걸 내공에서 나오는 건 내공에다 다시 놔야 돼요. 잘되고 못되고, 잘된 거는 감사하게 놓고 안된 거는 안돼서 맡겨 놓고. '나는 하겠다 못하겠다, 공부를. 이런 것이 공부다.' 이런 거 다 놔야 돼요. 급하다는 거까지도 놔야 됩니다. 그렇게 놓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내가 나온 자리, 내가 나기 이전 자리를 알 수 있겠습니까. 이전 자리를 알게 되면 이전도 없고 이후도 없는 겁니다.

> **한사람의 한 점의 마음의 불덩어리가**
> **온 우주 세계를 다 집어삼킬 수 있는 겁니다.**
> **그런데 그 오묘한 마음을 가지고 만날 저울질만 하고 있으니**
> **이 공부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식탐이 조절이 안돼 부끄러워요

문) 저는 공부한다고 하는 사람으로서 식탐 하나 조절 못한다는 게 늘 부끄럽습니다. 제가 자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 마음은 체가 없어서 무한량입니다. 이 우주를 덮고도 남음이 있고 또 들고도 남음이 있고 굴리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고, 우주 삼천대천세계의 어느 곳에 아니 닿는 데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지구 바깥을 떠나서 우주를 공존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마음이 그렇게 지혜를 넓히지 못한다면 이 혹성 가운데 이 주머니 속에 들어서 한 치를 내다보지 못하고 한 치 발을 떼 놓지 못해서 이렇게 갇혀 있지 않으면서도 갇혀 있는 감옥이 되죠. 마음이 밝지 못하면 항상 어둠 속에서 헤어나질 못하고요.

우리가 이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음으로 피곤하고 아주 죽겠다고 생각을 할 때는 피곤함이 오고, 잠을 안 자고도 '응, 삼 일 안 잔 놈도 그놈이요, 잔 놈도 그놈인데, 그놈이 잠을 안 자고 자고가 어디 있겠나!' 하는 생각을 했을 때는 바로 피곤이 어디로 갔는지 흔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많이 먹지 않고도 공기를 양식 삼아 먹는다는 뜻은 우리가 식탐이 많아서 될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도리를 알면 가는 대로 밝아서 항상 자기 있는 자리가 항상 이렇게 밝습니다. 밝고, 먹는 것도 항상 이 한울 안에서 바로 빵 떡, 즉 말하자면 떡을 항상 내려주시니까요. 그래서 욕심을 내거나 분수를 지키지 못한다면 항상 그 먹은 사이 없이 먹는 그 양식은 얻어 보려야 얻어 볼 수도 없을 것입니다.

밥을 한 알갱이 먹지 않고 물만 먹고도, 풀뿌리만 먹고도, 사람이 먹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 먹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또 살기 위해서 먹는다는 것조차도 놓는다면 바로 그 공기의 능력의 양식으로 모든 생명들이 같이 친구가 돼 주면서 같이 호흡을 하면서 같이 식사를 할 것입니다. 보이는 식사가 아니라 안 보이는 마음의 그 식사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식사를 하던 사람들은 바로 하루만 안 먹어도 어지럽고 골치가 아프고 그렇지만 그렇게 유년 하던 사람들은 그렇게 식사를 안 하면 가볍고, 오히려 많이 먹지 않고 그저 오며 가며 한 쪽 먹고 마셔도 그렇게 좋답니다. 그리고 더운 밥 찬밥을 가리지 않죠. 따끈따끈한 밥 이런 거 가리지 않고. 찬밥이라도 오며 가며 한술 떠먹었으면, 그리고 한 젓가락 집어 먹으면 그걸로써 바로 양식이 되는 거죠. 이거 너무 가려도 뭐 별로….

우리가 항상 먹는 밥, 항상 먹는 거 한 끼니 거르면 어떻고 한 끼니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런데도 한 끼니나 안 먹으면 뭘 잃어버린 듯이 허전하고 배고프고 그렇다 하거든요. 역시 또 저도 그럴는지도 모르죠. 여러분이 나 아님이 없으니까. 바로 여러분이 나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말을 똑 떨어지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느 때엔가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밥을 한 사발을 줄이려니까 줄일 수가 없더군요. 한꺼번에 안 먹으면 배고프고 죽겠는 걸요. 미리 그걸 연습을 하고선 나가려니까 한 그릇을 가지고서 한 숟갈씩 줄이니까 일주일이니까 한 사발이 다 없어지더군요. 그래서 그렇게 한 일주일 그래 보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인제 유년물만 좀 먹어도 그냥 대략 그게 괜찮을 수 있더군요. 그래서 그때서부터는 '아! 인제는 아무것도 없어도 될 수 있구나.' 하는 거. 아니 내가 죽었다고 하고 내가 붙을 게 없다고 하고 내가 공했다고 한다는 사람이 뭘 먹을 걸 챙긴다 입을 걸 챙긴다, 덮는 걸 챙긴다 이런다면, 또 생식을 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있다면, 이거 빼고 저거 빼고 이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고 언제 죽을 날이 돌아오겠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와요

문) 평소에 아픈 데도 없고 그런데 가끔씩 죽고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러다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마음공부에 있어서 죽는다는 것도 이해는 되지만 극한 상황에서는 죽는다는 게 어렵기도 하고요. 어쨌든 죽음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답) 그냥 죽는다고 해서, 죽는 거 겁 안 낸다고 해서 잘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의식을 가지고, 이 차원의 그릇을 가지고 죽어 봤자죠, 뭐. 그 차원밖에 더 돼요? 그러니까 아예 죽더라도 아주 야무지게 알고 죽어야 값비싸게 그것도 옷 벗는 거다 이겁니다. 그냥 내가 옷 벗고 싶다고 해서 아무 때나 옷 벗는다고 장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옷 벗을 힘이 있는 것은 자유스러운 마음에서 옷을 벗고, 즉 말하자면 자기가 알준하게 이 도리를 알고 만약에 옷을 벗으면 좋은데, 옷을 벗기 전에 알아야 하는 게 열반계예요, 이름해서. 옷을 벗기 전에 알아야지 옷을 벗고 나서 알았다는 거는 안 게 아니에요. 사람이 살아 있으면서 죽어야 진짜 죽은 거지, 살지 않고 옷을 홀딱 벗고선 죽은 게 죽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 그 둘이 아니게끔 공부하는 것이 마음으로도 천백억화신으로도 나툴 수 있고…. 아이, 그게 숫자가 없는 숫자다. 천백억이 아니라 숫자가 없는 걸 천백억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걸로다가 찾는 사람이 있으면 요게 돼 주고 조걸로 찾는 사람이 있으면 조게 돼 주고, 아파서 찾는 사람이 있으면 의사가 돼 주고 가난해서 찾는 사람이 있으면 관세음이 돼 주고, 이렇게 나투는 이 자체가 바로 죽어야 그렇게 나툴 수 있는 거죠. 살아서 죽어야 돼요, 그것도. 죽어서 죽는 게 아니고 살아서. 옛날에 한암 스님이 눈 뜨고 삼 년만 자라고 하신 그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눈 뜨고 잠을 자라고 그런 것이 뭔 줄 아세요? 지금 모든 작업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네가 사는 게 아니라 네 주인공이 뚜렷하게 있으니 네 주인공의 심부름꾼으로 알고 그냥 거기 다가만 놓고 가는 게 푹 자는 거예요. 쉬는 거고. 이유를 붙이지 않고. 이게 옳으냐 이게 그르냐 하고 따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이유가 들어가서 벌써 놓는 게 되지 못해요. 이걸 생각해서 한생각에 '아, 이게 옳지.' 그런다면 그냥 거기다 맡겨 놔요. '이게 그르지.' 그런다면 그른 것도 거기 맡겨 놓고. 왜냐하면 그르게 된 것도 옳게 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옳게 되는 것도 거기 놔라 하는 것은 옳게 된 것이 좋다고 했으면 언짢게 된 게 거기 붙으니까 그것도 놔라 이런 거죠. 그래서 죽더라도, 죽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이 공부를 다 하고 내 마음대로 죽을 요량을 하세요.

살아난 것도, 답답한 것도, 망상도 그놈 속에서 나오지 다른 놈 속에서 나오나요? 그러니까 자는 거, 다니는 거, 밥 먹는 거, 똥 누는 거, 그냥 내가 생각하는 거, 보는 거, 듣는 거, 모든 게 한 놈 속에서 나옵니다. 한 놈 속에서 벌어져요. 이 주먹 속에서 벌어진단 말입니다. 근데 뭐가 어렵습니까. 체가 없고 걸리는 것도 없는데 뭐가 어려워요? 거기다가 놓는 작업을 하다 보면은 가슴에서 탁 '흥, 그러냐?' 이래 대답이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열두 달 마음 농사의 풍경과
대행 스님의 법어가 함께하는

2015 마음 다이어리



산뜻한 연둣빛 표지로 새롭게 출시된
2015년 다이어리에는 대행 스님의 말씀과
박희진 작가의 그림들이 함께 실렸습니다.

내 마음의 흐름을 지켜보고 기록하며
가꾸어 가는 공간 - 마음 다이어리와 함께
하루하루 변화해 가는 '나'를 발견해 보세요.

판매처 : 현대불교 현불샵
구입문의 : 02)2004-8216
제품 상세보기 : 한 그루의 숲 검색 <숲속가게> 클릭!
구입가 : 13,000원



그림:박희진

불자 세상보기

보여주기 병영문화 혁신은 백약 무효



정재영
병영인권연대대표

10년도 더 된 일이다, 12월 추운 겨울에 입대한 병사가 훈련소를 마치고 자대에 배치됐다. 아픈 곳 하나 없고, 대학 생활 또한 나무랄 것이 없었던 건강한 20대 대한민국 청년이었다.

같은 처지의 다른 이등병들과 다르지 않았을 그 병사가 자대에 배치되어 불과 보름도 되기 전, 아들의 부대에서 아버지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아들이 죽으려고 옥상에서 뛰어내려 중태라는 것이다. 당황한 아버지는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고, 암 말기선고를 받아 놓은 채 병상에서 마지막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던 어머니는 혼절하고 말았다.

군에서의 사고원인이란 것은 참으로 단순하고 명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만 하는 어마어마한 이유들이 △염세주의 △가정환경 △애인과의 이별 △군생활에 대한 염증 등 항상 네 가지이기 때문이다.

사고 병사의 경우 군 당국이 알아낸 원인은 '가정환경' 이었다. 어머니가 중병을 앓고 있어 이를 비관한 나머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했다는 것이다. 병사의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고 반복해서 말했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아버지의 진술은 당연히 묵살되었고, 그 비정상적인 상황을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

애타게 자식을 바라보며 한숨 짓는 아버지의 걱정이 하늘에 닿았던지, 온몸의 뼈가 죄다 부러지기는 했지만 다행이 목숨만은 건진 그 병사가 깨어나는 기적이 발생했다. 그리고 그가 진실을 말하기 시작 했을 때, 그간 당국에서 주장하고 발표했던 대부분의 원인들이 새빨간 거짓이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구타와 가혹행위, 집단따돌림 등, 이른바 지금은 없어졌다는 내무부조리는 물론이고, 그 밖의 다른 부대내적 요인들이 있었던 것이다.

두어 달 시간이 지나고, 해당 병사의 생명에 지장은 없음이 명확하게 확인될 즈음, 필자의 휴대전화로 어느 젊은이가 나왔다. 망설이며 힘들게 말을 시작한 수화기 너머의 젊은이는 온몸의 뼈가 죄다 부러진 채 죽다 살아난 병사의 형이었고, 며칠 전 전방에서 사망한 어느 병사와 같은 중대에 근무했던 소대장이기도 했다.

띄엄띄엄 끊어지지 않고 거듭되는 그의 말은 "꼭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였다. 오죽하면 현역군인신분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했을까. 그렇게 결심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렵게 전화해 온 그에게, 나는 결국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이제 그야말로 죽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생긴 한 젊은이가 전화기 저편에서 망설이고 있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다.

십년도 더 지난 이 참담한 기억이 아직도 변하지 않고 되풀이된다, 선임병들과 심지어는 간부까지 합세한 집단폭행을 당한 끝에 맞아죽는 것으로 비참히 생을 마감한 윤 일병은 물론이고, 최근에도 식물인간상태에서 수 년만에 깨어난 병사가 군수사기관의 발표와 달리 선임병들의 집단폭행으로 인한 사고였음을 증언하고 있고, 수년전 철원서 목매 숨진 여군 심모 중위의 경우도 그런 일은 없었다던 군의 주장과 달리 대대장의 성추행이 원이었음이 재조사를 통해 일부 밝혀졌다.

변화는 말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회의 비난여론을 의식해 보여주기 위한 방법으로 급조된 무슨 위원회가 촉박한 일정으로 쏟아내는 번지수가 한참 다른 대책들도 백약이 무효다.

영내에서 발생하는 장병 간 구타와 가혹 행위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 발생하고 지속되어지는지를 정확히 모르면서, 민간인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25가지의 대책을 짜내어 국회에 보고했다한다 한들 그것이 어떻게 제대로 된 대안과 개선안이 될 수 있겠는가.

병영문화혁신위원회의 거창한 활동이 아니더라도 우리 군은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 개선 할 수 있는지를 이미 알고 있다, 문제는 알면서도 개선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고, 그러니 개선할 의지도 행동도 없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인권은 권장사항이 아니라 필수덕목이라는 것을 지휘관들이 먼저 인식해야 한다, 합리적 비판과 지적에 귀를 기울이고 외부의 감시와 견제가 가능하며 내부의 자정기능이 잘 작동하는 건강한 조직으로 발전해야하는 것이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군대가 전쟁에 이겨 국가와 국민을 제대로 지켜낸 사례는 동서고금의 역사 전체를 찾아보아도 전무하다, 2014년 현재 우리 군의 현실은 어떠한가?

외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언대

총본산 성역화는 불교중흥 위한 '불자 선언'



지현 스님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사업 추진위 총도감

조계사는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곳이다. 경복궁, 인사동, 북촌 등을 연계하는 문화벨트의 중심지역이다. 조계사는 수많은 시민과 외국인이 방문하는 명소이며 전통과 근현대 문화가 어우러진 한국을 대표하는 곳이 되었다.

2012년 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서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1일 조계사를 방문하는 외국인은 평일기준 600명, 주말 1,000여명으로 1년에 최대 26만 명 이상의 외국인이 조계사를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에게 조계사는 어떠한 모습으로 보이고 있을까? 새삼 궁금하기도 하지만 스스로 살펴볼진대 모양과 내용을 살펴볼 때 부끄러운 것이 하나가 아니다.

한국사찰의 기본적인 전각도 구비되어 있지 않고 일주문 위치도 전통가람배치와는 맞지가 않다. 외국인 등 방문객에게 한국불교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충실한가 자문할 때 아직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조계사를 중심으로 한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불사를 통해 현대화된 한국불교를 번듯하게 세우고자 하며, 세계인들이 웃고 행복을 나누는 대한민국 대표 명소로 일신하고자 한다.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전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새로운 것을 더하는 것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불자들의 책무이며 사명이다. 문화는 조화로움을 통해 만들어진다. 전통과 현대, 낡은 것과 새로운 것, 일상적인 것과 특별한 것의 조화가 문화의 요소인 것이다.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대작불사는 이러한 문화적 요소에 국민의 바램, 사부대중의 오랜 염원을 담아 낼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 정부와 지혜를 모으고 협력하여 서울의 대표적인 역사문화공간을 만들 것이며,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명소로 만들어 가고자 한다. 조계사 주변은 전통 건축술을 통해 열린마당을 확대한 문화공원으로 조성될 것이다.

특히 성역화 사업 중의 하나인 10·27법난 교육기념관은 현대 건축 기법을 통해 해원과 상생의 길을 열어가는 공간이 될 것이다. 또한 한국근현대사에서 국가 폭력에 의해 희생된 이들을 치유하는 시설로서 정서적 · 심리적 상처를 보듬어 주는 안락처가 될 것이다.

과거사를 성찰하는 이유는 과거를 기억함으로써 이를 극복하고 현재와 미래의 지향을 형성하기 위함이다. 이는 국

"조계사 총본산 성역화 해원 · 상생의 공간으로"

가와 국민의 불신과 분열을 해소하는 지름길이며 화해와 상생의 기틀인 것이다.

조계종 총본산은 역사교육의 장으로써 한국현대불교사가 아닌 한국사 전체의 맥락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했던 숭고한 선승들의 호국정신을 다시금 알려내야 할 것이다. 또한 전통문화 교육을 통해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인지시키고 문화 국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함양시켜 나갈 것이다.

참고로 10.27법난이란 1980년 10월 27일 계엄군 및 경찰이 전국의 사암의 법당에 난입해 수많은 스님들을 연행, 고문한 국가에 의한 희대의 불교탄압 사건이다. 현재 국가 특별법에 의거 국무총리 산하 '10.27법난피해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사업으로 조계사 주변에 기념교육관 건립 추진을 계획 중에 있다. 당시 작전명이 '45계획' 이라 했는데 견지동 45번지 조계사를 칭했던 것으로 총본산 성역화 구역에 법난 교육기념관 건립을 추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100년 전 사찰이 전무했던 4대문 안에 전국의 불자들이 십시일반 정성을 보태어 조계사가 시작 되었듯이 이번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불사는 불교중흥을 위한 제2의 불자선언이자 실천운동이다.

지난 11월 17일 불사추진위원회 출범식을 통해 총무원장 자승 스님도 말씀하셨듯이 10년이라는 불사 기간동안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1,700년 한국불교가 미래 100년, 세계인들을 향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이 길에 사부대중의 지혜와 손길이 함께 할 것이라 믿는다.

社說

조계종·선학원 갈등, 합의 정신으로 풀자

조계종이 선학원 정상화를 위해 종단적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11월 18일 200회 정기회에서 '선학원 정상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 을 수정 가결했다. 이에 따라 조계종은 선학원과의 협의와 법적 대응을 함께 할 수 있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

종단이 구성하려는 추진위원회는 총 150~200인으로 구성되는 종단적 기구다. 상임위원장은 총무원 총무부장이, 상임위원은 추진위원장이 추천한 11~15명으로 한다. 이들은 선학원에 대한 민형사 등 법적 대응부터 협의, 관련 자료 수집 및 세미나, 공청회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 조계종이 선학원 갈등 해결을 위해 최대의 강수를 둔 것이다. 법인관리법 개정과 대각회를 특별교구로 지정한 것도 등록 의지가 분명한 법인을 최대한 보호하고 끌어안으려고 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선학원은 제2 정화운동으로 맞불을 놓고 있는 형국이다. 자신들이 조계종의 모태인 만큼 현 종단을 정화하겠다는 것이다. 11월 20일 열린 선학원 분원장 회의에서 이 같은 의지를 재확인했다.

조계종과 선학원의 현 갈등 상황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안타까운 것은 조계종과 선학원 모두 불교 중흥을 위한 불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계종은 11월 17일 총본산 성역화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선학원은 20일 '한국근대불교문화역사관' 기공식이 개최했다. 두 불사 모두 21세기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은 분명하다. 서로 손을 맞잡고 힘이 되어줘야 하는 시기인 것이다.

가톨릭은 서대문 서소문 공원과 여주 주어사지를 자신들의 성지로 삼기 위해 전면적으로 나섰고, 행정 수도 세종시는 개신교의 교회가 넘쳐나고 있다. 집안 싸움으로 역량을 소모시키고 있는 때가 아닌 상황이다. 조계종과 선학원이 보여주고 있는 갈등이 조속히 해결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법적 대응과 비방보다는 대화와 합의를 통해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길 진심으로 기원해 본다.

교계 복지 종사자 효율적 연수교육을

과도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에 직원들 평균 근무기간이 4년 6개월에 불과하다는 사회복지사들. 3D업종에 필적할 정도로 업무 강도가 높은 편이다. 그래서 이들은 직업인으로서 다른 무엇보다 봉사와 희생의 소명의식이 철저해야 버틸 수가 있다. 그만큼 힘들다는 것이다. 이에 무엇보다 이들을 위한 효율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모처럼 지난 11월 6일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산하 복지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명상과 휴(休)' 라는 주제로 연수를 진행했다. 참가자 1백여명이 1박 2일 동안 한국문화연수원에서 걷기 명상과 좌선체험 등을 하며 쉼의 시간을 가졌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의 이같은 정기 연수 프로그램은 1년에 4차례 정도 이뤄진다. 시설장, 실무책임자, 신입 등 대상별 연수가 끝나면 마지막으로 전체 시설 종사자들을 위한 교육이 한 차례 더 있다. 산하 시설 직원 연수는 불교 복지인으로서 정체성과 소명의식 확립에 도움을 준다. 하지만 문제는 교육이 일회성에 그친다는 데 있다.

타 종교 복지재단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직원을 대상으로 재단 미션과 비전, 서비스, 실무교육 등을 최소 6개월에 걸쳐 진행한다. 중간마다 필기시험 혹은 실기형태로 테스트를 진행하며 교육 효과를 극대화시킨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측도 이런 점을 인지하고 내년부터는 신입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니 기대가 된다. 사회복지 시설은 대부분 위탁시설로 타 복지재단 소속이 될 수도 있고 복지사 역시 이직이 많다. 하지만 체계적인 교육을 받는다면 재단에 대한 소속감이 높아져 이직을 방지할 수도 있다. 또한 복지담당자간 네트워크 형성에도 큰 도움이 돼 업무 효율도 높아질 것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전국
서울. 수원

수강생모집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신문, 인터넷, 정 · 부정기 간행물, 도서, TV, 유 · 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복제, 강의하면 민 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저작권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표법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저작권자
상표권자 정 흥 교 (법화 종헌)

저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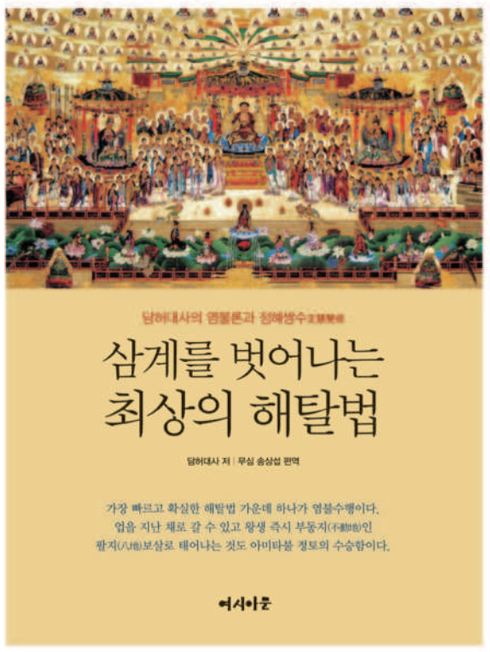
강의 일정표
◇ 제 1일 – 구단구궁의 제법칙
◇ 제 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제 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밥칙
◇ 제 5일 – 구단구궁 실전감정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구단구궁법대학
경기도 화성시 떡전고을로 114-1. 1층 (서울지하철 1호선 병점역 앞) ☎전화 010-7415-0803
인터넷 검색창 : 구단구궁법
〈우체국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이 책을 읽으면 다시는 헤매지 않고 이 법을 실행하면 가볍게 생사를 벗어난다

완벽한 해탈문, 정토왕생법
가장 빠른 해탈법(神通乘)
제일 확실한 해탈법(金剛乘)
너무도 놀라운 해탈법(不思意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해탈법(最上乘)



담허대사 저/ 송상섭 편역(여시아문 刊)
신국판 | 무선 | 부분컬러 | 232쪽 | 12,000원

■ **해탈의 돈법(頓法)이 설파된 보배로운 책**

본서는 중국의 고승 담허(1875~1963)대사의 명저인 『염불론』을 무심 송상섭 선정수련원 지도원장이 번역하고 해설한 책이다. 내용이 간략하고 더없이 명확하다. 헤맬 필요가 없는 가장 중요한 해탈법의 핵심을 말해주고 있다. 옛 중원(中原) 오종(5宗: 선종, 교종, 밀종, 율종, 정토종)의 진액을 하나로 모아 읽으면 누구나 낙오 없이 해탈하게 되어있다.

말만 풍성하고 핵심이 빠진 내용은 읽을 수록 심혼만 산란해지고 해탈로 가는 길을 오히려 방해한다. 이 책은 그런 폐단이 없다. 누구에게나 적극 추천하고 싶은 더없이 보배로운 책이다. 경전이나 선정을 바르게 공부한 사람이면 누구라도 호흡을 가다듬고 경건히 옷깃을 여미게 하는 내용이다. 그윽이 조심스러운 것은 행여 아상이 높거나 법을 불신하거나 경망한 사람이 이 책을 가볍게 대할까 크게 두렵다. 여래께서 간절히 일러주신 해탈의 돈법(頓法)이 숨김없이 확연히 설파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또한 염불을 통해 일념, 무념에 들 수 있는 방법으로 사마타(止)와 위빠사나(觀)를 동시에 닦는 정혜쌍수(定慧雙修)를 설명하면서, 선정(禪定)의 힘을 얻는 방법도 체험적으로 일러주고 있다. 선정을 닦지 않으면 의식이 자유로워지는 해탈은 문도 없고 길도 없다고 하지 않는가? 또 삼계를 벗어나 불국토로 왕생하는 염불수행 조차도 선정이 기초로 이뤄지지 않으면 일심불란의 큰 집중력은 마련되기가 매우 어렵다. 선정이 깨달음이든 극락왕생이든 모든 수행의 중심이 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지관쌍수(止觀雙修)는 순일한 집중력을 배양하는 지(止)와 밝은 통찰에 이르는 관(觀)을 고루 닦는다는 말이다. 줄여서 이를 정혜쌍수(定慧雙修)라고도 말한다. 집중 위주의 사마타와 관찰위주의 위빠사나를 함께 닦는 융합적인 수행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런 좋은 수행도 만약 너무 한쪽만 쏠려 닦으면 절름발이처럼 원만한 수행이라고는 말하기 어렵다. 광신도처럼 집중은 잘 하는데 단순하고 지혜가 없거나 지식만 최고로 아는 사람처럼 머리는 있으나 실행력이 빈약하면 지혜와 실천 즉 안팎을 고루 갖춘 큰 수행은 못되는 것이다.

이 책은 선정과 지혜, 사마타와 위빠사나, 염불과 참선을 닦는 모든 수행자들이 읽으면 수행의 일대전환을 이룰 수 있는 책으로서 일독을 권한다.

■ **책 속의 한 구절**

념념(念念)염불하면 념념이 곧 깨달음

우리의 의식 즉 한 생각 속에는 열 가지 법계(十法界)가 구족하다. 즉 온 우주가 통으로 우리 마음 안에 모두 잠겨 있다. 이른바 십세고금(十世古今, 영원한 시간)이 이 한 생각(우리의 의식)을 여의지 않았으며 티끌과 같은 찰토(刹土, 온 세계)가 털끝만큼도 막히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영겁의 시간과 무한한 공간이 우리의 현재 갖고 있는 이 의식 안에 고스란히 다 숨어있다는 말씀이다.

"만약 발심하여 염불하면 일념염불이 일념의 깨달음이고, 념념(念念)염불하면 념념이 곧 깨달음인 것이다."

즉 다시 쉽게 해설하면 염불하는 그 생각마다 밝게 깨쳐있는 마음이고 순간순간 외우는 그 마음 안에는 순간순간의 더없이 밝은 깨달음이 아주 신령스럽게 작용한다는 그 말씀이다. (23p)

염불법문은 가장 쉽고 가장 빠른 첩경이다

과거의 조사님들 천태지자(智者)대사, 영명선사, 우익(藕益)대사, 철오(徹悟)선사 등과 같은 분들도 나중엔 정토로 귀의해 염불을 전념하셨다. 또 남에게도 염불을 적극 권하셨다. 왜냐하면 다른 수행을 하면 근기가 잘 맞지 않거나, 혹은 상당(相當)한 사람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을 때 잘못된 길로 들어서기 아주 쉽고 그 병폐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염불하는 사람은 서천에 대한 믿음(信), 가고자 하는 원력(願), 지속적인 염불의 실천(行)만 구족하면, 이미 부처님의 힘을 의지하고 또 자력에 의지하니 절대로 길을 잘못 들어설 염려가 없다.

그러기에 염불법문은 가장 쉽고 가장 빠른 첩경이다.

다른 수행은 오직 자신의 힘에 의지하여 삼계(생사를 반복하는 우주)내의 견혹(見惑, 잘못 보아 생기는 미혹)과 사혹(思惑, 잘못 생각해서 생기는 미혹)을 완벽할 만큼 남김없이 끊어야만 진리를 증득하여 육도윤회를 벗어날 수 있다. 말이야 상당히 쉽지만 실제로 상당한 공부가 없으면 결과는 성공하기가 지극히 어렵다. (34p)

한마디 아미타불은 최상승의 법이며 무량한 법문(法門)을 포괄한다

아미타경은 석가모니부처님이 무문자설(無問自說, 제자들의 질문이 없는데 붓다 스스로 말씀하심)하셨는데, 서방극락세계의 의정 이보장엄(依正二報莊嚴, 즉 자력과 타력이 함께 한 장엄)과 염불하여 극락왕생할 것을 설하셨다.

그의 의미는 법화경과 같다. 왜냐하면 법화경도 사리불존자에게 설하셨으며 제자들의 어떤 질문도 없이 붓다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무문자설(無問自說)이었다.

부처님은 무량의경을 설하시고 난후 무량의처삼매(無量義處三昧)에 들어 몸과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미간의 백호상광(白毫相光)을 내뿜으며 동방 팔천토(東方八千土)를 비추고 갖가지 상서로운 모습을 나타내어 법문을 듣는 대중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의심을 갖게 하셨다.

미륵보살과 문수보살이 대중을 위해 의심을 해결한 후에, 부처님은 곧 삼매에서 편안히 나오셔서 청하여 묻는 질문자가 없으나 사리불존자에게 말씀 하셨다.

"모든 부처님의 지혜는 매우 깊고 무량하다. 그 지혜의 문은 이해하기 어렵고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다. 일체성문 벽지불도 전혀 알 수가 없다... 매우 깊은 일찍이 없었던 법을 성취하고..." (52p)

저자 소개

〈염불론〉의 저자 담허대사(1875~1963)



중국 하북 영하(河北 寧河, 현 天津) 출신. 속성은 왕(王)이고 이름은 복정(福庭), 법호(法號)는 융함(隆銜), 자(字)는 담허이다. 17세에 아버지의 명에 따라 혼인을 하여 다섯 명의 자식을 낳았다. 주로 농사일을 하였으며, 아울러 작은 장사도 하면서 생활하였는데, 후에는 다시 의술을 익혔다. 경자사변(庚子事變)을 당하여 영구(營口, 용령성 남부)로 피신하여 한의원을 열었다. 40세에 〈법화경〉을 듣고 즉시 속진을 떠나고자 하는 뜻을 가지게 되었다. 민국6년(1917) 43세 되던 때, 천진에 있는 청수원(淸修院)의 청지법사(淸池法師)의 인도로 내수 고명사(高明寺)의 인괴법사(印魁法師)를 의지하여 출가하였다.
이듬해 남쪽으로 내려와 영파(寧波) 관종사(觀宗寺)의 제한대사(諦閑大師)를 의지하여 구족계를 받았다. 아울러 제한대사 슬하에서 천태교관(天台敎觀)을 익혔다. 민국10년(1911) 심양(瀋陽) 만수사(萬壽寺) 불학원에서 강석을 열어 법문을 하였다. 1915년에는 제한법사(천태종 43世)의 부촉(咐囑)에 의해 보정(寶靜, 1899~1940), 정권(靜權, 1881~1960) 법사와 더불어 천태종 44세가 되었는데, 이때 금함(金銜)이란 이름을 받았다. 이후 동북지방 각지에서 경전을 강설하며 불법을 널리 폈으며 아울러 많은 도량을 창건했다. 그 중에서 하얼빈의 극락사(極樂寺), 장춘의 반야사(般若寺), 영구의 능엄사(楞嚴寺)가 가장 규모가 크다. 그 후로 청도 담산사(湛山寺)의 주지가 되어 스스로 담산노인(湛山老人)이라 불렀다.
만년에는 홍콩에서 홍법하면서 화남불학원(華南佛學院)을 설립하여 원장을 맡았으며, 또한 중화불교도서관(中華佛敎圖書館)과 불교인경처(佛敎印經處), 천태정사(天台精舍), 홍법강당(弘法講堂), 청산(靑山) 극락사(極樂寺) 등을 설립하였다. 1963년 봄에 (중화불교)도서관에서 〈능엄경〉과 〈금강경〉을 강의하였는데, 오래지 않아 대중들의 염불소리를 들으며 가부좌하고 시적(示寂)했다. 세수 89세였다.
대사가 일찍이 평생의 사적을 구술한 것을 제자인 대광(大光)이 기록하여 〈영진회억록(影塵回憶錄)〉이란 이름으로 출판하였다. 주요저작으로는 〈금강경강의〉, 〈심경의소(心經義疏)〉, 〈심경강의(心經講義)〉, 〈기신론강의(起信論講義)〉, 〈보현행원품수문기(普賢行願品隨聞記)〉, 〈능엄경강의〉 등이 있다. 나중에 제자들이 스승의 법문과 저작을 모은 〈담산대사법회(湛山大師法匯)〉가 세상에 전해지고 있다.

12선사의 살림살이가 녹아든 깨침의 노래 禪詩 '완전 이해'



(맨윗줄 왼쪽부터) 효봉 혜암 한암 학명 스님, (둘째줄) 용성 만해 만공 동산 스님,(셋째줄) 고암 경허 경봉 만암 스님. 모두가 근현대 한국불교를 풍미했던 선지식들이다.

염화시중의 미소만 미소랴. 한국 근·현대의 불교를 이끌었던 선지식도 중생제도를 위해 한 없는 자비의 웃음을 날렸다. 그러한 웃음을 선가(禪家)에서는 '황금털사자(金毛獅子)의 미소'라고 일컫는다. '황금털사자'란 존재의 모습을 표현하는 인간의 한계를 드러낸 뜻이리라. 선사들은 삶 속에서는 물론, 법문에서, 제자 사랑에서 그 미소를 강물처럼 쏟아냈다. 이것이 노래로 우러 나오니 바로 선시(禪詩)가 됐다.

'황금털 사자의 미미소'(송준영 지음, 여시아문 펴냄)는 한국 근현대 선사들의 선시를 씨줄로, 이들의 삶과 수행을 날줄로 해서 이들 고승들의 진면목을 다루고 있다. 한국불교 근대 중흥조 경허 스님을 비롯해 용성·학명·만공·한암·만암·만해·효봉·혜암·동산·경봉·고암 스님 등 12명의 걸승이 그 주인공이다.

그동안 이들 선사를 개별적으로 다룬 저서도 많았고, 또는 모두를 한곳에 옮겨놓은 책도 적지 않았다. 이 책이 주목받는 것은 선사들의 자취가 오랜 시간 구전되다보니 더러는 뒤섞이기도 하고, 어느 것이 어느 분의 행장인지 구분하기조차 어려워진 측면도 있었는데, 이것을 잘 정리해 놓았기 때문이다. 계간 '시와 세계' 발행인겸 주간으로 있는 지은이가 18세때 선문에 든 이후 동암·탄허·고송·성철·서옹 스님 등 여러 고승들을 만나고, 특히 서옹 선사에게서는 7년간 7차례나 의문나는 점을 물었고, 그 답을 얻어냈기에 가능했다.

선시를 통해 선사들의 생애를 조망하는 것은 참으로 신선한 시도다. 하지만, 선시에 대한 문학적 이해가 없어도 가능할까. 지은이는 이면의 세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일반 시와 선시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한다. 다만 선시는 중생을 눈뜨게 하는 한 방편으로 읊어졌다는 데 차이점을 둔다. 본래면목을 보여주기 위한 선시 고유의 수사학(修辭學)이 오늘날 포스트모더니즘이 보여주고자 했던 새로운 상상의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 선시여서 크게 어려울 것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선시를 이해하다보면 조사들의 선풍은 물론, 실험적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를 이해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책에는 12명 선사들의 게송, 법어나 소참법문, 직접 쓴 서간문, 투고글, 대담, 각 선사들의 법맥, 행장, 연보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가능한 문도회에서 만든 어록이나, 학자들의 근거 있는 기록, 인용할 가치가 있는 자료 중심으로 묶었다고 한다.

경허 스님의 '졸음' '돌사람' '심우송' 등 게송은 제목만 들어도 다정다감하게 다가온다. 그러나 그 내용을 파고들면 극도로 탈속된 담담한 경지를 보여준다. 만해 스님이 학명 선사의 깨침에 대해 준 지어준 게송(일에 다다르면 고생이 많고/사람을 만나면 이별이 있다/원래 세상이치 이러하니/남아라면 '이것' 마음대로 살라·臨事多難處/逢人足別離/世道固如此/男兒任所之)은 수선납자의 목숨을 빼앗을만큼 강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본래 선시는 인도의 '가테(gata)'가 중국으로 들어와 '게(偈)'로 음사되었다고 한다. '가테'는 언어를 빌려 언어 밖의 현묘한 이치를 읊은 것. 이 게가 본래 있었던 '송(頌)'과 합쳐져 게송이 된 것이다. 지은이는 선시가 시라는 장르에서 발전된 것이라기 보다는, 선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를 차용한 성격이 짙다고 본다. 그래서 선시를 문학이라는 장르에 가두지 말고, '선문화에 대한 진검, 혹은 지혜의 검'으로 승화 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선문염송 강의록 〈현대언어로 읽는 선시의 세계〉로 선시연구의 일가를 이뤘다는 평을 들어 온 것이 우연이 아니다. 선시에 대한 해박한 이해며, 고승들의 진면목에 대한 깔끔한 정리가 돋보이는 책이다.



〈황금털 사자의 미미소〉
(경허에서 고암까지)
송준영 지음 | 양장
575쪽 | 신국판 | 25,000원

경허-만공선사의 법을 이은 천진불 원담스님의 사자후



덕숭산 법향
(원담법어)

수덕사 엮음 | 566쪽 | 188*257 | 30,000원 | 여시아문 펴냄

경허-만공선사의 법을 이은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故 원담(1926~2008) 선사의 1980년 하안거 결제부터 20여년 간의 법어를 모아 엮은 선(禪)법문집. 법상에 오른 노 선승의 숨결을 느낄 수 있도록, 스님의 어투가 최대한 살려진 활구법문(活句法門)을 접할 수 있다.
평생을 참선수행에 매진해온 선사의 활발한 선지(禪旨)와 고준한 법(法)의 향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선어록이다. 원담선사는 한국불교의 선맥을 중흥시킨 경허, 만공 스님의 선풍을 계승, 평생을 참선과 공부에 매진한 선승이다. 특히 12살의 나이부터 만공 스님을 시봉, 스님의 열반(1946)까지 옆에서 지킨 마지막 법손(法孫)으로서 '천진불(天眞佛)'로 일컬어졌으며, 서예에 능해 당대 최고의 선필(禪筆)을 남긴 고승이다.

"무정설법이 별것 아니니 목전에 역력하여 다만 이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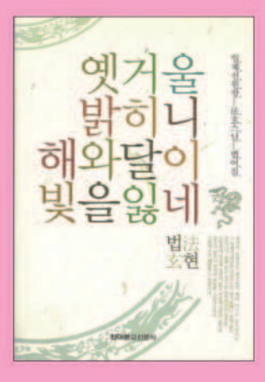


철벽을 부수고 벽안을 열다

대원스님 지음 | 양장 | A5 | 347쪽 | 13,000원 | 여시아문 펴냄

"'이것이 무엇이냐?' 하고 지극한 의심을 품어야 합니다. 밥먹고 똥 싸고 잠자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의심이 진정으로 성성해져서 매(昧)하지 않으며, 그 의정을 그대로 깊이깊이 끌고 나가면, 내가 의식이 없는 세계에 가서도 그 의심 덩어리 하나가 그대로 성성하게 됩니다. 깊은 잠이 들었을 때에나 깨어 있을 때나 관계없이 순수하게 성성한 지경에 가면 비로서 해결이 될 수 있는 상황이 가까워진 것입니다. 다 되었을 때에는 마지막에 가서 본인이 어떠한 경계든 경계에 부딪혀서 뒤집어 집니다. 번신일전(飜身一轉) 즉 몸을 뒤집어 엎어서 한번 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뒤집어졌을 때 비로소 '아!' 하고 본인이 깨달아서 알 뿐입니다."(본문 중에서)
계룡산 학림사 오등선원 조실 한암대원 선사의 법문과 대담, 전법의 현장에서 밝히는 좌선의 기초방식과 화두 참구법의 핵심을 담은 선(禪)법어집이다.

화두는 분별 없는 마음거울 밝히는 공부



옛거울 밝히니 해와 달이 빛을 잃네

법현 저 | 양장 | 신국판 | 416쪽 | 15,000원 | 여시아문 펴냄

"생사에 대한 분별심은 옛거울(古鏡)의 체와 하나로 같으면서도 그 자체가 허망한 영상으로서 옛거울에는 본래 없는 것이다. 본래 없는 것인 줄 알아버리면 생사를 초월하여 마음에 걸림이 없고 마음에 걸림이 없으면 공포가 없으니 생사의 허망한 그림자로부터 근본적으로 해탈할 수 있다." 임제선원장 법현 스님의 선(禪) 법어집이다.
생사를 근본적으로 해탈하는 방법은 분별심을 끊어 버려야 가능하다는 가르침을 담고 있다. 말세의 범부라도 허다한 분별심이 본래 없는 옛거울의 지혜로 관조하여 화두를 심두(心頭)에서 끊임없이 일념으로 들고 나아가면, 반드시 생사의 뿌리인 분별심을 근원적으로 끊어버리고 의단을 타파하게 된다고 한다.

전국 서점과 인터넷서점에서 판매 중 • 출판 및 구입 문의 (02)2632-8739 • 도서출판 여시아문과 비움과소통은 자매 출판사입니다